



11

1985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5. 11호

(루게 457)



◆◆◆◆◆◆◆◆◆◆ 차 례 ◆◆◆◆◆◆◆◆◆◆

사회주의현실주제 창작의 가장 옳은 길을 밝힌 강령적문헌.....	4
사랑의 트랙.....	9
기다리는 마음.....	10
백두산의 대답.....	11
사랑의 자옥은 (외 2 편).....	11
황 금 산.....	12
대학이 오네.....	12
만경대초가집 (외 1 편).....	13
목 란 꽃.....	13
당중앙 우리러.....	14
나에겐 그대밖에 없어.....	15
팔 답.....	15
당비서의 밤길.....	16
막 장 길.....	24
삼각형의 법칙.....	25
탄 부.....	33
탄부, 그대는... ..	33
병 사.....	34
그들처럼 빛나게 살자.....	34

탈수굴진공의 행복	35
《포구마을》	36
한 굴진소대장에 대한 이야기	37
봉 화	39
영원한 대답	40
끝은 길 (외 1 편)	41
조국의 진군길	41
그때만도 미처 몰랐답니다	42
포구에 닳을 내릴 때면	42
정 어 리	43
고향에서	44
사랑과 믿음	45
풍년든 함주벌에서	53
해 일	54
분 수	62
기다린 봄	62
아동중편소설 창작에서 성격창조와 생활묘사의 수준을 높이자	63
극적정황속에 살아난 진실한 성격	69
기쁨속에 옛말하네	71
거울 반쪽	72
조국의 푸른 지붕아래서	75
폭 포 (외 2 편)	76
사랑은 어디 있는가	76
사랑의 조건	77
나는 알고있다네	77
초 산 (외 2 편)	78
양 토 나 루	78

산 촌 풍 경	79
옛지휘관이 찾아오다	80

사회주의현실주제 창작의 가장 옳은 길을 밝힌 강령적문헌

김하명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60년 11월 27일 작가, 작곡가, 영화부문 일군들과 하신 담화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를 발표하신때로부터 역사는 25돌기의 년륜을 새기었다.

지난 25년동안 우리 나라에서 주체적문학예술이 찬란히 개화발전하여온 영광의 로정은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에서 밝힌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과 진리성, 그 불패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천리해안의 예지와 과학적통찰력으로 1960년 당시 우리 나라의 사회력사적조건과 문학예술의 실태를 깊이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천리마시대의 위대한 현실을 옹게 반영하고 천리마기수들의 전형을 빛나게 창조하여 문학예술이 공산주의교양의 힘있는 수단으로서 자기 사명을 다 할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남이 열걸음 걸을 때에는 백걸음을 걸으며 남이 십리를 달릴 때에는 백리를 달리는 기세로 천리마의 대진군을 다그치고있었다. 전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우리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쳐몰리친 승리자의 기세드높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겹겹이 막아나서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영웅적으로 이겨내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계획과 5개년계획을 앞당겨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기초를 튼튼히 쌓고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게 되었으며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전면적으로 세워놓았다. 이렇게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역사적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장엄한 로력투쟁속에서 천리마운동이 발단되었으며 그것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끝나고 소극성과 보수주의, 신비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전당적인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근로자들과속에서 공산주의교양이 강화되는 행정에 더욱 발전하였다. 그리고 천리마운동이 확대발전하는 과정에 수천수만의 천리마기수들이 자라났다.

현실에서는 이와 같이 천리마의 대진군이 힘차

게 벌어져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적과 혁신으로 들끓고 사람들이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자라나고있었으나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천리마시대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있었으며 사회주의건설자, 천리마기수들의 보람찬 생활과 높은 정신도덕적품모를 바로 형상하지 못하고있었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는 바로 천리마운동이 힘차게 벌어지던 당시 우리 나라에 조성된 새로운 사회경제적조건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준 강령적문헌이다.

로작에는 무엇보다먼저 사회주의현실을 주제로 하는 작품창작에 응당한 힘을 넣으며 천리마의 시대정신을 바로 구현할데 대한 문제가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으로 해명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천리마시대사람들의 보람찬 생활과 영웅적투쟁모습을 그려야 하며 그들의 희망과 념원을 뚜렷이 나타내야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오늘의 생활과 영웅들을 그리는것이 지난날의 생활과 영웅들을 그리는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은 사실이지만 만일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그린 작품을 하나 잘 만들기만 한다면 그것은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서 지난날을 그린 작품보다 훨씬 더 큰 작용을 할수 있다는것을 강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결국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은 오늘의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데 복무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지난날보다도 현실에 더욱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현실생활에 가까운것을 그릴수록 작품이 더욱 가치있는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고전적명제는 문학예술에서의 현실성구현에 관한 문제, 문학예술창작에서 주제명역을 규정하는 원칙에 관한 문제, 나아가서는 문학예술작품의 가치평가수준에 대한 문제에 창조적해명을 주고있다.

작가가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생활소재를 골라잡으며 주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것이 선차적문제로 나선다. 그것은 소재가 종자를 꽃피울수 있는 생활적바탕

으로 되며 주제가 작품에서 말하려고 하는 기본 문제이기때문이다. 소재는 작품에서 인간관계를 맺어주고 이야기줄거리를 엮어나가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준다면 주제는 예술적전형을 실현하는데서 그 생활자료의 취사선택을 방향지어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의 인간학적본성과 근본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창작방향을 규정하는 기본원칙을 제시하심으로써 작품의 인식교양적기능을 높여나갈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주시었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의의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에 대한 산 모범을 보여준다는데 있다. 다시말하면 일반적으로 현실주제의 작품은 지나간 시대의 생활을 반영한 역사적주제의 작품보다 교양적의의가 크다.

그리고 생활을 현실 그대로의 구성을 가지고 생동한 화폭으로 재현하는 문학예술의 본질적특성으로 하여 당대현실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그 시대 창작가들이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실주제의 작품을 창작하는것은 언제나 그 시대 작가, 예술인들 앞에 나서고있는 역사적과업으로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작가들은 지난날보다도 현실에 더욱 관심을 돌려야 하며 지나간 역사적사실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현실생활과 잇닿아있는 생활을 오늘의 혁명실천과의 관계에서 그리며 생활과 투쟁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는 방향에서 사회적의의가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정치성있게 풀어야 한다.

우리 당과 혁명의 역사적뿌리로 되는 항일혁명전통과 그것을 계승한 해방후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을 취급한 작품들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도 그 것이 오늘의 혁명과 건설에 직접적으로 잇닿아있는것과 관련되는것이다.

오늘의 현실생활을 어떻게 그릴것인가 하는것은 작가, 예술인들앞에 언제나 새로운 과제로 나선다. 그것은 사회와 인간생활이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며 그 발전의 흐름속에서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도 변하기때문이다. 오늘의 현실은 래일에 가서는 벌써 역사적과거로 되며 오늘의 사회주의건설자들은 지나간 시대의 사람들과는 사고와 행동, 생활방식에서 전혀 다르며 천리마시대의 생활은 지난날의 생활보다 그 내용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다. 이로부터 사람들에게 산 모범을 보여주는 생활과 투쟁의 훌륭한 교과서로 될만한 현실주제의 수수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창작가들이 남다른 탐구와 창조적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다음으로 대중교양의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영화예술을 천리마현실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고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창작에서 견지하여야 할 사상미학적원칙들을 주제사상에 기초하여 새롭게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는 영화를 만드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을 잘 반영하며 사람들에게 끝없이 넓은 앞길을 열어주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생동하게 보여주는것입니다.》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을 잘 반영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생동하게 보여주는것은 사회주의현실주제의 혁명적작품창작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며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그것은 새것이 낡은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발전하는것이 사회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이기 때문이며 더우기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되는 천리마운동이 온갖 낡은것과의 투쟁을 통하여 난관과 장애를 뚫고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발전하였기때문이다.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을 잘 반영하는것이 사실주의문학예술의 일반적요구이지만 천리마의 기세로 급속히 발전하는 사회주의현실주제의 혁명적작품창작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는 새것과 낡은것의 투쟁을 옳게 반영하는 문제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문제와 밀접히 결합되어 유기적인 통일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그래야 생활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밝혀낼수 있는것이다.

인간학인 문학예술창작에서는 이러한 사실주의적전형화의 요구가 인물들의 성격창조를 통하여 실현된다. 이로부터 사회주의현실주제의 혁명적작품창작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인물들의 성격을 어떻게 형상할것인가 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시대가 제기한 이 물음에 명확한 해답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화에는 생산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상이 강조되어야 하며 위대한 생활은 어떤 한들의 탁월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역사적사명을 자각한 수백만 근로자들의 투쟁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주제의 관점이 명백히 나타나야 한다고하시면서 이러한 영화의 주인공들은 패활하고 락천적이며 난관앞에 굴할줄 모르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 전형적인 새 인간으로 그려져야 하며 그리고 지난날 천대받고 압박받던 사람이 끊임없는 노력과 수양으로 헌신적로동의 시련을 거쳐 마침내 성공하고야마는 그런 생활과정을 잘 그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천리마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고조를 일으켜 나가고있는 그 위대한 힘은 바로 혁명실천속에서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와 자기의 역사적사명을 깊이 깨달은 사회주의근로자들에게 있으며 《천리마를 탄 기세로달리자!》는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모든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면서 사회주의건설에서 날에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는 천리마기수들에게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수천수만에 이르는 우리의 천리마기수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영웅적투쟁과 창조적로동으로 온갖 뒤떨어진것을 짓부시고 훌륭한 새 사회를 창조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영웅들이다.

천리마기수들의 성격적특성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시대의 요구와 자기의 역사적사명을 자각한 새 사회건설의 선구자로서 생산혁신자들일뿐아니라 재능있는 관리일군들이며 능숙한 조직작들이며 훌륭한 교양자들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현실의 본질과 천리마기수들의 성격적특성에 맞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 작품창작의 형상원리를 새롭게 밝히심으로써 근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고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옳바로 가르쳐주는 생활과 투쟁의 참된 교과서를 창조할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현실주체의 영화를 창작하는데서 문제는 그 사상적내용에 있다고 하시면서 사상적내용문제는 누구보다도 먼저 영화문학작가들이 해결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영화문학은 영화의 사상예술적기초이며 영화문학을 잘 쓰는것은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영화를 돈벌이 수단으로 하고있는 흥행업자들에 의하여 영화문학을 홀시하는 악습이 조장되었고 그 영향으로 하여 당시 우리 문학부문에서도 영화문학을 《제2류적인것》으로 보는 그릇된 견해가 남아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화문학의 위치와 역할을 새롭게 밝히시고 영화문학을 선행시키며 이에 힘을 넣을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영화예술의 사상예술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로작에서 영화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장면에 맞는 노래를 작곡해야 한다고하시면서 천리마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람들을 창조적로동으로 불러일으키는 즐겁고도 씩씩한 노래를 많이 지을데 대하여 가르치시고 노래를 반드시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짓는것을 주요한 원칙적요구로 제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노래에서도 중요한것은 사상적내용이라고 하시면서 사상적내용과 인민성의 호상관계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원리적으로 밝혀주시었다.

노래는 시대의 정신을 옳게 반영하고 고상한 사상적내용을 풍부히 담아야 인민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으며 참다운 예술적가치도 지닐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인민들은 사상성이 높은 노래를 좋아합니다. 인민이 받아들이고 인민이 사랑하며 즐겨부르는 노래라야 쓸모가 있지 몇몇 전문가들만이 리해하고 좋아하는 노래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예술의 진정한 평론가는 인민들입니다. 인민들보다 더 충명한 평론가는 없습니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모든 물질적 및 정신적재부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은 어느 계급보다도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사회혁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며 이로 하여 시대정신을 옳게 반영한 사상성이 높은 노래를 좋아하게 된다.

시대정신이란 바로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한것이다. 그런데 사회와 생활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며 이에 따라 시대정신도 새로운 내용을 지니게 된다. 작가, 예술인들이 언제나 시대와 함께 전진하며 오늘의 시대정신의 높이에서 전형적인 생활을 그리며 사회적의의가 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풀어야 작품의 사상성을 높일수 있고 그것이 인민들의 사랑을 받게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다음으로 우리의 문학예술을 천리마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창작의 기본담당자인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예술적준비를 튼튼히 갖추는 문제에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의 의도를 잘 모르고서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전진운동을 정확하게 리해할수 없으며 오직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람만이 복잡한 현실속에서 새것과 낡은것을 가려낼수 있으며 본질적인것을 정확하게 찾아낼수 있다고 하시면서 작가, 예술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당의 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현실에 대한 당의 혁명적립장과 주체적인 과학적태도와 방법을 체득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예술적준비에서 우리 당정책에 대한 깊은 연구가 가장 선차적인 과업으로 나서는것은 우리 주체적문학예술의 본질적특성과 사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합법칙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절대로 혁명의 리익과 당

의 로선을 떠나서는 안되며 착취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하여서도 안됩니다.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 문학예술만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문학예술론》 169페이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정책으로 일관되고 생활을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반영하는것은 우리 문학예술작품의 사상예술성과 교양자적기능을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사회에서의 현실과 당정책과 문학예술의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당의 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는것과 함께 현실속에 깊이 파고들어가서 노동자, 농민들의 생활을 깊이 체험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작가, 예술인들은 당정책과 현실을 모르고서는 작품에 인민들의 생활을 정확히 반영할수 없으며 기쁨진 형상을 창조할수 없다. 당정책과 현실은 변증법적관계에 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출발한것이며 그것은 근로대중의 실천투쟁에 의하여 현실생활에 구현된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당정책으로 무장하고 현실에 들어가야 새것과 낡은것, 긍정적인것과 부정적인것을 옳게 가려볼수 있으며 현실체험을 잘해야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을 생활적으로 깊이 체득할수 있고 신념화할수 있다. 더우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자연도 사회도 사람도 날에날마다 몰라보게 변모해가는 오늘의 우리 나라 현실은 작가, 예술인들에게 당정책연구와 현실체험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 작가, 예술인들이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공장이나 농촌에 가서 노동자, 농민들과 늘 접촉하고 그들의 생활을 세심히 관찰하며 노동자, 농민들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현실생활을 볼수 있게 될 때 새형의 인간을 찾아낼수 있으며 작품에 천리마기수들, 공산주의적 새 인간들의 보람찬 생활과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진실하게 그려낼수 있다.

로작에는 이밖에도 사람들에게 대한 교양에서 긍정적모범을 내세우는것을 위주로 하고있는 우리 당의 방침과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데서 작가, 예술인들이 지니고있는 영광스러운 임무에 대하여서와 문학예술부문에 대한 지도체계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편할데 대한 문제, 문학예술

을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등 우리 문학예술을 천리마시대의 요구에 맞게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해명을 주시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는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고조가 일어나고있는 천리마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주체문학예술을 건전하게 빨리 발전시키며 그의 사회교양자적역할을 더욱 높여나가기 위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사상미학적문제들에 심오한 과학적해명을 준 강령적문헌으로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리론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심으로써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정책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고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사회주의건설장으로 달려갔으며 노동자, 농민들과 늘 접촉하고 그들의 생활을 깊이 체험하면서 천리마기수들의 보람찬 생활과 영웅적투쟁모습을 형상한 우수한 작품들을 수많은 내놓았다.

서정시 《하늘의 별들이 다 아는 처녀》(정서춘-1961년), 《천리마휘장을 두고》(조성관-1961년), 《시대에 대한 생각》(정몽환-1961년), 《조국이 사랑하는 처녀》(오영재-1963년)

단편소설 《해주-하성에서 온 편지》(김병훈-1960년), 《백일홍》(권정웅-1961년), 《령북땅》(리병수-1963년), 《고기떼는 강으로 나간다》(진재환-1963년), 《애착》(최창학-1963년), 중편소설 《회답》(김홍무-1963년), 《봄소나기》(김병훈-1964년), 장편소설 《거센 흐름》(윤시철-1964년), 《용광로는 숨는다》(윤세중-1960년), 《지하의 별들》(변희근-1970년), 영화문학 《갈매기호 청년들》(한상운-1961년), 《정방공》(한성-1963년), 《끝없어라 나의 희망》(백인준-1964년), 희곡 《우리는 행복해요》(한도수-1961년), 《두메산속에 꽃이 핀다》(백인준-1961년), 《붉은선동원》(1961년), 《산울림》(리동춘-1961년), 《아침노을》(박령보-1964년), 《아득령》(리웅렬-1964년) 등 우리 나라 작가들이 사회주의현실주체의 문학작품창작에서 내놓은 성과작들만을 보아도 이 로작의 위대한 생활력을 잘 알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를 발표하심으로써 이를 지침으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이 시기 국제적으로 대두한 기회주의조류의 해독적영향을 제때에 막아내고 창작에서 사상적순결성을 고수할수 있었으며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의 결합을 옳게 실현하여 우리 문학예술의 사상예술

적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울수 있었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천리마운동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으로 더욱 발전하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짐에 따라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혁명적작품을 창작하는데서는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충성으로 받들어 우리 당과 혁명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깊이 헤아리시고 문학예술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현실주제의 혁명적작품창작에서 새롭게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하나하나 독창적으로 밝혀주시고 그 창작을 다그쳐나가도록 우리 작가, 예술인들을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창조와 령도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1970년 6월 18일 작가, 예술가들과 하신 담화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혁명적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 1974년 12월 6일 당선전일군들앞에서 하신 말씀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1980년 1월 8일 조선작가동맹 제3차대회에 참가한 작가들에게 보내신 서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자》**, 1981년 3월 31일 전국문학예술인열성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를 비롯한 문학예술부문 여러 로작들과 문학예술사업을 친히 지도하시면서 주신 말씀들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맞게 사회주의현실주제의 문학예술을 창조발전시켜나가는 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악동하는 현실생활을 반영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하는것은 우리 문학예술부문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입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3대혁명의 기치밑에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장엄한 현실을 반영하여야 하며 주체형의 새 인간들의 보람찬 생활과 영웅적투쟁 모습을 그려야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주체형의 인간전형, 3대혁명전위들과 숨은영웅들의 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문제,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나서는 절실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들을 제때에 제기하고 이에 옳바른 해답을 줄데 대한 문제, 사람들의 혁명화 과정을 깊이있게 그려데 대한 문제, 시대정신을 옹계 구현할데 대한 문제, 창작에서 종자를 바로

끌라잡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창작에서 독창성을 발휘하며 철학적깊이를 보장할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예술에서 자연주의적표현을 극복할데 대한 문제, 창작가들의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높여나갈데 대한 문제 등 3대혁명의 기치밑에 끊임없는 전진과 혁신으로 들끓고있는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혁명적작품창작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원칙적문제들을 원리적으로 심오하게 그리고 누구나 쉽게 알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하고 정력적인 지도밑에 대전성기를 맞이한 우리 주체문학예술의 대화원에는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성과작들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찬연한 빛을 뿌리고 있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장시 《설레이라 벼바다, 강녕이바다여》, 《간석지시초》, 단편소설 《자기 위치 앞으로》(엄단웅), 중편소설 《불바람》(리종렬), 《병사의 고향》(김동욱), 장편소설 《평양시간》(최학수), 《령마루》(엄단웅), 《생명수》(변희근), 《뜨거운 심장》(변희근), 예술영화 《꽃피는 마을》, 《로동가정》, 《처녀지배인》, 《열네번째 겨울》, 《청춘의 심장》, 가요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 가극 《금강산의 노래》,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 무용 《천리마단조공》, 조선화 《강선의 저녁노을》 등 몇편의 작품이름을 드는것만으로도 이 시기에 와서 사회주의현실주제의 혁명적작품창작에서 얼마나 큰 전환이 일어났는가를 당당히 말할수있다.

대전성기를 자랑하는 우리 주체적문학예술의 이렇듯 찬란한 개화발전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적문제사상의 위대한 승리로 되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 문예방침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자랑찬 시위로 된다.

오늘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근로자들은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하루 빨리 점령하기 위하여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힘차게 내달리고있으며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벽찬 투쟁속에서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3대혁명의 전위들과 숨은 영웅들, 주체형의 공산주의 새 인간들이 수많이 자라나고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강령적 문헌들을 더욱 깊이 학습하고 당의 문예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현실주제의 혁명적작품창작에서 끊임없는 고조를 견지하며 새로운 창조적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시대가 제기한 역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할것이다.

사랑의 트랙

윤명숙

꽃향기 흐르는 트랙에

별돋는 저녁이 오면

노래소리 웃음소리...

처녀들은 낳아준 고향집보다

방직공의 첫걸음마를 떼어준

합속트랙을 더 사랑하네

수령님 사랑어린 트랙엔

실버들 우거져 온갖새 노래하고

꽃들이 만발한 합속트랙엔

방직공들 기다리는 정원이있어

처녀들 꿈도 많아

부러워 달도 저리 지켜보는가

어버이 그 사랑을 노래하며

잠 못드는 처녀들의 가슴속 소중한 노래

돌기돌기 사랑의 넋륜을 새기는

푸른숲과 함께 처녀들이 자라지

트랙이여 트랙이여

너는 우리의 큰 교실이되어

동지애의 참뜻도 서로 일깨워주었고

때론 새 기술의 논쟁으로

기술문명의 밝은 눈 띄워주어

너는 얼마나 많은 혁신자 영웅들을 길러냈더냐

노래 잘불러

피끌새라 부르던 그 처녀도

어엿한 일군으로 자라 이 트랙을 나섰구나

이리로 자주오던

창의고안명수로 소문난 그 총각과

사랑을 맺던 암전한 그 처녀도

지금은 혁신자가 되었지

트랙이여 정든 트랙이여

어버이수령님 꾸려주신

사랑의 트랙이여

나라의 일군으로 자란 그들이

옛트랙으로 다시 찾아올 때면

생각깊이 걸어보는 추억많은 트랙이여

아 세월은 흘러도

변함없이 푸른꿈 키워주며

날에날마다 자기바다를

끝없이 나래쳐가는 방직공들 마음속에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사랑의 트랙이여!

기다리는 마음

김 석

오신다는 소문도 없이
아버이수령님 오시였던 그날엔
너는 애어린 사과나무였지

흠날리는 눈보라
한몸에 다 막아주시며
한 그루 또 한 그루...
어린 너를 만져보실 때
단발머리 나를 쓰다듬어주시는듯

잊을수 없어라
영광의 그날에 하신
아버이수령님 말씀

지주집 담장안에 떨어진
돌배 한알 주은탓으로
눈먼 손주를 끌어안게 되었다는
한 할머니의 기막힌 이야기

흐리신 안색으로
원한의 그 이야기 되뇌이시며
이 외진마을에도 과원을 조성하여
사철 사과를 먹게 해야 한다고

온 나라 인민들 모두가
제고장 사과를 마음껏 먹을 때
수령님께선 제일 기뻐시다고
붉은 사과 주렁지는 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실 때

온 조국이 그이품에 안겨
감격의 바다로 설레이듯
흰눈도 축원의 꽃보라로
송이송이 설레며 내렸지

그날의 그 사랑속에
오늘은 다 자란 사과나무
산은 산마다
층층 붉은 띠를 두르고
끝은 끝마다
과일향기 넘쳐나는데

이런 날, 이런 때면

더더욱 못견디게 기다려지는
간절한 이 마음
오시였으면
아, 진정 우리 수령님
다시 오시였으면...

좋은 날, 좋은 철
모두 우리에게 안겨주시려
긋은 날, 험한 일기
남먼저 맞으신 수령님
오늘은 또 어느 농장의 두렁길
새벽길을 걸으시는지

수령님 이어가시는
끝없는 현지도길에
풍성한 과일매대 보시고
못내 기뻐하시는 그 영상 우러르며
한밤중 꿈속에서도 깨어나
과원으로 달리는 마음

가지가 휘도록 주렁진
붉은 사과
다 자란 나무 끌어안고
속삭이는 이 진정

욕심이 많다 나무람말고
많이 더 많이 열려주려마
너의 가지 휘고 또 늘어져
수양버들이 된들 어떠리

우리 수령님
가지가 휘도록 주렁진
너를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가
얼마나 만족해하실가

수령님 바라신
그날의 그 념원 꽃피우며
산마다 끝마다 주렁진 사과바다
언제나 영광의 그날속에
나날이 커만가는
아, 내 마음아-

백두산의 대답

로응렬

폭우속 어디쯤이나 백두산은?
아버이수령님 이윽도록 바라보신다
거기서는 우리와 번개가 날고
타래치는 먹장구름속에서
전설의 룡무리들이 싸우는듯...

날이 새면 오르시도록
수원들은 말쑥드렸다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수령님
조용히 웃으시었다
《백두산은 주인을 알아볼것ियो
모두 올라갑시다 !》

신비롭구나 백두산은 !
수령님 산정에 오르시자

두터운 구름장이 짝 갈라지며
해빛 해빛이 쏟아진다 !

무지개 비긴 천지, 황홀경의 세계다!
수령님을 우러러
수원들 기쁨 감추지 못했다
《정말 백두산이
주인을 알아본것 같습니다 !》

그때라 백두산이 대답했다
《아니요, 백두산의 천지조화는
장군님께서 거머쥐고계신다오
그래서 세상에 신비롭다는 나는
예나 지금이나 장군님의 백두산이요 !》

사랑의 자옥은 외 2 편

차명문

그제날
토지분여받은 다음해였소
화전민들 살림이 넘쳐되시여
아버이수령님 여기 찾으신것은
양덕이라 소소리높은 산
골도 깊은 은하리 구지골

자옥자옥
사랑의 자옥이시였소
구름도 쉬여넘는 치마대 등판
아아한 중부조선의 분수령 예까지
수령님 오르신 그 걸음은

돌다리 개울을 건너
머루덩굴 가시밭도 헤치시며
이 산에는 보물이 쌓였다고
그리도 기뻐하시교

구름나무숲 다래굴 지나
바위를 안고도실 때엔
밀천을 들이지 않는
풍만한 살림 예 있다고
만족해하시며 오르신 길 아닌 길이라오

발길도 짚기 저어해지는
오미자밭에 이르시여선
약초숲을 다정히 쓸어도 보시며
우리 나라 산은 황금산

산을 잘 리용할줄 알아야 한다시며
해종일 걸으신 걸음은
사랑, 다함없는 사랑의 걸음

아, 그날 그 사랑의 자옥마다에
오늘은 풍만한 숲이 설레고
머루다래 더욱 호함치고
백정보 약초밭이 무르녹으니
이 아니 자랑인가

아버이수령님 사랑의 자옥
오늘은 한없는 기쁨을 펼쳤으니
끝은 끝마다
도라지밭 고사리밭

숲은 숲마다
약초숲 산나물숲
봉은 봉이마다
잣나무림, 소나무림
이름도 좋아
저마다 씨불인 간판도 자랑스럽소

진정 자랑의 간판우에
《산불조심》 완장 낀 보초나무들까지 섰으니
이 모두가 아버이수령님의 뜻대로
황금을 따는 한없는 자랑
후세에 길이 전하고저함이 아나겠소

황 금 산

산, 산 황금산
머루다래 무르익어
황금산이던가
수령님 그제날 가르치심대로
기름나무도 심었더니
황금산 황금산

산, 산 비단산
뽕나무 가득히 많아
비단산이던가
수령님 잡아주신 방목지에
양떼 구름처럼 흘러
비단산 비단산

산, 산 약산

오미자 만삼도 많아
약산이던가
수령님 은혜론 손길 따라
층층 열두당반 백정보
약초밭 산나물밭
봉이마다 사슴떼 덮였으니

약산중에도 장생불로 약산

아, 산은 산마다
황금산, 비단산, 약산
이름도 좋아 보물산 황금산
어버이수령님 뜻으로 활짝 꽃핀
양덕이라 은하리 구지골은
이름도 높은 황금산, 황금산이라도

대학이 오네

세상에 이런 희한한 일
언제 또 있어봤던가
대학이 오네
통신학생들을 찾아

대학추천을 받고도
그제날 심려어린
제고장 농사일이 걱정되어
스스로가 농장에 떨어졌다는 그들

청년분조원들의 그 마음씨
하도 기특하여
자원하여 온다는 저 선생들은
학계에서도 이름있는 교수, 박사들
보기만해도 미덥구나
산촌에 찾아오는 대학이여

서둘러 달려가 반겨맞으며
얼싸안은 청년분조원들은
이제 앓은자리에서
겨우내 공부하는 대학생
얼마나 행복하고 자랑스러운가

올해농사 얼마나 과학농사였던가
론쟁은 격렬했어도
전진 없는 말씨름

과학적실험분석도 없었기에
쉬이 주장을 세우지 못하던 논리
에타는 그 심정을 헤아려오던 대학

좀체로 더 늘지 않는
안골 자드락밭 수확고 《숙제》도
이제 풀어주리란다
통쾌하게 시원스럽게...

한없는 사랑을 받아안았구나
비탈밭 류실을 막고 지력을 높여
소출을 높이라신 수령님 교시
기어이 관철하리라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장 큰 꿈을 지닌 그들

수령님 다녀가신 그제날보다
열핍의 소출을 내고도 성차지 않아
해마다 돌우에 꽃피우는 정성
그 마음씨 하도 귀중해
조국이 통채로 안겨주는 사랑

오, 그 사랑을 안았기에
세상에 또 없는 희한한 일
대학이 오네
우리 청년분조원들을 찾아
대학이 오네 두메산골에 대학이 오네

만경대초가집 외 1편

(유고슬라비아) 미로슬라브 데마크

나는 이 세상
이름난 도시들을 다 가보았네
빛나는 도시들
영웅의 도시들
고대의 도시들을

이 모든 도시들에서
나는 많이도 보고
많이 들었네
이름난 도시들과 더불어
길이 전해진다는 위인들의 이름을...

위엄있고
오리오리한 궁전에서
위인들이 태어난다고
그 누가 말했더냐

나는 말하고싶노라
세월은 흘러 천만년 가도
그 모든 궁전과 함께
전해진 위인의 이야기
몇몇이나 되던가

화려하고 엄엄한
그 많은 궁전들
저마다 제이름 빛내려
글을 남긴 위인들
그 모두가
인민 위해 해놓은건 무엇이던가

수천만년
인민은 싸움터에서
피흘려 싸웠지만

얻은것은 굶주림
파괴 황폐였네

하지만 여기 조선
기와아닌 초이영을 엮은
만경대의 자그마한 초가집에서
곰도바쯔의 작은 나무집
찌뜨가 탄생한 그런 집에서
위대한 **김일성** 동지 탄생하셨네

대대로 가난을 물려받은
이 초가집에서
천금과도 바꿀수 없는 그 이름
인민의 위대한 아들
인민의 위대한 아버지
인민의 위대한 지도자
탁월한 **김일성** 동지께서 탄생하셨네

김일성, 그이는
조선을 해방시키시려고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삶의 기쁨을
행복의 락원을 펼쳐시여
조선의 존엄을 펼쳐주셨네

말로 다 할수 없고
노래로 다 전할수 없어
심장으로 소리높이 웨치노라
화려하고 오리오리한
그런 궁전에서가 아니라
김일성 ! 위대한 그분은
가난한 초가집에서 탄생하셨노라고

목 란 꽃

만물상을 내리던 길가에서
나의 친구 조선의 벗은
향기그윽한 목란꽃
한송이를 꺾어주었네

저녁녘에
나는 그 꽃잎을
그 향기와 함께
일기장 갈피에 간직하였네

밤
깊은 밤 꿈결에
그 무슨 소리가
나의 귀전에 가볍게 울리는듯하더니

...
나를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나는 내 조국땅에
그냥 남고싶어요
나를 금강산에 그냥 남겨둔다면
당신이 조선을 보고싶어할 때마다
나의 향기 날개로 되어
꿈처럼 당신을 데려오겠어요

꿈에서는 천만리도 지척인걸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데려오겠어요
아름다운 나의 조선을
나와 처음 만난 금강산을
다시 찾아오고 기뻐할
당신을...

꿈속이건만
나는 현실처럼 미소를 담고
목란꽃을 보고

대답하였네

...
목란꽃 목란꽃
나를 두려워말라
나는 너를 너의 조국땅
여기 금강산에 남게 해주마
자기 조국을 떠나는것보다
더 괴로운 일 없음을
나는 잘 아노라

목란꽃 !
너의 조국은
김일성 동지께서 찾아주신 땅
너의 조국은
김정일 동지께서 빛내주시는
조선이여라

아, 목란꽃 !
조선의 꽃이여 !
나는 금강산에 너를 두고 떠난다
그 순간이 꿈결이었어도
나는 그 어느때보다 행복했어라

(김혜영 역)

당중앙 우러러

김상조

너무나도 승엄하고 조용하구나
해맑은 집
정원의 나무 말없이 고요를 지키는
당중앙 청사

거리를 향해
문은 활짝 열려져있고
어서 오라 나를 불러주었건만
선듯 들어설수 없구나
옥상에 붉은 당기발 펄럭이고
정면벽에 커다란 당마크 새겨져있는
오, 조선혁명의 참모부

그 어느 창가에선가
그이께서 정문길을 내다보고계시는듯
만면에 환한 미소 담으시고
이 딸을 마중나와 품안아주실듯

책상물림의 3대혁명소조원이
날마다 과학지식보급실의 불빛밝혀
온 농장원을 준기사의 대렬에 내세웠다고
과학농사 포기농사 알심있게 지어
강냉이창자 넘쳐나게 했다고
기쁘시여 못내 기쁘시여
먼거리전화로 이 딸을 불러주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

무더운 여름날에
눈보라 몰아치는 한밤에
사래긴 발이랑에 구슬땀 뿌리며
사람들 가슴을 울리고 마음을 이끌어
3대혁명기수로 키우던 나날의 이야기들
당선전일군들앞에서 하라시누나

이야기하라시누나
어릴적 나의 작은 가슴에 붉은넥타이를 매여주고

피끓는 가슴에 푸른 땀을 안겨주며
나의 손 따듯이 잡아 당대오에 이끌어세워준
혁명선배들앞에, 스승들앞에
자애로운 어머니당앞에

내 무슨 말 할수 있으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할 이야기는 정녕,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쳐주시고
일깨워주신
당과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노래 그대로이니
아, 뉘뛰는 가슴 부여잡고

당중앙 우러러
이 문앞에 오래오래 서있고싶구나
따를수 없고 헤아릴수 없이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이 문앞에서 심장깊이 새겨안나니

당을 알고
당을 받드는 마음 커갈수록
레사롭게 들어설수 없는 문
끝없이 숭엄하여 걸음 멈춰세우는
우리 당중앙
자애로운 어머니품이여!

나에겐 그대밖에 없어

리광근

사람마다 낳아키워준 어머니
세상에 하나뿐이더라
하나뿐인 어머니 사랑에 자라기에
우리 어머니 제일이라 하더라

자랄 때는 자래우느라 기울이는 사랑
다 크면 잘되기 바라 베푸는 사랑
자식많은 어머니일수록
잔걱정인들 또 얼마랴

그러하더라
우리에게 하나뿐인 그 어머니
지닌 사랑 고스란히 기울여
천만자식을 안아키우는 어머니

내 생의 마지막순간에도
목메여 부르며 갈 어머니인
아, 우리의 당
나에겐 세상에 그대밖에 없어
그대만이 제일이더라

팔 담

한상호

쇠사다리 층층 못오르면
금강산의 황홀함 못다안고 가리
벼랑길 가파롭다 돌아서면
팔담이 어디인지 못보고 가리

금강산의 아름다움 다 안고가고싶어
나는 가네
돌계단 딛고 바위벼랑 넘어
팔담을 찾아 나는 가네

열두사다리, 열두나무 잡고올라서야
더없이 진귀한 팔담을 안아보네
이렇게 가는 길 팔담이 되리
이렇게 찾는 아름다움 내것이 되리

금시 선녀들이 머리감고 하늘로 오른듯
옥돌에 담긴 파란 물 스적이고
사슴뿔같은 봉우리들 물위에 드리우는데
넋없고 굽어보는 이 마음

아, 금강산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숨겼던 절묘함마저 다 내놓는것인가
진정한 아름다움은
끝없이 숨어 빛나는것인가

금강의 아름다움만이라
인생의 가장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들
그 누가 보지 않는 깊은곳에서
한생 당을 받들어 말없이 살더라

당비서의 밤길

리신현

박상규는 매일같이 눈코 뜰새 없이 들볶이는 생활에 찌들고 습관된지라 오늘도 현장에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아무런 별다른 생각없이 자기사무실로 돌아왔다.

공장노동자들이 누구나가 출입하기 엄엄해하는 지배인실문을 덜컥 열어젖혔다.

그러나 이날은 출입문고리를 잡는 순간 그자신도 지배인으로 생활하다 처음인 서름한 감을 느꼈다. 방은 여전히 그 방인데 이전의 지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불쑥 들어섰을 때처럼...

박상규는 그런 허구쁜 마음이 어디서 생겼는가를 잠시 가늠해보듯이 한손으로 면도자리가 푸릿한 아래턱을 눌러잡았다. 그리고는 가벼운 한숨을 지으며 창문앞으로 다가가 방금전에 보이라직장수리공 윤찬이와 만났던 구내길을 쓸쓸히 굽어보았다.

윤찬은 설계실 부실장으로 일하며 그의 특별한 총애와 신망을 받아온 젊은이였다. 그가 기름때 묻은 허름한 작업복차림에 녹슨 발브퀘미를 둘러메고 터벌터벌 마주걸어오던 초췌한 모습이 현상액속에 잠가둔 인화지우의 물체처럼 다시금 눈앞에 서서히 펼쳐졌다.

(하긴 내가 달라졌지, 벌써 석달이나 그를 감감히 잊고지내다니... 이런 실수라구...)

오래간만에 만난 그들이 어색한 침묵을 한두마디의 긴치 않은 말로 굵때고 헤어진자리에는 어느덧 해거름이 내려앉고 그우로 저녁녁의 소슬한 바람이 마른 먼지를 휩쓸어가고있다.

...박상규가 윤찬이와 알게 된지도 벌써 십년 가까이 되어온다.

지금에 와서 회고해보면 우습기 짝이 없는노릇이지만 그때 지배인으로 갓 부임된 그가 난생 처음 자동차기중기를 제작해놓고 기중기팔이 놀지 않아 골머리를 앓던 일은 아직도 기억속에 생생하였다.

공장안의 유능한 기능공들과 기술자들이 큰일이라도 난것처럼 모아붙여 역사질 하는데도 하늘소발통처럼 움직여주지 않던 그 애물을 손쉽게 길들인 애송이 청년이 있었다. 그가 바로 김책공업대학 학생으로 졸업실습중에 있던 윤찬이였다. 공장에서는 병어리를 말시킨것만큼이나 청년의 재능에 탄복해마지않았고 몇달이 지나 지배인이 동분서주하며 그를 설계실기사로 데려왔을적에는 모두들 재간은 재간이라고 와짜 떠들어올렸다. 박상규는 기분이 들떠 청년을 애지중지 품어오다가 어느 청명한 봄날 그를 위해 일생에 한번 중

매라는것도 서봤고 결혼식이 있은후 윤찬이가 설계실의 의젓한 부실장으로 승급하자 자기의 오른팔처럼 전적으로 믿게 되었다. 그러나 바라고바랐던 기대와는 달리 부실장으로서의 윤찬의 평판은 그닥 시원치 못했다.

언젠가는 늘 말수가 적어서 탈이던 박상규의 안해까지 윤찬의 주위에서 술렁거리는 뒤소리를 얻어듣고와서 혀를 찼다.

《글쎄 뭐라고들 하는지 들어보시구려, 공장에서 데려다가 고운 색시를 붙여 잔치까지 뜨뜨하게 차려준 사람인데 배은망덕하다는거예요. 여론이 좋지 않을수밖에요. 그 사람이 부실장으로 등용된지 얼마라구 벌써 기고만장해서 설계집단을 깔보며 저만 잘난체한대유? 대그루에서 대순이 돌아난다고 당신이 골라잡은 사람인데 갈데 있겠수.누굴 닮아서 그러는거겠지요.》

박상규는 안해가 무엄히 늘어놓는 말을 듣고 기분이 언짢아서 누가 그따위 허튼소리를 함부로 하던가고 버럭 화를 내었다. 그러지않아도 이따금 설계실행정협의회에 참가해보면 입가진 사람은 누구나없이 윤찬이가 부실장이 되자 동료들의 설계안을 시답잖게 여기며 대가연하오, 일하기가 여간 말썽지 않소 하고 떠따고있지만 박상규는 그것이 다름아닌 자기가 지배인사업을 하며 귀청이 떨어지게 들어온 소리였던것만큼 매번 적당히 웃어넘기고말았다. 일군이 군중의 말시비에 오르면 별찮은것도 곡해될 때가 많다. 윤찬의 사무실 책상우에는 늘쌍 그가 애용하는 큼직한 확대경이 위엄있게 놓여있곤했다. 설계원들은 안질이 좋은 부실장이 괜히 도수높은 확대경을 갖춰놓고 설계도면을 검토하며 다른 사람의 심장에 부담을 준다고 해서 점잖지 못하게 《확대경》이라고 부르다가 박상규한테서 단단히 혼뜨감이 났다. 하고보면 안해의 물렁한 시비파위가 무엇이랴.

《여보, 제발 웃기지 마오. 사람이 뭇판데 없이 너무 두리몽실해두 야단이란말이요.》

《말두 마시우. 만날 당신 혼자서 부실장이요 하고 취율리지만 두구보라구요. 지붕꼭대기에 달린 호박도 미운 손가락질을 받으면 꼭지가 떨어진다우.》

《방정맞은 소리!》

박상규는 구들장을 울렸지만 안해의 말은 몇참 못가서 그에게 너무도 심각한 교훈을 깨우쳐주었다.

석달전에 윤찬은 설계집단의 의사를 무시하고

혼자서 무모한 왕고집을 부리다가 중요한 대형화물자동차의 설계에 만회할길 없는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이 문제를 두고 부실장자리에서 물러앉고말았다. 안해의 예언처럼 윤찬이가 꼭지떨어진 호박격으로 되어버린 지금에 와서야 박상규는 윤찬에 대한 자기의 소위 애정과 신망이라는게 인간을 떠난 직능본위의 허울뿐인 사랑이었음을 인정하게되는것이 몹시도 괴로왔다.

그는 두손으로 창문고리를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옆방은 공장당비서 송태호의 사무실이다.

당비서의 방 창문턱우에는 초저녁의 어둠이 내려앉아 옅은 잠자리를 폈다.

오늘따라 당비서는 왜 아직도 현장에서 돌아오지 않는것인가...

때마침 밖에서 조용히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당비서인가? 그러나 방안으로는 뜻밖에도 공장병원의 순환기와 너의사가 암전히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다.

윤찬의 안해였다. 얼마전만 하여도 너의사는 박상규와 만나면 지배인의 갑작스런 중매바람에 처녀시절을 때이르게 놓쳤다고 속상한 시늉을 하였다. 그런뒤에는 자기의 하소연이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스스로 폭로하며 반가와 어쩔바를 몰라했었다. 너의사의 출현에 놀란 박상규는 한동안 그들 멍하니 쳐다보았다.

너인이 왜 찾아왔는가? 남편의 일때문에... 아닌게아니라 한쪽손에 위생가방의 끈을 감아친 너의사는 금방 울고난 얼굴마냥 눈가장자리가 발그스름했다,

《무슨 일로 왔소?》

박상규는 이미 충분히 대답을 예견하고 물은 말이였으나 너인은 주저했다.

《저 당비서동지의 건강때문에...》

박상규는 혹시 자기가 착각하여 너의사의 말을 잘못듣지 않았는가싶어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제가 구태여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테지만 당비서동지한테는 절대적인 안정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이상으로 당비서동지의 건강을 훌륭히 담보할수 있는 처방은 없습니다. 만약 당비서동지가 의사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락관적으로만 생각하며 자신을 무리한다면 수습하기 어려운 후과가... 아직 제 일개인의 소견에 불과합니다만 이미 당비서동지의 몸엔 대상선기능부족도 오고 심한 경우 생명에 위협이... 참말 안타까운일이예요. 이젠 지배인동지의 방조를 바랄밖에 없어요.》

박상규는 순식간에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것을 느꼈다. 과연 이 너인은 지배인이 자기 남편 한사람의 문제도 책임져주지 못한 위인임을 모른단말인가?

너의사는 남편의 일에 대해서는 꼬물만큼도 내

색하지 않았다.

《알겠소. 알겠소...》

박상규는 고통스럽게 너인을 외면하였다.

당비서의 건강은 구태여 너의사가 강조하지 않아도 박상규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있는 일이었다.

송태호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가슴에 치명상을 입고 어려운 심장수술을 거쳐 겨우 소생한 일군이다. 그때 그를 사경에서 구원한 고마운 외과의사는 환자를 퇴원시키며 남들이 일생에 혜택받는 인간생활의 향락을 30년동안에 짊그리 누리라는 그닥 섭섭치 않은 권고를 했다. 송태호는 전쟁의 불바다속에서 외과의사가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담보한 날자보다도 벌써 해수로 삼년이나 더 살고있다. 그도 많은 경우 생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그는 자기만을 귀중히 여기며 일생을 조용하고 안온히 살아갈수 없는 당일군으로 《직업》을 잘못 선택한것이였다. 그러나 지금도 때때로 심장을 돌발적으로 위협하는 경련만이 아니면 그는 누구보다 행복할 사람이였다.

《안심하오. 》

며칠전 청사의 3층구석에 달린 송태호의 사무실을 채광이 좋은 지배인실 옆으로 옮겨온 일을 다행스럽게 생각한 박상규는 너인을 달래듯이 말하고나서 눈길을 떨구었다.

대형화물자동차생산이 본격적으로 진척되자 송태호가 전투지휘부와 잇달린 청사의 구석방에 립시로 거처해있었다. 박상규는 정치분과 성원들과의 합의하에 그의 방을 감쪽같이 조절해버리였다.

새로 꾸린 송태호의 사무실에는 남다른 그의 건강상태를 우려하여 특별히 개인용 침대까지 들어놓았다. 그런만큼 너의사가 속상해서 찾아온 마음은 어느정도 위안할수 있으나 윤찬의 문제만은 여전히 무엇이라 변명할 말이 없었다.

《고마와요. 》

너인은 박상규의 마음을 짐작해서인지 인차 돌아서 나갔다.

박상규는 너의사가 방에서 사라진후에도 한참이나 얼얼한 심정그대로 서있다가 창문앞으로 천천히 다가섰다. 퇴근자들의 발걸음이 뜸해진 구내길로 혼자 반달음쳐가는 너의사의 머리우 어둑컴컴한 공간에는 주강로의 밝은 화광이 어려원형의 둥그런 천정을 인상적으로 그려놓았다.

그때 청사의 조용한 복도를 울리며 두번째로 귀에 익은 투박한 발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당비서가 분명하였다. 뒤이어 간벽을 통하여 옆방의 출입문소리를 가려듣고 성급한 걸음을 옮겨 그리로 건너간 박상규는 대뜸 눈이 멍그래졌다.

아침에 얼핏 만났을 때와는 생판 달리 신수가 멀끔해진 송태호가 얼굴에 밝은 웃음을 담고 그를 흘깃 돌아다보았다. 금방 리발을 한데다가 평시의 텅텅한 성미에 어울리지 않게 반백의 고실고실한 머리칼에는 염색까지 해서 마치 삼십대의

젊은이같이 반드르해보였다.

《지배인동무, 왜 아직 퇴근하지 않습니까?》

《누가 할 소릴 하는지 모르겠는걸요. 방금전에 공장병원 녀의사가 찾아왔더군요.》

송태호는 박상규가 불만스러워하는 말을 듣고 그만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윤찬의 안해말이지요. 그럴줄 알았습니다. 참 가락한 녀성이지요. 난 그 녀의사와 만날 때면 늘 지배인동무생각을 하곤하는데 아무리 봐야 개차반같은 성미인 윤찬이한테 너무 과남한 녀성같거든요. 하긴 당자들사이의련애를 떠난 중매라는게 구습 절반에 절반은 얼림수지요.》

한바탕 유패히 담소하고난 송태호는 새로 환하게 꾸러놓은 방안을 둘러보다가 구석쪽의 새하얗게 백포를 깔아놓은 쇠침대에 구슬픈 눈길을 주었다.

《지배인동무, 그런데 이젠 너무하지 않습니까?》

박상규는 당비서가 사전에 자기와 토론이 없이 조절한 방문제로 하여 웅색해하는 심정을 리해하였지만 아닌보살하였다.

《지배인동무가 언제나 각별한 성의를 가지고 돌봐주니 나로서는 미안한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옆에 방을 옮겨오니 서로 의지가 되고 마음도 후더워지는것 같구요. 한데 우리 두사람의 사무실이 가까이 맞붙어있으면 로동자들이 말쑥여 하지 않겠는지 근심스러운걸요. 가령 이런 경우를 가상해봅시다. 누군가 지배인동무와 마주앉아 애로되는 문제를 토의하다가 말다툼이라도 벌어졌다면말입니다. 공장생산이 바쁠적엔 별일이 다 생기지 않던가요. 그때 지배인동무의 사무실에서 울컥하고나온 사람이 당비서한테 와서 분을 삭이게 되어야 지배인동무가 안심하고 일할게 아닙니까. 그가 왕청같은데로 찾아다니면 사달이 나지요. 그런데 방이 나란히 붙어있어봐서 나한테로 찾아오겠는지?지배인동무가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도 당비서방의 문두드리는 소리를 너근히 엿들겠는데... 아마 그런 계륜한 생각만 들면 내 방앞에 왔다가도 투덜거리며 가버리고말겁니다. 게다가 유방실마냥 출입문까지도 이렇게 요란히 방음장치가 되였겠다...》

송태호는 두툼한 해면우에 진갈색의 인조가죽을 해씩우고 대각으로 누빈 출입문을 주먹으로 꺾꺾 눌러보다가 실망에 잠겨 머리를 저었다.

《권투선수들이나 련습삼아 팡팡 두드려대기 좋겠군요.》

조금후 그들은 정숙이 깃든 청사의 문밖을 나서 나란히 퇴근길에 났다. 화광이 충천하는 주강로의 상공에는 선홍빛 불노을이 둥그렇게 어려 그들의 앞길을 흰히 밝혀주고있었다. 아까 녀의사가 돌아갈 때보다도 룡박이 훨씬 커져보였다.

《참, 그리구 지배인동무, 주물직장의 얼굴생김이 우락부락한 장덕길청년이 생각납니까? 언제부터 주형작업을 흐름식으로 개조해보겠다면 젊은

이말입니다. 글쎄 오늘 그녀석과 만났는데 아무도 자기 창안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날보고 행패질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박상규는 당비서의 관심사로 되고있는 장덕길의 창안에 대해선 이미 초보적인 료해가 있는지라 어둠속에서 혼자 빙긋이 웃었다. 대형화물자동차의 생산만 해도 아름다운관인데 아이보다 배꼽이 크게 놀자는 식의 그러루한 창안에까지 일일이 원심을 쓰는 당비서의 마음이 너무 무뎠다게 생각되어서였다.

마침 그들의 앞에 두 갈래의 갈림길이 희옴스름히 나타나는 바람에 다행히 이야기는 저절로 동강났다.

서로 각기 다른 방향에 집을 두고있는 그들은 매일저녁 퇴근길에 오손도손 즐겁게 나누던 말도 여기에 이르면 어쩔수없이 끊군했었다. 그런데 이날밤은 송태호가 헤어지기 아쉬운듯 박상규의 집쪽으로 그냥 함께 걸었다.

《오늘밤은 내가 지배인동무를 바래워주는 셈치고 좀더 걸읍시다. 장덕길녀석이 보통엉터리가 아니던걸요. 글쎄 녀석이 불이 잔뜩 부엌길래 내가 이마뺨을 쥐여박으며 <동무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왜 없다구 그래? 당비서가 귀뻘하더라 말은 말구 보이라직장에 가서 윤찬이를 만나라구.> 했구려. 그말에 녀석이 대뜸 눈초리가 꺾꺾해지더니만 <당비서동지, 아무려문 그런 권고도 하십니까? 섭섭합니다. 당비서동지도 잘 아시는 일이지만 이 장덕길이로 말하면 윤찬동무가 설제실 부실장직위에 있을때 이미 두번씩이나 찾아다니다가 팔세를 받지 않았나요.》라고 펄쩍 뛰더군요. 사실인즉 그러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윤찬이를 불러놓고 알아들을만치 뜨끔하게 비판해주었더랬는데 이제 와선 모두들 불목상대하려는 눈치란말입니다.》

정녕 당일군다운 우려였다.

《옳은 말씀입니다. 실은 저도 그가 해임된후로...》

박상규는 윤찬의 처지를 놓고는 자신의 뻔뻔치 못한 마음을 숨기고싶지 않았으나 웬일인지 송태호가 그 말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윤찬의 문제가 상정된 석달전도 그랬고 지금도 지배인의 고심에 대해선 아랑곳하지 않는 송태호의 태도로 하여 사실상 박상규의 심정은 여간 괴롭지 않았다.

송태호는 잠시 중단했던 장덕길의 이야기에만 열중했다.

《한데 내가 사무실로 돌아와 장덕길의 문제를 다시 의논해보려고 전화통을 집어들려는 때에 녀석이 제발로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아깐 정말 잘못했노라고 사죄하더군요. 이를테면 윤찬의 도움을 받아 창안을 성공하겠다는 소리였지요. 어찌도 반갑던지, 난 녀석을 덥석 껴안아주었군요.》

박상규는 한동안 묵묵히 걸었다. 혹시 당비서가 장덕길의 창안을 성사시킬 겹 지배인이 골똘

리 앓고있는 윤찬의 문제를 동시에 풀어보자는 의도가 아닌가? 그러자 박상규는 방금전만 해도 자기의 기분과는 너무도 먼거리에서 이야기된다고 생각했던 장덕길의 창안이 불시에 지배인의 생활과 떼어놓을수 없이 무척 가깝고 살들하게 여겨지는것이었고 다른 한편 그런 감촉때문에 당비서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수 없는 이중의 심리를 동시에 체험하게 되었다.

《참, 이야기바람에 벌써 지배인동무네 집앞에까지 왔구만. 그럼 오늘밤은 이만 헤어집시다.》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가겠습니까?》

《웬걸요. 이런 밤에야 혼자 걷는 멋도 있지요.》

박상규는 송태호가 조금도 유감스러워하는 기색없이 발길을 돌리자 인적없는 길바닥에 혼자 우두커니 남았다. 희미한 별빛만이 옥실덕실 뒤 꿇고있을뿐인 어둠속으로 당비서의 뒤모습이 찾아들어 더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과연 저 근면하고 부지런한 당일군이 일생에 오늘과 같은 밤길을 얼마나 걸었을것인가? 자기였다면 아늑한 사무실의 안락의자에 편안히 앉아 충분히 교환할수 있었던 한두마디의 말을 위해서 그는 이 밤도 저렇게 먼길을 수고스럽게 되돌아가는것이다. 아직도 그가 혼자 깊은 사색에 잠겨 걸어가고있을 어둠속에서는 아파트 창문의 불빛이 하나둘 잠내를 뚫기며 고요히 꺼지고있었다.

공장생산이 긴장되어 현장에서 만나절을 보낸 박상규는 점심식사후의 짧은 시간에만나 잠시 휴식하려고 의자등받이에 치친몸을 기대다가 도로 일어났다. 며칠전 당비서가 퇴근길에 장덕길의 창안을 두고 걱정하던 일이 문득 생각났다. 그날 밤 송태호의 이야기를 심각히 받아들인 박상규는

당장 윤찬이와 만나 장덕길의 창안을 성공시킬 결심을 했었다. 그러나 윤찬이가 설계실 부실장직위에서 해임된후 그를 까맣게 잊고 지낸 일로 하여 선뜻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남이 가슴아파할적에는 얼굴도 비치지 않다가 자기 발등에 불덩이가 떨어지자 서둘러 찾아다니는 지배인을 그가 과연 어떻게 생각할것인가? 박상규는 바로 그런 체면과 자존심때문에 윤찬의 도움을 요구하지 못하고 하루이틀 장덕길의 창안을 미뤄오다가 옆친데 덮치는격으로 이번에도 또다시 당면한 생산에 파묻혀버리고만것이었다. 그가 겨우 찾아온 한순간의 안정을 잃어버리고 무거운 생각에 잠겨 방안을 거닐 때였다.

누군가 요란히 문을 두드렸다. 호랑이 제소리를 하면 나타난다더니 장덕길이가 찾아들어왔다.

《지배인동지, 점심시간에 버릇없이 뛰어들어 미안합니다. 저에게 며칠간 휴가만 승인해주시면 즉시 돌아가겠습니다.》

《뭐요? 휴가문제야 동무네 직장장한테 제기해도 얼마든지 해결받을수 있지 않소?》

박상규는 윤찬의 도움을 받아 창안을 성공하했던 청년이 난데없이 휴가승인을 받으려 지배인실에까지 달려온 일이 수상쩍이 그를 유심히 쳐

다보았다.

《공장사정이 휴가를 늘겠다고 할수 있게 됐어야 말이지요. 그래 지배인동지한테로 직방 올라왔지요. 실은 과학원 연구소에 처견으로 사돈의 팔촌쯤되는 사람이 있는데 체면불구하고 거기 가서라도 창안을 방조받자고 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혹시 동무가 당비서동무와의 약속을 잊고 하는 소리가 아니요?》

《있다니요? 그렇지만 윤찬동무와는 다시 상대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이젠 사람을 우습게 봐도 형편없이 우습게 본단말입니다.》

청년이 윤찬에 대한 말을 꺼내자 첫마디에 우물렁대는걸봐선 일이 여간 틀려진것 같지 않았다.

《가만, 덤비지 말고 좀 차근차근 말하오. 그래 윤찬동무와 무슨 말다툼이라도 있었소?》

《뭐 다투고말고할게 있나요. 내가 멍텅구리노릇을 했지요. 사실은 당비서동지가 강경히 권고한 일이어서 거절하지 못하고 만났더랬는데 글썽 윤찬동무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아니, 그만두겠습니다. 그 량반이 설계실 부실장때 내 창안때문에 불러다니며 추궁을 받았던 사람인데 굽게 불리 만무하지요. 하고보면 나도 뻔뻔스런놈이라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그래 몇쩍은김에 사실대로 빠개놓고말해줬지요. 만약 당비서동지가 한사코 등밀어 보내지 않았더라면 동무앞에 와서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을거라구요. 헛참기가 막혀서...》

청년의 푸념에 정신이 말짱 개이는것을 느낀 박상규는 보온병의 미지근한 물로 마른 목을 추기였다. 당비서가 의도한대로 장덕길의 창안이 윤찬의 도움에 의해 성공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으로 만사가 풀릴줄 알았는데 일은 땡땡하게 꼬인것이다. 이제 이 다혈질의 청년이 결집에 돌아가서 윤찬에 대한 가시돌린 말을 처처에 퍼뜨리면 당비서의 립장인들 얼마나 딱해질것인가?

《그래 동무들사이에 있는 일을 당비서동무가 알고있소?》

《압니다. 마침 구내길에서 만났길래 사실대로 말했지요. 공장당비서동지한테서 직접 분공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 틀려졌는데 입을 봉할수가 있습니까.》

《알만하오. 이젠 그만하고 돌아가보오. 그리고 동무의 휴가문제로 말하면 당비서동무만이 결론할수 있을것 같으니 그리 알고있소.》

박상규는 청년이 어깨를 으쓱해보이고 돌아서 나가자 기사장실에 전화를 걸었다.

《기사장동무요? 다름아니라 이번주안으로 각직장들에서 제기되는 기술혁신안들을 장악하여 가지고 시급히 추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겠소. 대형화물자동차생산이나 끝내놓구 보잔말이지. 하긴 나도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거야 묵여뒀다가 한가한 때에 기지개를 켜면서 조겨보자는 말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

럼 부탁드립니다.》

수화기를 도로 제자리에 놓은 그는 곧 옷걸개에서 모자를 벗겨썼다.

오늘은 보이라직장에 찾아가 윤찬이와도 조용히 만나볼 심산이었다. 그가 이전에 몇번이나 당위원회 문고리를 잡아왔다고 당비서의 마음을 알 것인가?… 밖에 나선 박상규는 구내수송차들의 운행에 거치장스럽게 길한복판으로 걸어가면서도 그에 대해선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마주오던 화물자동차가 길을 비켜주려니 하고 달려오다가 몇발자욱앞에 와서 급정거했다. 여느사람이었다면 한참이나 붙잡고 까다롭게 굴었을 운전사가 다행히 지배인을 제격 알아보고 썩웃었다. 박상규는 운전사한테 건성 손을 쳐들어보이고서야 길가턱으로 비켜섰다. 그다음에는 누군가 옆을 지나치며 인사를 했으나 얼마후에야 그런 일이 있었던것 같은 느낌이 겨우 들었을뿐이었다.

보이라직장에서는 웬 청년이 화실앞에 털어내 놓은 슬라크를 팔파리에 퍼담으며 노래를 불러대다가 윤찬이가 어디서 일하는가 하는 지배인의 물음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능글맞게 웃어보였다.

《저기 수리작업반 휴계실인데요. 금방 공장당 비서동지가 내려와 담화중인데요.》

청년은 공장간부들이 한꺼번에 찾아내려온걸보아 일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인지 썩웃니 팔파리를 물고 밖으로 내달았다.

박상규는 청년이 손짓해보인 수리작업반 휴계실앞으로다가가다 말고 무춤 멈춰섰다.

《그래, 동무가 아니면 장덕길의 창안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줄로 아요?》

송태호의 성난 목소리가 울려왔다.

《천만에! 언젠가는 동무도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한테 필요한 존재로 살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알게 될 기회가 있을거요. 물론 동무가 설계실 부실장으로 수치스럽게 생활한 기간을 놓고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할수 없을테지. 동무가 누구 자기 이상으로 아꼈고 그들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해준적이 있었소? 남들한테 정신적으로 부담과 고통을 주며 박정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생활이란 무엇이겠소? 동문 이미 그것을 눈물겨웁게 체험한 사람이 아니요? 전도유망한 기술자인 동무가 생활에서 탈선하자 대형화물자동차의 설계도 망치게 되었던래지.》

《당비서동진 왜 이 윤찬이만 매질합니까. 누군 설계실 부실장을 하며 고충이 없은줄 알니까? 나도 그들에게 일도 맡겨보았고 또 토의도 해보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 해야지요? ! 전 대학을 졸업하고 설계실에 입학을 불인지 십년이 넘도록 기술자대우만 받으며 무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한테 진절머리가 나서 마주보기만 해도 화가동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누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게 되었지요.》

《알고있소. 현장에 나가보면 기사자격을 가지고 로동자들의 뒤꿈무니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더러 있으니까. 그러나 가장 큰 골치거리는 동무와 같이 책임적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깜짝 놀랄정도로 인간적인 감정이 고갈되어버린거요. 동무에겐 그들을 도와줄 의무가 없고 차디찬 눈길로 경멸할 권리만이 부여되어있었던말이요? 그래서 그들의 정당한 의견도 묵살했겠소?》

《당비서동지가 바라는 인간적인 감정에 대해서 말한다면 저도 할소리가 있습니다. 당비서동진 절보고 장덕길의 창안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책망하셨지만 아마 그도 자기창안을 성공시킬 절박한 요구가 없었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이 보이라수리공한테로 발길조차 하지 않았을겁니다.》

박상규는 윤찬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얼어드는듯한 싸늘한 감을 느꼈다. 그것이 바로 지배인에 대한 원망과 규탄이 아니고 무엇인가. 뒤이어 그는 송태호가 책상을 쿵 울리는 소리에 정신이 팔쩍 들었다.

《여보시오. 밥상머리에서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고 끌어주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요? 당장은 울음이 그칠수 있지만 며칠 못간단말이요. 심술사나운 녀석은 하루쯤 굶기며 종아리를 쳐야 버르장머리가 똑 떨어지는거요. 혹시 우리들중에 동무를 그 다루기 말쑥 어린것쯤치고 매일 찾아오고싶어도 참는 사람이 있는지 알겠소? 남을 사랑해봐야 다른 사람의 심정도 이해할수 있는거요.》

박상규는 당비서의 그 말까지 듣고는 량심이 찢려 그자리에 더 서있지 못했다. 보이라현장에서 발걸음을 돌린 그는 그길로 자기 사무실로 돌아오자 문견의 장의자에 주저앉아 불뉘처럼 달아오르는 이마를 두손으로 꼭 눌러잡았다. 혹시 당비서가 윤찬의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 다소 억지를 쓰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나를 두둔해나선건 아닌가? 그렇다면 당비서는 자기의 높은 세계에 따라서지 못하는 이 지배인을 두고도 얼마나 안타까운 때가 많았을것인가…

어느때 송태호가 돌아왔는지 건너편방의 출입문이 여닫기는 소리와 함께 이어 가슴을 쥐어짜는듯한 기침소리가 연거퍼 들려왔다. 당비서가 왜 갑자기 저렇게 천식이 심해졌는가?

언제 한번 아래사람들한테 얼굴을 붉힌적없는 그가 오늘은 너무도 큰소리로 윤찬을 질책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송태호는 윤찬이와 만나고 와서는 자기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었다. 매일 현장에 나가 살던 사람인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튿날 박상규는 그의 방으로 건너가 보았다. 송태호는 장덕길이와 다정히 마주앉아있었다. 당비서의 책상우에는 왕창같이 여러권의 기술잡지들과 도면말이가 수북이 놓여있었다. 아마도 장덕길의 창안을 토론한 모양이었다.

《지배인동무, 마침 왔군요. 지배인동무가 여기 장덕길동무의 휴가신청을 부결한건 정말 잘했습

니다. 난 방금 장동무의 창안에 대해서 료해하여 보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가능할것 같을 거요. 그럼 덕길동무 돌아가시오.》

장덕길은 책상우의 도면말이를 거둬가지고 일어났다.

《도면은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여기에 좀 두지 않겠소?》

《그렇게 하지요. 비서동지.》

송태호는 청년이 송구한 표정으로 방에서 나가자 책상우에 다시금 눈길을 주었다. 오랜 시간 장덕길과 이야기하는 나날 때문인지 약간 부석부석한 그의 얼굴은 몹시 파리해보였다.

《이거 내가 장동무바람에 술한 공부를 합니다요.》

박상규는 당비서가 장덕길의 창안에 너무 마음을 쓰니 마주보기조차 죄송하였다.

《당비서동무, 장덕길의 창안에 대해서는 걱정마십시오. 내가 윤찬동무로 해서 피로울 비서동무의 심정을 몰라서 이런 권고를 하는게 아닙니다. 오늘중으로 다른 기술자를 붙여서라도 장덕길의 창안을 추진시키도록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라니요?》

송태호는 놀란 눈길로 박상규를 쳐다보았다.

《아니요. 난 지배인동무의 결심에 찬성할수 없습니다. 장덕길동무한테 다른 사람을 붙일바에야 우리가 무엇때문에 윤찬동무를 호되게 추궁했겠습니까. 장덕길의 창안은 어떻게 하든지 윤찬동무가 돕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내가 안타까운건 기술을 모르다보니 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을 줄수 없는것입니다.》

박상규는 당비서의 진심앞에서 가벼운 한숨을 지었다.

바로 그날 오후 송태호는 주물현장에 나가 장덕길과 함께 일하다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도대체 당비서가 로앞에서 일할만한 체질이 되는가?... 그 소식을 듣자 박상규는 공장병원을 향해 허둥지둥 달려나갔다. 그가 얼굴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내뿜혀 송태호의 입원실에 헐썩거리며 들어섰을 때였다.

급방 의사, 간호원들이 환자를 구급처치하느라 설치며 돌아간 병실안의 침대에는 송태호가 눈을 지그시 감은채 기맥없이 누워있었다. 옆에 담당의사인 윤찬의 안해가 바싹 붙어앉았는데 녀인은 점적대의 투명한 유리관을 통하여 환자의 혈관속으로 뿔랑뿔랑 굴러내리는 약물방울에 온통 정신이 팔려버린듯했다.

두팔을 힘없이 침대우에 내맡긴 송태호는 지배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박상규는 옆에 조심스럽게 지켜섰다가 환자의 자세한 병환을 알아볼겸 원장실로 찾아갔다. 뒤늦게야 병원에 나타난 지배인을 무표정히 맞아들인 늙은이는 책상우에 번들이마를 고이고 깊은 상념에 잠겨 앉았다가 얼흔이 나간듯한 혼자소리로 《정말 놀라운 일이지! 기적적인 심장이란 바로 저런 사람을 비유하여

생긴 말일거요.》라고 중얼중얼했다. 원장은 송태호한테서 심한 충격을 받고 정상을 벗어난 극도의 흥분상태에 빠져 채머리를 흔들었다. 그래서 로인을 붙잡고 시끄럽게 굴수 없었던 그는 송태호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말만 개략적으로 얻어듣고 방에서 조용히 나와버렸다.

조금후 공장으로 돌아왔다. 박상규는 그날처럼 송태호에 대한 근심을 놓지 못하며 오랜 시간 사무실에 앉아있은적이 없었다. 당비서는 불원간 병원침상에서 일어나기 어려울것이었다. 가벼운 한숨, 그런 쓸쓸한 생각을 안고 의자에서 몸을 일으킨 그는 혼자 방안을 서성거리다가 어느새 송태호의 썰렁한 사무실로 건너가 책상서랍속에서 출입문 열쇠를 찾아쥐고 도로 복도로 나왔다. 그다음은 당비서의 빈방을 잠그었다. 송태호가 완쾌된 몸으로 돌아오기전에는 그를 사무실에 들여놓지 않을셈으로 열쇠는 자신이 직접 건사하였다.

밤중이었다. 련사홀동안이나 송태호의 곁을 떠나지 못하며 뜬눈으로 새운 윤찬의 안해가 지배인실에 진한 요드포름냄새를 풍기며 뛰어들더니 울상이 되어 발을 동동 굴렀다. 《지배인동지,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당비서동지가...》

《당비서동무가 어떻게 됐소?》

《글쎄 갑자기 공장으로 나오겠다면서 담가를 요구...》

엇그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난데없이 담가에 실려 공장으로 나오겠다바람에 박상규의 흰자위도 어지간히 휘둥그레졌다.

(도대체 어떻게 된 조화속인가? 무엇때문에 밤중에 똥단지같이 담가를 요구하였을가.)

《모를 소리요.》

박상규는 그만 실망에 잠겨 머리를 저었다.

여태껏 당비서의 건강을 두고 내심 몹시 걱정하고 우려도 하였지만 이런 암담한 생각에 부닥쳐보긴 처음이었다.

《그래 원장동무도 이 사실을 알고있소?》

《예, 그러나 당비서동지의 고집이 웬간해야지요.》

《아니, 아니요. 그럴수 없소.》

송태호의 까닭모를 무리한 요구를 생의 종착점에 도달한 인간의 마지막 소원으로 해석한 박상규는 녀의사와 함께 밖으로 뛰쳐나갔다.

...병원앞의 뒹뒹한 등성이길로 서서히 미끄러져내린 담가는 거창한 숨결을 안고 잠들줄 모르는 불빛 찬연한 공장을 향하여 느릿느릿 다가왔다. 어둠이 푸근히 내리덮인 땅우에는 첫빛의 부드러운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한치앞도 분간해볼수 없었다. 담가는 밤의 신비한 입김마냥 가볍게 굽실거리는 안개속을 누비며 차츰 포석길우에 어슴푸레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박상규는 심장이 툭 떨어버릴것만 같았다. 당비서가 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정든 공장구내를 밟아보기로 결심했다는 생각은 너무도 때이르게

예리한 아픔을 자아내었다. 밤하늘에서는 살맞은 듯한 별찌가 류황빛의 파르스름한 꼬리를 길게 끌며 급강하하다가 깜박 종적을 감춰버리고만다.

송태호는 한평생 공장과 함께 근심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과연 그에게는 이 순간 자기의 피와 땀과 노력이 스며있는 일터 그리고 만나보고싶은 사람들, 소중한 추억인들 얼마나 많을것인가! 그는 당일근이기에 전에 평범한 단야공이었다. 물론 지금은 단조장에 가도 그가 젊어서 다룬 자그마한 수동식공기함을 찾아볼수 없다. 그 시절의 젊은 단야공을 회상할수 있는 동년배들도 흔치 않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불타는 심장을 아낌없이 바치며 사랑해온 사람들은 공장안의 어디서나 수많이 일하고있었다.

《동무들, 이게 무슨 일이요?》

박상규는 담가앞을 가로 막아서며 목멘소리로 부르짖었다.

《도대체 이걸 누가 승인했소?》

담가채를 잡은 사람들은 지배인의 추상같은 말에 어리둥절해서 멈춰섰다.

《지배인동무, 책망하려면 나에게 하십시오. 공장으로 나오자고 우겨댄 사람은 나입니다. 어디 잔등이 배겨서 병원침대에 누워있을수가 있어야지요. 아마 지배인동무도 내 처지가 되면 어떻게든지 이 동무들을 설복시키고야말았을것입니다. 지금은 건강도 기분상태도 거뜬한데 너무 걱정마십시오.》

박상규는 당비서가 마치고 산책삼아 병원문밖을 나선 사람처럼 얼굴에 혼연한 웃음까지 지어 보이는바람에 말문이 막혀버리었다.

(불덩어리같은 사람!)

그는 술집의 눈섬필의 두눈망울에 눈물을 굴리며 담가앞으로 다가갔다.

《저 별들을 보오. 얼마나 아름다운 밤이요!》

담가우에서 누구에게라 없이 뜨겁게 속삭이는 송태호의 어글어글한 눈에도 물기가 번들거렸다.

밤하늘은 온통 별들의 천지였다. 당장이라도 손을 내밀면 금시 한줌 소담히 잡힐듯싶었다. 길가녘의 가까운곳에서는 풀벌레들이 어둠속에 숨어 야무지게 울어대며 여름밤의 향그러운 정서를 한껏 돋구어주고있었다. 담가에 누워 느슨한 웃음을 짓는 송태호의 귀밑에서는 여태껏 좀체로 띄어볼수 없었던 반백이 미풍에 가볍게 훑날리였다. 뒤달에 한반씩 어김없이 염색하던 머리칼인데 굵도리에 굴레모양의 흰서리가 선명히 드러나 가슴을 알찌근하게 만들었다. 불과 며칠동안 그를 괴롭힌 병마였지만 평시에 당비서가 애써 숨겨온 생활마저도 송두리채 로출시켜놓고만것이 아닌가!

《지배인동무, 어디로 갑니까?》

그들 일행이 공장에 들어섰을 때 송태호가 넋 지시 물었다.

《단조직장으로요. 당비서동무한테야 저기가...》

《가만, 지배인동문 오늘밤 나에게 공장구경이

라도 시키려는게 아닙니까? 그러지말고 보이라직장으로 갑시다. 윤찬동무가 밤일을 나왔다는군요. 난 그와 꼭 만나야 합니다.》

당비서가 윤찬이와 만나려고 이 밤중에 병원의 사들을 깜짝 놀래우며 공장으로 나왔단말인가?

박상규는 물론 담가를 들고나오던 사람들모두가 억이 막히여 서로 얼굴만 덩돌히 쳐다보며 발길을 옮겨짚지 못했다. 그들의 등뒤에서 윤찬의 안해가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돌아서며 흑흑느꼈을뿐이었다. 방금전만 하여도 지배인실로 찾아와서 당비서때문에 속상해한 녀의사... 그 역시 그처럼 안타까이 뛰여다니며 막아나섰던 당비서의 밤길이 자기 남편을 위해 마련되었을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것이었다.

《지배인동무, 어서 갑시다.》

송태호가 담가에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어방눈짓해보인 보이라직장의 열려진 쇠철문안에서는 방등을 매달아놓은것처럼 어스레한 불빛이 비쳐왔다. 그들이 무연탄냄새가 코를 찌르는 철문안으로 들어서자 현장안은 웅덩그렁히 비어있고 사면벽에 늘어놓은 큼직한 배관들에서 압축공기소리만이 귀아프게 쇠썩거리였다. 때마침 밤교대에 나와 화실주변을 어시빙거리며 돌아가던 로동자가 현장에 나타난 담가를 심상치 않게 눈여겨보다가 황겁히 달려왔다. 보이라수리공 윤찬이었다. 담가옆에 다가선 그는 땀방울이 내뿜힌 시꺼매진 얼굴을 송태호의 머리우에 숙이다말고 흠칫 놀라며 물러섰다.

《아니, 비서동지, 이게 웬일입니까! 당비서동지가 이 밤중에 어떻게...》

《윤찬동무, 난 운신할수 없는 몸이지만 오늘밤 동무와 만나고싶어서 찾아왔는데 달리 생각지 마오.》

송태호는 윤찬이가 자기의 류다른 방문에 어리둥절해하는 기색을 눈치채자 안심시키듯 나직한 음성으로 말하였다.

《비서동지, 그 몸으로... 어찌 이럴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기에...! 그럼 저를 병원으로 부르던가 하실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나옵니까?》

송태호는 깊은 사색에 잠겨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입가에 부드러운 웃음을 지었다.

《윤찬동무, 내가 별로 동무를 크게 도와준 일없이 가슴아픈 충고를 했는데 아직도 그때문에 자신을 괴롭히는게 아니요?》

《아닙니다. 거야 응당한 추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마오. 윤찬동무, 동무가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날로 당위원회에 찾아왔을거요. 공장안의 성실한 당원들은 모두 그랬으니까. 솔직한 말로 난 동무한테 노여운 일이 없는줄 아오? 그러나 동무가 당위원회로 찾아오지 않으니 허전하더구만. 난 십여년간 당일근으로 일해오지만 사람들이 자기결에서 멀어진 때가 가장

피로왔소.》

송태호의 인정어린 말에 감심한 윤찬은 고개를 푹 떨구고 두손으로 담가의 모서리를 으스러지게 짊어잡았다.

《당비서동지...》

《됐소. 윤찬동무.》

《아닙니다. 전 오늘까지 자기본위적으로만 살며 웅졸하게 당위원회고리도 선뜻 잡지 못한 당원이었습니다. 당비서동지가 저에게서 바란것이 무엇이였습니까? 전 장덕길의 창안을 돕지 않고 차마 빈손으로는 당비서동지앞에 나타날수 없었던것입니다. 결국 병원에 면회도 가지 못하고 당원으로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자격까지 상실한 저였는데... 당비서동지가 저같은 당원을 위해 이렇게 담가에 누워 찾아오실줄은...》

송태호가 담가우에서 조용히 얼굴을 돌리며 윤찬의 시커멓게 기름때묻은 손을 살뜰하게 더듬어 잡았다.

《고맙소. 윤찬동무, 내 동무한테서 그 말을 들으니 발편잠을 잘것 같소.》

《당비서동지, 꼭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장덕길의 창안을 기어코 성공시켜가지고 당위원회로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송태호의 살갓이 까칠해진 얼굴에는 그늘진 꽃털기마냥 샘기없는 웃음이 가냘프게 떠올랐다. 두눈의 그윽한 눈빛만이 수만마디의 말을 대신해주는듯싶었으나 그 역시 무자비하게 밀려오는 졸음에 취해버린듯 이내 조용히 감지지고있었다.

《당비서동무, 왜 이러십니까?》

담가의 언저리에 몸을 실으며 송태호의 어깨를 안타깝게 잡아흔들던 박상규가 불길한 예감에 소스라치듯 고개를 번쩍 들며 의사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둘러보았다.

《뭇들하고있소? 빨리 구급차를 불러와야겠소.》

《지배인동무, 너무 떠들지 마십시오. 소용이 없습니다.》

송태호가 감았던 눈을 간신히 뜨며 그를 만류하였다.

《난 이미 자기생명에 대한 가혹한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박상규는 낯익은 사람처럼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보이려한장의 유리창을 들부실듯이 웅점섬광이 어둠을 찢어받기며 세차게 병긋거리었다. 그때마다 창문밖의 고압전주가 역센 철끝을 드러내며 캄캄한 밤하늘에 푸릿한 그림자를 던지었다.

《내가 일생 남을 속인 일이 있다면 지금까지 그 반값지 않은 사실을 지배인동무한테 완고하게 숨겨온것입니다. 나와 원장동무밖에는 그 슬픈 비밀을 알고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원망마십시오. 난 최근 얼마동안에 자기 인생의 어느 순간보다도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만약 내가 현장을 떠나 병원

침상에 고스란히 누워있기만 했다면 자기의 육체적고통을 며칠 견디어내지 못했을것임을 지배인동무도 이해할수있으리라 믿습니다. 원장동무는 그 덕분에 나의 생명이 훨씬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난 늙은이의 말에 동감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사회와 집단 앞에서 자기의 의무를 깊이 자각하고 동시대인들과 그들이 누리고있는 생활을 보다 아름답고 원만하게 변모시켜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송태호가 밤의 습습하고 축축한 공기를 깊이 호흡하며 자기의 인생관에 대하여 즐거움에 차서 이야기한 말은 박상규의 가슴속에서 여러가지로 아린 눈물을 자아내었다.

《당비서동무, 옳은 말씀입니다. 만약 이 지배인에게도 인간에 대한 무한한 성실성, 그 뜨거운 심장이 있었다면 당비서동무가 이런 고달픈 길을 걸었었을겁니다. 용서하십시오. 사실 여기에 대해선 차후에 조용한 기회를 봐서 솔직히 고백하려고 했는데...》

《지배인동무가 윤찬동무때문에 고심하는 마음은 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난 지배인동무의 문제는 벌써 용서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상규는 송태호의 가식없는 말에 그만 실수했다.

《아니, 전 지금에야 자기의 인생총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것을 느낍니다. 당비서동무가 윤찬의 문제때문에 안타까와하는걸 번연히 알면서도 전 자기 체면과 자존심이나 지키며 방관시한 사람입니다. 실은 즉 윤찬의 파오를 놓고는 누구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저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비서동문 저한테 한마디의 추궁도 없지 않았는데요. 간혹 내가 먼저 말을 비쳐도 일부러 피하는 눈치더군요. 도대체 누가 날 용서해주었던말입니까?》

《바로 저 윤찬동무였지요. 오늘의 달라진 보이라스리공말입니다.》

《예?》

박상규는 갑자기 윤찬의 일로 하여 무겁던 가슴속이 확 트이며 전신에 따스한 온기가 퍼지는것을 느꼈다. 윤찬의 생활에 바쳐진 당비서의 사심없는 노력, 때로 꾸지람으로 나타나기도 한 사랑과 애착이 다름아닌 지배인을 위한것이기도 했던가? 그 뜨거운 인간의 진심을 깨달은 박상규는 당비서를 외면하여 고개를 돌리었다. 그리고는 황급히 바지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눈굽에 가져다대었다. 그순간 송태호의 방 열쇠가 호주머니에서 물어나와 땅바닥에 쟁강 떨어졌다. 박상규는 다시금 눈앞이 뿌여스름히 흐려졌다. 송태호가 입원한 날, 그의 사무실을 잠그고 전사해둔 열쇠였다. 박상규는 가락지빵같이 동그란 구리고리가 달린 열쇠를 집어들자 잃어서는 안될 물건처럼 두손에 꼭 감싸쥐었다.

《지배인동무, 그게 내방의 열쇠군요.》

송태호는 놀랄만큼 예민한 감각으로 자기 방의

열쇠를 알아맞히고는 창백하게 굳어진 얼굴에 밝은 웃음을 지었다. 마치도 그것이 어떤 비상한 기적을 발휘하여 그에게 생의 애착과 활력을 소생시킨듯이... 그러자 박상규는 애써 슬픔과 비애를 눌렀다. 당비서와 같이 삶에 대한 아름다운 열망과 희열로 충만된 인간한테는 죽음이란 있을 수 없었다. 설사 육체가 진하여 아쉽게 스러질지언정 그는 인간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와 성실성의 모범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시들지 않을 인생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숨쉴 것이었다.

《당비서동무, 우리 당비서동무가 이 열쇠를 찾게 될 날을 언제든지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배인동무, 저 한가지 부탁을 하고싶는데 들어주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뱀 송태호는 숨을 돌리느라고 그러는지 긴숨을 들이키고나서 눈길을 돌려 윤찬이의 물거머린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리고나서 다시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지배인동무, 저의 방문을 채우지 말고 늘 열

어놓으십시오. 혹 제가 없더라도말입니다. 만약 문을 잠그어놓으면 우리를 찾아왔던 동무들이 얼마나 섭섭해하겠습니까... 꼭 문을 잠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송태호는 마치 누구를 찾는듯 거세찬 숨결속에 약동하는 공장구내를 조용히 굽어보았다.

《비서동무, 알만합니다. 그 뜻을 꼭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박상규는 흐려오는 눈길로 그처럼 절절한 소원이 비낀 당비서의 얼굴을 지켜보면서 터져나오는 오열을 삼키었다.

그것으로 그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는 서로의 애룩한 가슴속에 하많은 사연을 남겨둔채 아쉽게 끝나고말았다. 아울러 그 하루만으로 중단되지 않을 잊을수 없는 밤길도... 당비서의 심장마냥 잠들줄 모르는 밤은 새날의 격동을 안고 깊어갔다.

막 장 길

김재원

몇해만에 다시
내 이 막장길을 걷는가

매화꽃 핀 청년합숙 창턱에
풀색 제대배낭 얹어놓고
달려와 떠들썩 걸던 막장길
내 그때 스물 몇살이었던가

탄차가 달리는 레루장에 걸터앉아
첫 사랑에 가슴울렁이듯
내 탄전의 첫 시편을 썼더라
탄가루 묻은 그 시첩이 하도 대견해
조국은 작은 싹을 소중히 품어
나를 시인으로 키워줬나니

내가 캔 첫 탄도 이 길로 달려나가
창조의 위업에 흰 연기로 피어올랐고
내가 쓴 탄전의 첫 서정시도
이 길로 세상에 내려쳐가지 않았더라

잊지 못했노라 잊지 못했노라
아, 막장길 막장길
대동강유보도를 거닐적에도
묘향산탐승길을 오를적에도
조국땅 그 어느 길 걸을 때에도

가는곳 어디나 탄이 있어

그래서 내 못잊었던가
세상 어디나 탄이 없인 못살아
그래서 내 잊지 못했던가

떠났기에 리별한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청년탄전의 막장길이어
내 오늘 다시 걸어보니
나는 언제나 너를 밟고 다녔구나

오랜 탄부들의 웅이진 손에서
신년 축배잔도 받아마시며
내 삶의 정이 깊이깊이 뿌리내린곳
나의 자서전에 긍지높이 씌여지는
《탄부출신》 그 영예도
어머니가 아닌 네가 주지 않았더라

오, 막장길 막장길
너는 조국에
빛과 열만을 주는 생명선이 아니구나
너는 성실한 로동으로 인간을 키워
조국앞에 기쁘게 내세우는 계급의 전조선 !

얼마나 많고많은 청년탄부들이
오늘도 이 막장길에 반들려
혁명의 기둥으로 자라나고있느냐
끝없이 번영하는 시대와 함께
끝없이 성장하는 조국과 함께...

삼각형의 법칙

김동욱

그날은 류다른 날이었다. 그날 강선제강소에서 제강시간을 한시간씩 앞당겼다. 그리고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나라의 한 달리기선수가 신기록을 세웠다.

그날밤 탄광연합기업소 김학철지배인은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가만, 이제 그 선수가 종전기록보다 얼마를 앞당겼다고 했던가?》

상반신을 세우고앉아 라디오를 듣고있던 지배인이 범수염같이 앞으로 쪽쪽 내뿜친 허연 눈썹을 쫓기거리며 물었다.

《0. 1초입니다. 강선에선 한시간이구...》

《음, 대단하군 !》

학철은 탄성을 질렀다. 운전사는 석탄의 그 무엇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지배인이 저다지도 놀라는가싶어 잠시 쳐다보았으나 그는 허우대 큰 몸을 안락의자에 깊숙이 제치며 눈내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다음해 생산문제를 토의하는 정무원회의에 올라갔다가 배로 높아진 어려운 과업을 받고 밤늦게 탄광으로 내려가는길이었다. 새로 제기된 증산과제는 기업소 한해생산량과 거의 맞먹는것으로서 제강시간이나 달리기선수의 시간에 비길진 아니지만 시간으로 치면 웅근 1년을 앞당겨야 했다.

학철은 그 문제를 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행정간부회의를 열수 있게 미리 전화까지 해놓았으나 아직은 이렇다할 방도도 없고 그것을 모색할 시간도없었다.

년말까지는 이제 한달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밤이 새고 몇시간이 지나면 행정간부회의가 열린다. 그 한달전에 행정간부회의는 배로 높아진 계획량을 완성하기 위한 결정을 채택해야 하며 그 몇시간전에 지배인은 자기대로의 결심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학철은 자기의 결심없이 어떤 회의나 사업도 포치하는 법이 없었다.

하지만 일단 당위원회에서 토론하고 결심하면 무섭게 내밀었고 성공했다.

그래서 우에서 무슨 과업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먼저 그의 결심을 물었다. 지배인이 결심하지 못했다고 하면 모두 어깨들이 처졌고 그만 결심했다고하면 장벽이 무너져도 내밀었다. 그때문에 그는 자기대로 또 결심하기 힘들어 했다.

그는 지금도 몇번째 옷주머니에서 휴대용 전자주산을 끄집어냈다.

(정말 불가능하거나 아닐까? ...)

《1년을 앞당기다니 시간이 뭐 옛가락인가?》

행정간부회의를 포치하기에 앞서 장거리전화로 만났을 때 친구인 연합기업소아래 태석탄광지배인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처럼 채탄장 하나에 갱도를 두개씩 뚫지 말고 하나씩 뚫자고 하자 자기한테 장기진봉창으로 막장에 밀어넣고싶으냐고 하면서 껄껄 웃었다.

원래 이 탄광에서는 하나의 채탄장을 만들기 위해 탄층속에 두팔을 한껏 내밀었다가 깎지라도 끼고 당기듯이 재료갱과 운반갱도를 나란히 뚫고 들어갔다가 되돌아나오며 탄을 캐는데 되돌아나올때 무지개형의 짐(지압)다리가 량쪽 갱도를 누르면서 무너뜨렸다, 그옆에 재료갱과 운반갱을 뚫고 그렇게 또 물어버렸다.

학철은 지금 물어버리던 두 갱도중에서 운반갱도 하나를 되살려 다음 채탄장의 재료갱으로 쓰면서 굴진에서 반나마 시간을 앞당기자는것이였으나 그 역시 아직은 결심할수가 없어 오늘 과업을 받으며 로력과 자재도 제기했었다.

그런데 이날 회의를 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걸 다 주시겠다고 하시면서도 웬일인지 그를 잠시 바라보시였다. 그 시선이 《그래, 그건 꼭 더 있어야겠소?》 하고 물으시는듯싶어 그는 지금도 잔등에서 밤이 흘러내리는것 같았다.

당에서는 지금 북부지구공업과 함께 서부지구 공업을 보강하여 나라의 경제를 한단계 더 올려 세우면서 새로운 《80년대속도》를 창조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도처에서 것처럼 방대한 건설을 벌리자면 로력과 자재는 또 얼마나 필요할것인가?

그는 순간이나마 당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다는 생각에 이제라도 그것을 받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그 모두를 가지고도 1년을 앞당길수 없는 형편에서 타산없는 대답을 드릴수도 없었다.

자기의 결심없이 한초한초 다가오는 회의시간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초조했다.

그에게는 차창에 내력있는 눈송이를 밀며 분주히 오가는 유리담개마져 시계추처럼 보였다.

(어쨌든 기사장에게 돌담도 더 쌓고 참모성원들과도 의논해보라고 했으니까 회의전에 시험갱도부터 가보자.)

시험갱도란 태석탄광제대군인들이 집다리가 내려눌러도 견딜수 있게 운반갱도옆에 돌담을 쌓고

있는것을 두고 하는 소린데 어떤 기술적담보도 없이그저 한번 해보는 식으로 벌린 자체공사로 아직은 학철이도 크게 기대하는건 아니었으나 지금 래석지배인이 뒤로 나앉는 조건에서 그의 마음은 자연히 제대군인들에게로 갔다.

학철은 초조한 속에서도 시험경도생각을 하자 잠시 숨이 나가는것 같았다.

갑자기 차가 뺏- 지치며 서는바람에 그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웬 사나이가 차앞에서 뛰어 가다가 팔을 쳐들며 길을 뚝 막아나섰던것이다.

《뭘요 ?》

바짝 긴장해서 차를 몰던 운전사가 문을 열며 소리쳤다. 그바람에 사나이가 약간 당황한듯 인사를 굽석했다.

《안됐습니다. 화물차인줄 알구 그만...》

《화물차 ? ! ...》

별 실없는 소리 다 듣는다는듯 운전사가 문을 뽕 닫아붙였다. 그러자 지배인이 반대쪽 문을 열고나섰다.

《동무! 무슨 일인지 몹시 바쁜것 같은데 어서 타오.》

뛰던 사람이 주뿔주뿔 다가왔다. 온몸에 눈을 들썩 꼭 어느 설맞이모임에 나오는 《추위할아버지》같이 생겼는데 퍼그나 멀리 달린듯 씩씩거릴 때마다 코구멍아래에서 허연 입김이 타래져나왔다.

《아니, 이거 지배인동지 아니십니까? ! ...》 저쪽에서 갑자기 반색했다.

《그래, 동문 누구요?》

약간 의아해진 지배인이 물었으나 사나이는 아랑곳없이 한뒤번 꺾충충 울리뛰며 눈을 털었다.

그러자 《추위할아버지》는 제대군인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흥안의 청년이 되었다. 꺾충한 키, 술진 눈썹밑에서 불같이 이글거리는 눈...청년은 이래도 모르겠느냐는듯 별쭉 웃었다. 그바람에 하얀 덧이발이 반짝하고 드러났다.

《태석탄광에서 채탄합니다. 소대장 조영남 !》

제대군인은 몸을 꺾끗이 펴며 거수경례를 딱 불렀다.

《조영남?...음, 알만해, 그런데 모자두 없이 빈머리에 무슨 거수경례가.》

학철은 몹시 반가웠으나 그저 조구장같은 손으로 잔등을 한번 칠씩 때렸다. 시험경도에서 돌담을 쌓고있던 제대군인소대장이었다.

《그래 무슨 일로 이렇게 뛰어다니나?》

차가 떠나자 그와 함께 뒤자리에 옮겨앉은 지배인이 물었다.

《청진에 좀 아는 녀동무가 있어서...》

영남은 말하다 말고 얼굴을 붉혔다.

《그럼 색시감을 볼려구 휴가를 받았군.》

《년말에 휴가는 무슨 휴갑니까? 그저 하루 쉬길래 전화를 걸구 갔다오는데.》

학철은 입이 딱 벌어졌다. 청진이면 여기서 급행렬차로 갔다 선자리에서 돌아서채도 이들이 걸린다. 그런데 이틀길을 하루새 갔다온다는것이다.

《통 무슨 소린지...》

학철은 미덥지 않다는듯 중얼중얼했다.

《지배인동지가 그런걸 믿지 못하니까 탄을 못캐지요.》

《뭘라구? ! ...》

학철은 버럭 고함을 질렀다. 그바람에 운전사가 깜짝 놀라 영남을 돌아다보았다. 이 사람이 지배인한테 무슨 말버릇인가? 그런데 더 놀라운건 지배인이 꺾꺾 웃고있는것이였다. 웃음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창유리가 다 쨍쨍 울리는듯싶었다.

《아니, 믿어 !》 학철은 웃다말고 또한번 되뇌었다. 《이야말로 신기록이군! 지배인처럼 전화를 걸고 떠난단말이지...》 학철은 웬일인지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는 제대군인의 뜻하지 않은 항변에서 임의의 물체에 가해진 초속도처럼 그 어떤 거대한 정신적힘을 얻은듯싶었다.

그에게도 애인을 만나기 위해 뛰어다니던 청춘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엔 생각보다 행동이 늘 앞섰고 무서운것이 없었다.

하지만 군복을 벗고 장가를 가고 뭔가 책임을 지게 되면서부터 무슨 일에서나 생각이 앞서고 머뭇거리게 되었다.

군대에서 제대되어 대학을 나온 그는 농촌에 나가 협동조합을 묶는 일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는 제가 협동화에 대해 선전하러 다니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다 공업화를 한다음에 협동화를 하는데 공업화단계도 거치지 않고 정말 협동화할수 있을가 하고 생각했었다. 그런 학철이기에 협동화의 승리는 어느 누구에게보다 큰 충격을 주었고 그로 하여금 당이 하라고 하는 일은 뭐나 다 된다는 하나의 당적신념을 가지게 하였다. 바로 그 신념이 거의 1년분에 가까운 증산과제도 서슴없이 받아안게 하였다. 된다! 문제는 어떻게 방도를 찾고 어떻게 결심하는가에 달려있다.

《뭘 별수 있습니까? 저쪽에서 마지막 결판을 짓자는 소식이 왔는데.》

휴식전날 아침교대가 끝나기 바쁘게 뛰기 시작했다. 평성까진 자동차를 타구 거기서 청진행 급행렬차를 탔습니다. ...》

영남은 자기대로 지배인에게 무례했다고 생각했던지 처녀를 만나러 가던 이야기를 주섬주섬 늘어놓기 시작했다. 운전사는 그것이 하도 놀라와 방금전일은 다 잊고 황홀한 눈길로 뒤돌아보았다.

그러나 학철은 그의 이야기에는 아랑곳없이 자기대로 돌담이야기를 꺼냈다. 영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돌담이 짐을 받아 이미 무너졌던것이다.

그는 지배인이 것처럼 의의를 부여하고있는 일이 자기들때문에 글러졌다는 생각에 어쩐지 미안스럽고 겁이 났다. 그는 지배인이 돌담이야기를 또 꺼낼가보아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 평성에서 급행열차를 탔는데...》

《또 그 소린가?》

학철은 시물시물 웃으며 영남을 바라보았다.

영남은 천리길을 달려 애인을 만나던 기적같은 이야기를 마쳐 하지 못하는것이 좀 아쉬웠으나 그만두었다. 그는 웬일인지 저도 모르게 긴장되면서 불편이 푸들푸들 뒤흔었다.

지배인이 돌담이야기를 또 꺼냈다. 그러자 어딘가 두렵고 미안스럽던 생각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불쾌한 생각이 머리를 쳐들었다. 남 다 안된다는걸 뿌리치고 아득바득 쌓을 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다가 정각 돌담이 무너지니 저마다 돌담돌담하고나선다는 생각이 든것이다.

더구나 당에서 지금 새해 증산계획에 깊은 관심을 갖고있으며 그 문제해결에서 자기들의 시험경도가 기본열쇠라는것을 알았을 때 그는 미칠듯이 피로고 지금껏 그것을 외면하던 일군들의 처사가 분해 참을수 없었다.

《아니 되살리지 못합니다 ! 누구한테도 필요치 않은 운반경을 되살릴수 있습니까? !》

이번엔 지배인이 어리둥절해 바라보았다.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그럼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우리 태석탄광지배인동지한테 ?...우리 지배인동지한테 필요한건 파업 받을 때마다 잊지 않고 제기하는 요구조건이지요.

우리 탄광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입니다. 당에서 집중하지요. 그런다고 벽돌 한장 주면 한장 쌓고 두장 주면 두장 올려놓고 안주면 서있는 그런 벽돌공처럼 일해서야 시간을 앞당길수 있습니까?

건설장에서는 이미 하나의 벽돌대신 하나의 벽체를 들어올립니다. 미끄럼식으로 하나의 고층집을 통채 올려세우지요, 당에서는 진펄길을 건느는 정신으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라는데 머리는 쓰지 않구 벽돌공처럼 뒹하라고 하기 바쁘게 손부터 내밀지 않습니까?》

학철은 그 말이 태석지배인이 아니라 저한테 하는 소리처럼 들려 슬그머니 화가 났다.

《그래 동문 일군들이 우에 올라가 한번씩 제기할 때 얼마나 힘든가 하는건 생각해본 일이 있소? ...》

《물론 힘들겁니다. 그러나 기술혁신은 보다 어렵지요. 책임을 지니까. 탄광경우 책임은 더 무겁습니다. 새로 만든 탄차 련결못 하나가 부러져 때로 하나의 갱 생산이 중지될수도 있는겁니다. 하물며 지금껏 해보지 않던 운반경을 되살려쓰자고 나설수 있습니까? 운반경을 한번 쓰고 버린다고 누가 추궁하는것도 아닌데...》

영남은 말하다 말고 쿨렁쿨렁 기침을 길었다.

학철은 아무 말없이 앉아있었다. 이야기가 좀 뜻밖이었다. 그는 운반경도를 되살리는 문제때문에 태석지배인일이 좀 불쾌했으나 이 시각 웬일인지 그를 대신해 변명하고싶은 이상한 충동을 느꼈다.

태석지배인은 그가 누구보다 믿는 사람이였다.

물론 시간에 포로되어 월말이 되면 늘 하루가 모자란다고 하고 장기에 지고도 시간이 없어 졌다고하는 사람이라 오늘도 신통한 대답은 듣지 못했다.

하지만 저희 지배인을 두고 그렇게까지 말할수가 있는가?

《그래 일군들이 책임지길 두려워하기때문에 할수 없다는거요?》 학철은 격해지는 마음을 애써누르며 물었다. 그러나 영남은 여전히 씩씩거릴뿐 대답하지 않았다.

《헌데 일은 동무가 생각하는것보다 더 어렵소. 일군들만 아니라 기술자들도 더런 반대하니까.. 그런다구 그만두겠소? 해야지 ! 그래 래일 회의에서 그 돌담두 내놓자는거요?》

《지배인동지 ! ...돌담은 무너졌습니다,》 지금껏 씩씩거리던 영남이가 더 참지 못하고 실토했다.

《무너지다니 ? ... 언제 ?...》

어제 무너졌다고 했다,

《흥, 그래서 그렇게 열을 올리셨군.》

학철은 비로소 돌담이 무너져 지금껏 미루던 애인도 만나러 떠났으며 태석지배인에 대한 노여움도 커졌다는것을 알았다.

《그래 다음은 어떻게 됐소?》 .

《뭘 어떻게 될게 있습니까? 무너지니 쥘버렸지요. 》

무너지니 쥘버렸다. 영남은 그게 뭘 대수냐는듯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그 맥빠진 대답을 듣는 학철의 가슴에서는 또하나의 돌담이 무너져내리는것 같았다. 그것은 그가 믿고있던 마지막 지지점이었다. 이미 기사장에게 지시하여 청년갱과 수직갱에 하나씩 돌담을 더 쌓게는 했으나 영남이네것이 무너지는데 그것이라고 별다르겠는가... 마지막 지지점마저 잃어버린 그는 자기자신까지 마음이 흔들리는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안됩니다 !》

《안되면 증산과제는 어찌겠소?

수령님께서 주신 파업말이요? ! ...》

《거야 해야지요 ! 그런데 뭘 방법이 그것만입니까? 탄알이 떨어지고 수류탄이 떨어지면 참호에선 총창을 꽂지 않습니까? ...돌격합시다 !》

《돌격 ? ...》

학철은 다시 그를 쳐다보았다. 방금전의 그 맥빠진 영남이가 아니라 병사가 하는 대답이였다.

그것은 탄부로서의 가장 어려운 길이였다. 그대신 지배인으로서 책임이 없는 안전한 길이였다. 그는 련합기업소가 받은 계획수자를 아래 탄

광들의 비중에 따라 나누어주고 내리먹이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갱과 증대로 생산수자가 내려가고 책임이 나누어진다.

그리고 수행하지 못할 땐 우에서 생산수자가 내려가듯이 그렇게 책임이 올라온다. 갱에서는 어느 증대가 못해서 못했다고 하고 탄광은 어느 갱이,련합은 어느 탄광이 못했다는 식으로 결국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게 된다.

학철이라고 일부 사람들이 해오는 그 방법을 생각 안할순 없다. 사실은 그 때문에 로력과 자체도 제기한것이다.

오늘 운반갱문제를 꺼내자 태석지배인도 권했다

《군대에서도 사령관이 전호까진 파지 않아. 공연히 돌담이요 뭐요 하면서 고생하지 말구 자체나 받아가지구 내려오게.》

집에 가면 안해도 권한다. 이젠 이사집도 그만 우리에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는 생산수자나 나누어주고 《돌격》시키는 그런 길을 택할순 없었다. 그렇게는 1년이라는 시간을 앞당길수 없었고 그렇게는 책임질수 없었다.

영남은 일군들이 책임이 두려워 나서지 않는다고 했다. 물론 책임이 두렵지 않을순 없다. 하지만 그에게는 책임지는것도 두렵지만 책임질수 없는것이 더 두려웠다.

학철은 누구보다 탄부들을 잘 안다. 성실하고 뜨겁고 의지가 강한, 남달리 바라는것도 없이 평생친길 지하막장에서 일하면서도 수령님과 당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당에서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자고 하는지 그것이 그들의 매 순간 생각이고 평생념원이다.

이제 배로 높아진 계획을 받아안고 1년을 앞당겨 당의 뜻을 받들게 된다고 하면 순결한 그 가슴들이 밤잠을 잊고 뛰어다닐것이다.

그에게서 탄부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지배인이 결심하는대로만 하면 당에 기쁨을 드릴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제자들이고 자식들이었다. 그런데 자기가 결심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밤잠을 자지 않고 때로 목숨까지 내대며 뛰어다니던 탄부들이 당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 깨끗한 가슴들에 웅치게 될 아픔을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책임질수 있단말인가?... 그는 이번에 당에서 자기네 탄광을 얼마나 중시하는가 하는것도 알게 되었다.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을 앞당기지 못해 당의 뜻을 받들지 못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또 무엇으로 지겠는가? 그 때문에 그는 지배인으로서 어차피 뭔가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길을 택한것이고 그런 자기를 도와 《돌격선》에 나서려는 영남이가 고마운것이였다.

하지만 그런 무모한 《돌격》으로 희생성은 보

여줄지 몰라도 시간은 앞당길수 없었다.

《그래 〈돌격〉 한다는데 혼자서 이제 청진에 가 있는 애인을 또 만나고 오라면 잤다올수 있겠소?》

잠시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지배인이 중떠보듯 물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대답이 없다. 방금전까지 돌격하겠하던 《병사》가 정신없이 자고있었다.

학철은 허! 하고 혀를 찼다.

그는 천리길을 다녀온다는 사람을 붙잡고 지금껏 체소리만 하고있었다는 생각이 들자 전에없이 초조해하는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되었다.

마지막 결판을 짓자고 했다는데 정말 무슨 일이 생긴게나 아닌지...

《지배인동지두 이젠 눈 좀 붙이십시오. 며칠째 회의할 준비를 하시느라구 꼬박 밝혔는데...》

지금껏 말없이 길에만 주의하던 운전사가 권했다. 부모없이 자라 그러는지 눈물이 흐르고 지배인의 개체일에 늘 마음을 써서 말을 듣는 사람이였다.

《또 사사일인가? ...》

《그런것까지 탓하시면 전 지배인동지 차를 그만두겠습니다.》

지배인이 겁이 난듯 눈을 감았다.

그러나 이어 눈을 뜨고 또 물었다.

《아까 무슨 결판을 짓는다고 했는데 혹시 처녀가 그만두자구 하는건 아닐까? ...》

《걱정 마십시오. 그만두자구 하면 저렇게 코를 골며 잘수 있겠습니까?》

《하긴 그래... 나무칼로 코를 베가도 모르겠군. 그래두 천리길을 하루새 잤다오자구 할 땐 무슨 곡절이 있겠는데 ...》

지배인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듯 중얼중얼했다. ...

차가 얼마나 달렸는지 속도계옆에서 시침이 새벽을 가리키고있었다. 낮익은 표말들이 픽픽 지나가고 탄광마을의 정다운 불빛이 하나둘씩 다가왔다. 집에 대한 생각이 두사람의 가슴을 따듯이 어루만지고 지나갔다. 안해와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 ...

《이제 가시면 댁에서 아침을 짓겠습니다.》

운전사가 답답한듯 또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차를 그만두겠다는 소리가 나올가봐 그러는지 지배인도 모르는척했다.

《그래두 한 서너시간 잘수 있을거요.》

지배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그날밤 지배인에게는 그 세시간마저 차례지지 않았다.

그날밤 탄광에 도착하여 당위원회에 잠깐 들렀던 그는 인차 태석탄광으로 내려갔다. 무너진 돌담을 봐야겠다고 생각한것이다.

아직 청년갱과 수직갱에 쌓고있는 돌담이 있었으나 제대군인들이 쌓았던것이 왜 무너지는지 그

리고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빨리 알아야만 했다.

그는 시간이 급했다. 돌담이 무너진다음 하루 쉬었다고 하지만 머리부에 세운 동발을 회수하면 천정이 내려앉아 돌담을 볼수 없었던것이다.

지령대에서 전화를 걸고 재료를 거의 뛰다싶이 걸어가던 학철은 갑자기 영남이가 인도갱에서 쭈르르 미끄러져나오는바람에 흠칫하고 놀랐다.

《지배인동지 ! 명령대로 동발회수를 중지했습니다. 소대장 조영남 !》

《아니, 그런데 동무가 어떻게? ...》

학철은 어제밤 운전사에게 영남을 함속까지 태워다주고 하루 푹 쉬우라고 하였는데 흥길동이처럼 여기에 또 불쑥 나타났던것이다.

알고보니 그는 어제 학철이에게서 돌담이야기를 듣고 이제라도 그것을 다시 쌓아야겠다는 생각에 그길로 화물차를 얻어타고 막장으로 내려왔다고 했다.

《아니 그럼 무너진 돌담을 고쳐쌓는단말이요? !》

듣고보니 기가 막혔다. 학철은 지금 돌담이 왜 무너지며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상태를 보려고 동발도 회수하지 못하게 하고 뛰어오는것인데 그것을 차곡차곡 다시 쌓는다는것이다.

《돌담을 다시 쌓지 말았어야 할걸 그러지 않았습니까?》

뭔가 자기가 일을 또 망쳐놓았다는 생각이 들던지 영남이가 약간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다.

일은 좀더 어려워졌다. 그러나 학철에게는 그런 영남이를 보는것이 더 기뻛고 자랑스러웠다.

눈내리는 밤길에 천리길을 다녀오고서도 그길로 다시 막장으로 뛰어온 탄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서야 그 빗인들 못하랴 !

학철은 말없이 그의 잔등을 철썩 때렸다.

《왜 돌담이야 또 쌓아야지, 문젠 이 지배인이 풍기적거리며 늦는게야.》

학철은 채탄장에 들어서기 바쁘게 강력콘베아를 가로타고 머리부쪽으로 뒤뚱뒤뚱 내려갔다.

영남은 방금전에 지배인이 풍기적거린다면 말이 떠올라 등뒤에서 벌쭉 웃었다.

하지만 지배인의 눈길은 이미 막장을 더듬고 무너진 돌담을 살폈다. 돌담은 무너졌던걸 고쳐 쌓은데다 버럭까지 덮쳐워 종전상태를 가늠해볼수 없었다.

《그래 얼마쯤 내려앉았던가?》

쭈그리고 앉아 잠시 난감한 얼굴로 바라보던 지배인이 뒤따라온 영남에게 물었다.

《그저 약간 내려앉았습니다.》

영남은 돌담이 무너진것때문에 지배인이 근심하는줄 아는지라 《약간》 이라는 말을 얼른 스쳤다. 그런데 어느새 들었는지 학철이가 물었다.

《약간 ? -》

《예.》

학철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영남은 안절부절 못했다. 무슨 일인지 딱히 알수 없어도 지배인이 몹시 급해하는이상 빨리 도와야겠는데 뭘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지배인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내가 지금 이 무너진 돌담을 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소?》

《30분이면 됩니다 !》

《30분? ...아니 늦소, 25분동안에 하오 !》

학철은 영남이가 이미 시간을 앞당겼으며 일이 몹시 어렵다는것을 알았으나 시간을 또 짤랐다. 그러나 영남은 과업이 좀더 어려워지는게 기쁘기도 한듯 군대에서처럼 힘있게 대답했다.

《알았습니다 !》

학철은 그것이 대견스러워 그의 옆구리를 슬쩍 찔렀다. 그러자 영남이가 얼른 물었다.

《그럼 이젠 결심이 됐습니까? ...》

《결심 ? ...동무네가 저걸 25분동안에 파내면 나도 결심이 서오.》

학철은 잠시 정어린 눈길로 영남을 바라보다가 《탄부란게 전부 능청꾸러기들이야.》 하고 중얼중얼하며 운반갱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또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였다. 운반갱도가 생각던것보다 비교적 덜 짜부라져있었던것이다. 그것은 우에서부터 내려누르는 다리짐을 운반갱도보다 돌담이 더 받았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그러나 돌담은 약간 무너졌다고 한다.

잠시 머리를 기웃거리고 섰던 학철은 짜부라든 갱도웃쪽에서 오소리굴같이 좁아진 구멍을 발견하자 불을 들이비쳤다. 동굴처럼 안이 캄캄했다.

(좀 들어가볼가?)

그는 굴안으로 옷몸을 들어밀었다. 그러나 뚱뚱한 몸집때문에 좀처럼 들어갈수 없었다.

《지배인동지 ! 이젠 몇분동안에 파내랍니까?》 학철을 뒤쫓아 운반갱으로 내려왔던 영남이가 물었다.

《여기 ?...여긴 동무네가 파지 않아도 돼, 팍삽만 하나 가져오오.》

학철은 옷등을 벗어 성목가치에 걸며 혼자소리처럼 몸집타발을 했다.

《그렇지만 지배인동지가 어떻게...》

《지배인한테 삽질두 시켜야 몸두 까구 막장에 기계 끌어들일 생각두 해, 자, 팍삽값!》

저으기 유쾌해진듯 그는 영남에게 담배갑을 내밀고 버럭무지에 펄썩 주저앉았다. 삽을 가져오는동안 한대 태우려는것이였다.

《저 지배인동지 ! 그던데 좀 이상한것이 있습니다. ...》

갑자기 삽가지러 가던 영남이가 되돌아오며 조용히 말했다.

《암만 약하다구해두 돌담이 나무동발보단 든든할것 같은데 어쩐지 돌담이 더 많이 무너진것 같습니다. ...》

《돌담이 ? ! …》

학철이가 그의 손을 덥석 그러쥐며 물었다.

《그게 사실이요?》

《예.》

《그런데 아깐 약간 무너졌다구 하지 않았소? !》

《거야 지배인동지가 너무 걱정하시니까…》

《됐소 ! 내가 걱정하는건 동무요. 우리 나라에 선 쉬지 않는것도 법에 걸린다는걸 모르오? 휴식의 권리가 있으니까. 자 들어가 쉬오. 이젠 됐소!》

학철은 몹시 흥분하면서 그의 잔등을 떠밀었다.

《우리 나라에서야 로동의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

딱히는 몰라도 이제야 비로소 지배인을 돕게 됐다는것때문에 영남은 자기대로 흥분하여 탄창이라도 떠들어올릴 기세다.

《그럼 종소, 특별임무를 하나 주겠소. 이젠 경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돌담을 벼락이 쳐도 무너지지 않게 쌓겠는가 하는 방도를 찾아보오. 기능공들과 함께 기술자들의 도움도 받소. 시간은 세시간, 결과는 나한테 직접 보고하오 ! 》

《알았습니다 !》

영남은 나는듯이 채탄장쪽으로 뛰어갔다.

학철은 기뻐다. 그러나 발밑에 떨어진 태석지배인의 담배꽂초를 보자 그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막장에 드린 동발이나 여기저기 던져진 담배꽂초를 보고서도 사람들을 가려보았는데 지금 대밀까지 빨고 잘근잘근 씹다가 버린 태석지배인의 담배꽂초를 본것이다.

꽂초는 주변 여기저기에 널려있었다. 생활의 갈래길에 오래도록 앉아있는 태석지배인의 모습을 보는것같아 그의 마음은 피로왔다.

그는 웬일인지 태석지배인이 자기보다 여기로 먼저 왔다갔으며 그 역시 가능성을 찾았다는것을 알았다. 하다면 왜 침묵을 지키는가. 두고보자는 건가?...돌담이 결코 어떤 기술문제로만 무너진것이 아니었다. 그는 회의를 앞두고 가장 가까우면서도 두렵게 생각되는 태석지배인과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날밤 학철이가 막장에서 나왔을 때는 벌써 동녘하늘이 푸름푸름 밝아오고있었다.

잠시 갱지령대에 들렀던 지배인이 나오자 운전사가 얼른 차를 가져다냈다.

《가시오 ! 올라가다 태석지배인한테 들려 장거나 환관 듣가? 자다 일어나 미쳐 정신두 차리지 못할 때.》

학철은 차에 오르며 전에없이 우스개소리까지 했다. 운전사는 드디어 그의 결심이 섰다는것을 알았다.

《청사에 갈 때까지 눈 좀 붙이겠소.》

학철은 운전사에게 량해나 구하듯이 말하고 눈을 감았다. 그러지않아 밤길을 갈 때 자기가 자

면 운전사까지 자고싶어한다면서 시간이 있어도 눈을 붙이지 않는 지배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자겠다고 하기 바쁘게 코를 골았다. 며칠동안에 밀린 잠보다 그 며칠동안 그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있던 짐을 잠시나마 벗어놓은것이였다.

지배인이 잠든것을 누구보다 기뻐한것은 운전사였다.

이제 차가 청사까지 가는 시간이 이 며칠어간 그에게 차례진 휴식의 전부였다. 벌써 아침시간이 가까와오는만큼 이제 지배인이 차에서 내리기 바쁘게 이 사람 저 사람이 찾을것이며 지배인 자신도 이 사람 저 사람 부를것이었다.

운전사에게는 차가 달리는 시간이 너무도 짧은것이 안타까웠다. 그는 속도계바늘을 내려다보며 슬며시 속도를 늦췄다.

그러자 차는 마치 안개 낀 하늘로 움쭉 떠오르듯 눈내리는 길우로 조용히 미끄러져나갔다. 새벽하늘에서는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고 가까운 강구들에서 야경도는 소리가 꿈속에서처럼 어슴프레 들렸다. 차가 다가갈 때마다 가로수에 앉았던 참새들이 우르르 날아오르며 난간개를 보양게 날렸다....

얼마를 달렸는지 차가 갑자기 주춤 하고 멈춰서는 느낌에 학철은 눈을 떴다.

《음, 잘 잤군.》

그는 만족해하였다. 그러나 청사앞에 있는 학교운동장에서 애들이 뿔차는것을 보자 얼른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아니, 차가 왜 이리 늦소?》

지배인이 불만스러운듯 물었다. 《이거야 걷는 것보다두 못하지 않소? ! …》

그는 회의시작전에 태석지배인을 만나보려던것이었는데 벌써 회의시간이 다 됐던것이다.

《지배인동지가 며칠만에 처음 쉬길래 차를 좀 천천히 몰았습니다.》

운전사는 차를 타고 좀 잔것을 가지고 뭘 저다지 그러는가싶어 약간 엇서는투로 대답하였다. 학철은 결국 자기가 자는새에 태석지배인과 의논하여 회의에 보충적으로 제기하려던 문제가 틀어졌다는것을 알게 되었다.그때문에 30분 걸려야 파겠다는 돌담도 25분에 파내라고 시간도 짜보면서 부랴부랴 청사로 온것이 아닌가?

《동문 그래 이 지배인이 그렇게 누워 잠이나 자려고 탄부들한테서 시간을 팔랐다고 생각하오?...전쟁에선 지휘관이 늦춘 1~2초때문에 적의 선제타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소. 때로 사람들의 생사와 관계된다고 생각할 때 탄광이 전선과 다를게 뭐요? 탄광은 단순한 생산기업소가 아니요 !》

몹시 격해진 학철은 운전사에게서 돌아섰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로동파에 가서 해임장을 받아가요.》

지배인이 정색해서 말하는바람에 운전사도 가

만있지 않았다.

《지배인동지 ! 전 그보다 더한 책벌이라도 받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갯에서 떠날 때 차가 달리는 시간이라든 지배인동지를 좀 쉬게 해달라구 탄부들이 부탁했습니다. 그래야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한다구...》

운전사는 웬일인지 말을 채 못하고 머리를 돌렸다.

《탄부들이 ? ! ...》

학철이도 말을 못했다. 느닷없이 영남의 벌쪽 웃는 모습이 머리에 떠올랐다.

《젠장, 그럴줄 알았더면 그녀석이나 태우고올걸.》

회의는 예정대로 아침 9시 지배인실에서 열렸다. 산하 탄광들에서 지배인과 기사장들이 참가하였는데 회의는 처음부터 긴장했다. 회의포치로부터 문제토의에 이르기까지 전에없이 새롭고 심중했기때문에 너무나없이 나서기를 주저했다.

전갈오면 대체로 지배인이 탄광으로 돌아와서 교시전달을 하고 회의준비도 한주일나마 한다. 그런데 이번엔 래일쯤 지배인이 돌아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전날에 벌써 수령님의 교시사상이 내려오고 행정간부회의를 준비할데 대한 지배인의 과업이 떨어졌다. 그것도 하루동안에, 지금껏 그렇게 회의준비를 해보지 못한 연합기사장은 지배인이 뭔가 소홀히 한다는 생각에 당위원회로 찾아가었다. 그런데 책임비서는 이미 교시사상을 가지고 막장으로 내려가고 없었다. 기사장은 부랴부랴 사무실로 뛰어가 수화기를 들었다. 그렇게 회의가 포치되고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느때 같으면 끝났을번한 회의가 오늘은 시작도 못하고있었다.

계획수자가 전에없이 많은데다가 운반갱을 되살려쓰는 문제가 무너진 돌담때문에 곤란해졌던 것이다.

《나도 돌담만 쌓아서 갯도를 유지할수 있다면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눈앞에서 돌담이 무너지는걸 보고서야 어떻게 하자구 하겠습니까?》

운반갱을 되살려쓰기로 거의나 락착돼가던 회의가 뒤구석에서 어느 한 지배인이 무너진 돌담을 들고나서는바람에 다시 장마당처럼 뒤죽박죽이 되고말았다.

여기저기서 난점들을 들고나섰다. 그런데 한창 옥신각신하는판에 청년갱에서 새로 쌓았던 돌담이 또 무너졌다든 전화가 왔다.

회의장이 긴장해지면서 사람들의 눈길이 학철에게로 쏠렸다.

그러나 그 모두를 이미 알고있기라도 하듯 학철은 말없이 태연한 얼굴로 앉아있었다. 태석지배인이 앉은 주변에서 무슨 종이장을 돌리며 술렁거렸다.

《뭔지 이리 보내오.》

이 손 저 손을 거치며 종이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종이장에는 삼각형이 그려져있었다.

그의 눈길은 무심결에 태석지배인과 마주쳤다. 그는 지금 세변이 맞물린 피라미드같이 완성되고 가장 안전한 도형으로 학철에게 뭔가 이야기하고있었다. 세변중 어느 한 변이 없어도 도형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파괴되는것이다.

언젠가 태석지배인은 웃으면서 그것을 자기와 학철의 운명선이라고 했었다. 두변은 에돌아가는 자기의것이고 한번은 질러가는 학철의것이라고, 그래서 늘 고생을 사서 한다고 했다.

《그래 또 그길로 가려나?》

그는 지금도 말없이 묻고있었다.

《그래 돌담이 무너져 운반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데 그럼 무슨 방법으로 하겠소?》

학철은 태석지배인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되물었다.

《로력과 자재를 더 받기로 했다는데 그걸 나누어주십시오.》

쑈전에 일어섰던 지배인이 또 일어섰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로력과 자재를 들고나섰다. 기사장이 제기되는 수자들을 받아적었다.

《그래 이것만 보장되면 계획을 할수 있겠소?》

학철은 기사장이 적어준 수자를 잠시 들여다보다가 물었다.

《할수 있습니다 !》

다들 할수 있다고 했다.

《아니, 그렇게는 못하오 ! 》

학철은 말했다.

《우리는 결정적으로 채탄장 하나에 갯도를 하나씩 뚫어 채탄장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얻어내야 하오 !》

《그렇지만 돌담이 무너져 운반갱을 유지할수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또 일어나 돌담이야기를 하다가 태석지배인이 옆에서 바지가랭이를 잡아당기는바람에 펄쩍 주저앉았다.

《아니 난 돌담이 무너지기때문에 운반갱도를 유지할수 있다고 보오.

물론 돌담은 운반갱도를 번쳐주는 역할도 하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유인력이요. 그것은 마치 어떤 거인이 두다리를 짹 벌려 량쪽갯도를 딛고섰다가 돌담이 쌓이자 발을 좁혀 딛듯이 지금껏 운반갱도를 누르며 무너뜨리던 짐(지압)다리를 안쪽으로 옮겨가기 위한 유인력이요.

돌담이 무너졌다든건 운반갱도를 누르던 짐다리가 돌담으로 옮겨졌으며 그열에 있는 운반갱도는 짐을 조금 받게 된다는것을 의미하는거요. 문제는 조금만 짐을 받아도 산산이 흩어지는 돌담이 아니라 당을 받드는 우리의 마음처럼 억년 드눌지 않을 성벽을 쌓는거요.》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제 강선제강소에서 제강시간을 한시간씩 앞당겼소. 그리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의 한 달리기선수가 종전기록보다 0.1초를 앞당겼

소.

그런데 더 놀라운건 우리 탄광 제대군인이요. 그는 어제 하루 쉬는 날을 타서 청진에 있는 애인을 만나고 왔소. 급행열차로 갔다가 선자리에서 돌아서자고 해도 이들이 걸리는델 하루에 갔다왔단말이요. 그래, 그게 믿어지오?...》

사람들이 또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학철은 잠시 장내를 둘러보다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마 누구도 믿지 않을거요. 나도 처음엔 믿지 않았소. 기차가 비행기처럼 날지 못하는이상 어떻게 이틀길을 하루에 갔다 온단말이요. 그러나 이 동무가 장거리전화를 걸구 떠났다는 소리를 듣자 나는 무릎을 탁 쳤소. 옳지, 그거로구나 !

이들은 마치 어느 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이나 하듯이 처녀총각이 동시에 급행열차로 떠나 어느 도중역에서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산보라도 나왔던것처럼 헤어진거요. 그래, 산보라면 이보다 멋진 산보가 어디 있소? 이야말로 탄부맛이 나오!

달리기선수라면 이거야말로 신기록이요 !》

회의장이 떠들썩해지면서 여기저기서 《야 ! ! 》, 《야 ! ! 》 하고 놀랐다. 웃고 떠들고 놀라며 지배인이 갱도를 뚫는 이야기를 시작하자 장내는 다시 조용해졌다.

《우리는 지금 하루길을 떠나 이틀길을 다녀오듯이 지금까지 두개의 갱도를 뚫어 형성하던 채탄장을 하나의 갱도를 뚫고 되살려 형성하려고 하오.

하지만 그 하나의 갱도를 뚫고 되살리는 일은 아주 어렵소. 누구는 동요하구 누구는 반대하구, 탄부들은 탄부들대로 굴을 뚫고 또 보갱해야 되오. 게다가 일꾼들은 책임때문에 나서지 않소. 결국 채탄장 하나에 갱도 하나를 뚫고 되살리는것이 종전처럼 두개의 갱도를 뚫는것보다 당장은 어렵고 힘드오. 마침 여기다 누가 삼각형을 그려놓았는데 종전에 뚫던 두 갱도를 삼각형의 두변이라고 보고 우리가 뚫게 될 갱도 하나를 삼각형의 나머지 한변이라고 할 때 그래 이걸 이때 삼각형의 한변의 길이는 다른 두변의 합보다 작다는 삼각형의 성질로 설명해줄수 있소?》

학철은 말하다말고 책상우에 손가락으로 짹짹 선을 그으며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때로 생활에선 그 한변이 다른 두변의 합보다 크며 어렵다는 생활의 진리로서만 설명할수 있소. 그러나 우린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또한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두변의 합보다 짧은 그 한변을 선택하오. 이것이 투쟁의 진리로 터득한 새로운 <삼각형>의 성질이며 법칙이요 ! 강선의 용해공들도 달리기선수도 그 한변을 택했다고 생각하오.

우리는 전후 공업화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제창 사회주의협동화를 실현했소. 그때문에 투쟁은 매우 어렵고 간고했소. 그대신 우리는 많은 시간을 앞당겼소. 우리 시대 모든 시간이 이렇게 앞당겨지오. 동무들은 이제 술한 로력과 자재를

제기했는데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하오. 하지만 보다 중요한건 불비를 뚫고 강을 건느며 진펄을 헤치던 그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으로 또다시 새로운 <80년대속도>를 창조하여 우리 세대에 앞당길수 있는 모든것을 한시바삐 앞당기려는 당의 뜻을 진심으로 받드는거요.》

학철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며 탄광개발전망도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드디어 자기의 결심을 가지게 된 그는 지시봉을 추켜들었다.

《나의 결심은 이렇소 ! ...나는 기본굴진을 앞세우는 조건에서 10여개의 채탄장을 포괄하는 2개의 대형전망갱도를 뚫어 탈수를 보장하고 박층과 중층에서는 하나의 갱도를 되살리려는 방법으로 보안잔주를 없애면서 전진식과 퇴각식을 배합한 전반적인 구역식 채굴로 넘어가자고 하오.

그리고 후층에서는 장벽콘베아길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채탄장을 대형화하여 석탄생산을 높이면서 굴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또 얻자는거요.

이것이 1년을 앞당길수 있는 유일한 방도요. 실제사업소에서는 도면들을 준비하고 각 탄광기술과들에서는 새 공정들을 세우시오 ! 다요 ! ... 의견들이 있으면 제기하시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운반갱도를 되살리며 구역식 채굴도 더 빨리 넘어가겠는가 하는데 대한 의견만 받겠소.》

학철은 사람들을 빙 둘러보았다. 아직은 의견들이 없었다.

《그럼 먼저 한가지 알려주겠소. 회의에 앞서 당위원회에서 초보적으로 토론이 있었소. 다음해 우리 탄광에 더 오는 로력과 자재는 없소!》 회의장은 갑자기 회성이라도 지나간듯 숨소리하나 들리지않았다. 학철은 전화기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잠시 옷매무시를 바로잡았다. 장대한 키, 앞으로 짹짹 내뿜는 허연 눈썹과 어글어글한 눈...

그의 얼굴에서는 지금 땀이 흐르고있었다. 숨쉬고있고도 경건한 그 무엇이 눈가로 얼핏얼핏 스쳐지나갔다.

모험하는게라도 아닐가? 그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자기를 바라보는 전에없이 빛나는 눈동자들을 보았다. 사람들은 벌써 그가 어떤 비장한 결심을 했다는것을 알았던것이다. 당회의에서 손을 추켜드는 순간 그 결정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듯 그들은 그가 결심하는 순간 그모두를 자기들의 결심으로 받아들였던것이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학철의 눈은 젖고 가슴이 쿵쿵 울렸다. 학철은 만여명 탄부들을 대신하여 자기가 결심할수 있다는것으로 하여 기뻐다.

학철은 송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천천히 그리고 힘있게 말했다.

《정부 교환을 대주시오 !》

췌! -전류가 흐르는 소리, 학철은 무한히 행복하였다.

그것은 1년을 앞당기게 한 그날 있는 가장 크고 류다른 사변이었다.

탄 부

정성환

해빛과 불빛이
시작되는 갯구에서
길은 둘로 갈라졌네

갯을 나온 탄차는 세월을 싣고
하늘과 땅과 함께 달려가네
래일로
모래로
광활한 미래로

우리도 여기서 갈라졌네
불빛아래 착암기와 함께
어제로
그제로
아득한 태고로

하루 이틀
너무도 짧은 나날에
수억년 세월을 거슬러오르기란
험치 않다네
맘모스의 뼈가 묻힌 시대를 거쳐
아름드리 고사리가 화석으로 남은
탄벽을 밀며

옷을 축축히 적시는 물
땀인지 석수인지 우리는 잘 모르네
고생대가 묻어둔 보화를 안아다
조국의 바퀴를 돌려야 하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할 때면

그래서 벼들에게 편지를 써도
석탄물은 이 손자욱 찍어보내고싶다네
그래서 방문을 열 땐 안해에게도
즐겁게 호통치고싶은거라네
오늘은 별로 목이 켄켄하다고

참으로 이 일이 제일 귀해서
우리는 스스로 이 길을 정했네
바깥세상 꽃피우는 불타는 태양
그 태양의 심지와도 같이
한치 또 한치 탄맥에 뿌리를 박네
심장을 바친다는 말보다
걸음으로 조국앞에 맹세를 다지며

탄물은 얼굴
수건으로 땀 문지르고
한교대 《려행길》 마친 걸음
갯구를 나서면
눈이 시려...
저절로 쪼프러지는 눈

그래도 안전모 꼭 눌러쓰면
다 보이네
우리가 걸어난 세월만큼
세상밖이 눈부시게 변한것을

탄부, 그대는...

최종석

그대는-
북방 어디엔가 새로 세운
화력발전소 타빈공의 미소를 그려 보며
아침밥을 서두르는
아낙네들의 새부뚜막에도 생각을 얹으며

그대는-
긴 차굴을 빠져나오는 렬차의 기적소리가
더 기운차기를 바라며
어느 농장의 청년분조원이 연구한다는
신기한 벼종자가
기어이 싹트기를 바라며...

굴길을 내리는 그대의 등뒤로는

갯구의 밝은 해빛이 따라내린다
어머니의 바래움을 받는 아들처럼
조국의 눈빛에 싸여
탄을 부르는 온 나라의 마음에 받들려
그대는 막장에 들어선다

그대의 머리우, 탄층의 하늘에선
지압이 구름인양 소리없이 흐르고
《찬비》가 몇을줄 모른다
천고의 암벽이 앞을 막아나설 때도 있다
지하수 터져
막장을 휩쓸 때도 있다

허나

그대 세운 무쇠동발은 흔들리지 않는다
채탄기 틀어잡은 가슴에선

탄내가 풍기고
안전모 눌러쓴 이마엔 땀발이 선다
그대의 한몸이 불덩어리되어
탄발을 그려안는다

아, 쏟아지는 석탄폭포를 바라보며
탄가루 묻은 얼굴에 어리우는
그대의 속깊은 마음
사랑과 희망
기쁨과 안타까움...
그 모든것이 탄에 있어

그대는 한밤중에도
머리말의 고성기를 끄지 않고
안전모와 이마등을 손가까이 놓아둔다

그대는 잠결에도
당의 목소리 지켜 들으며
꿈결에도 막장을 내밀어 동발을 세운다

아, 한몸 바쳐
조국을 떠밀어가는 탄은
불붙는 그대의 심장
그대 사람들눈에 띄우지 않는곳에 있어도
전류가 흐르는 아슬한 첩탑우에
창조와 건설의 노래 높은 모든 자리에
그 모습은 빛나거니

노래로도 꽃다발로도 못다할 정 안고
천만금에도 담지 못할 사랑 안고
조국은 그대를 품는다
그대의 한결음한결음을 지켜보며
가슴속 가장 깊은곳을 일어준다

병사

류명호

미역파는 처녀들
청고운 노래소리
시원한 해풍에 흘러드는 차창가에
밀려오는 잔파도도 휘뿌려질듯

도래굽이 예도는 렬차
바다우를 달리는 배이런가
바다 풍경에 반한 손님들
차창가를 떠날줄 모르는데

나어린 병사
눈길 못떼네
마주앉은 어머니 품에 안겨
꽃같이 웃고있는 아기에게

병사는 함뿍 취했네

아기의 고운 볼우에
전호속에 밤 밝히며 그려본것이
저렇듯 시름없는 웃음이어서

아기도 웃고
어머니도 웃고
병사도 호방하게 웃었네
총탁못 박힌 손을 내밀어
소중히 아기를 안아도 보며

어머니의 웃음속엔 어려있었네
총창을 비껴안을 땀
바위처럼 억세다도
한송이 들꽃도 품에 안을 땀
곧잘 취해버리는것이 병사라고

가사

그들처럼 빛나게 살자

박원화

수령님께 충성다한 락원의 당원들
우리들의 심장속에 뿌리내렸다
언제나 한마음 수령님 위해
그날의 맹세로 불타게 한다

천만심장 올려준 차식빈모습
대오의 앞장에서 우릴 부른다
순간을 살아도 당을 위하여

한생을 충성으로 이끌어준다

월미도를 피로 지킨 영웅전사들
수령님을 조국이라 높이 불렀다
오늘은 꽃피는 락원우에서
우리는 그 노래를 함께 부른다
이 영화의 주인공들 모범을 따라
수령님과 당을 위해 빛나게 살리라

탈수굴진공의 행복

송영택

사람마다 누구든지 볼려고 부풀어오르는 심정을 터쳐놓지 않고는 못배길 자기들의 행복이 있을것이다.

과학자에게도, 용해공에게도, 농장원들에게도...

그들이 체험한 승화된 감정의 고유한 희열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로는 이해해주고 같이 기뻐해준다.

그러나 탈수굴진공의 행복이 어떤것인가를 절반이라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것이다.

탈수굴진공의 행복- 이것은 곧 남보다 더 가슴 뿌듯하게 느끼는 나의 행복이다. 나는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전될수가 없어서 펜을 들었다.

탈수굴진공은 어떤 사람들인가 ?

검푸른 빛갈의 궁룡식 무쇠동발이 수천수만톤의 암반을 띄 번치고 줄줄이 건너간 무쇠궁전같은 막장, 눈부신 안전등이 전진하는 앞길을 줄기차게 비치는 막장, 허나 여기에는 사철 비가 내린다.

맑고 푸른 봄날 하늘에 구름한점 없을 때도, 신록이 짙어가는 여름날에도, 이삭이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과 눈보라치는 겨울날에도 탈수굴진공이 일하는 막장에는 언제나 비가 (석수)가 내린다.

철동발과 암반, 레루와 광차들이 물에 젖어 번들거린다. 요동치는 전기드릴에 양가슴을 들이대고 굴길을 열어가는 굴진공들의 비웃이며 장화도 비물에 젖어 번들거린다.

도랑물이 팔팔 소리치며 흐르고 천반에서는 비가 떨어진다.

하여 탈수굴진공은 사시장철 아니 한생을 비웃과 장화를 벗을새 없이 지하의 사나운 물을 다스리며 깊은곳에서 더 깊은곳으로 달려가지 않는가!

성실한 땀과 거센 호흡으로 사나이의 힘을 바쳐가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말아나선 탈수굴진공의 행복은 어디에 있던가? 참된 행복 그리고 참다운 삶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참다운 생활은 새롭고 진보적이며 아름다운것을 창조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속에 있다.》

어떤 삶이 아름답고 고상한가.

어느날 한발파를 해제끼고 잠시 휴식하던 때였다.

탈수굴진공이 된지 겨우 몇달밖에 안되는 우리

소대의 막내동으로 불리우는 박동무가 힘에 겨운 모양인지 고개를 젖히고 비떨어지는 천정을 올려다보다가 문득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물었다.

《소대장동지, 우리 소대만 비오는 탈수굴진막장을 말아해야 합니까?》

어딘가 지쳐하는 막내이의 이런 물음을 우리모두는 너무도 잘 이해한다. 그러나 침묵이 한동안 흘렀다.

이윽고 무성소대장이 그의 옆으로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는 제대후 벌써 십년이나 탈수굴진막장에서 모든것을 바쳐온 사람이였다.

《탈수굴진막장은 우리가 말아야 해, 물론 비오지 않는 막장에 종합굴진기를 들이대구 일하는 준비굴진이나 기본굴진도 좋지. 비도 한방울 맞지 않구, 그러나 탈수굴진공보다 더 영예로운 일은 없어.》

말꼬리를 굽었던 소대장은 한참만에야 수령님을 만나뵈옵던 그날의 감격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수령님께서는 오래도록 말씀이 없으시였어.

이윽도록 창밖을 내다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탄부들이 비를 맞게 해서는 안된다고 조용히 뇌이시며 우리들앞에 다가오시였어.

그러시고는 자신께서 이미 탈수굴진을 확고히 앞세울데 대하여 말했다고 하시면서 탄부들이 한방울의 비도 맞지 않게 하는것이 자신의 뜻이라고 하시였소.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 어려운 과업을 탈수굴진공들에게 맡기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시였소.》

소대장의 목소리는 갈리고 눈가에는 물기가 어리였다.

나의 가슴에도 짜릿한 전류가 흘렀다.

《소대장동지, 제가 제가 철없는 생각을 하였읍니다.》

나어린 굴진공이 고개를 푹 수그리며 소대장의 손을 잡았다.

《막내이, 우리가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탈수굴진을 잘하면 탄부들은 한방울의 비도 맞지 않을것이구. 석탄은 많이 캐게 돼.

그러면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누구보다 기뻐하실게야.》 물소리, 물소리...

침묵을 깨뜨리며 소대장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게 참다운 삶이지, 행복은 받아안은것만이 아니야, 남을 위해서 자기를 바칠줄 아는것이 보다는 더 큰 행복이지. 그래서 우리는 비를 맞아도 행복한거야.》

(행복... 행복...) 나는 몇번이나 그 말을 마음속으로 곱씹었다. 탈수굴진공! 그 이름속에 얼마나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는가.

한방울의 비도 탄부들이 맞지 않게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뜻, 탈수굴진공인 나는 그 뜻을 받들어 이 천길 지하의 전초선에서 동지들이 맞아야 할 곳은 비를 이 한몸으로 막아내며 청춘을 바쳐가는것이 아닌가. 그렇다! 행복은 불 밝은 창가에 피어나는 고요한 안식이 아니다.

사나운 폭풍속에 울리는 심장의 노래인것이다.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래일도 우리 탈수굴진공들은 이 행복을 부르며 이러한 삶을 지향하여 오고 또 왔으며 가고 또 가고있다.

행복은 받아안은것보다 바치는것에 더 빛난다. 수령님과 당을 남먼저 생각하는 우리 탈수굴진공들의 가슴속에는 행복에 대한 견해도 이렇듯 차원이 높은것이다. 그래서 사나운 물결을 다스

리는수천척 지하막장에서 희열에 넘쳐 웃으며 탈수굴진공은 암벽을 뚫고가는것이다.나의 행복은 너무도 많이 변하였다.

인민학교때는 10점맞은 성적증을 보고 등을 두드리며 아버지가 칭찬해줄 때 느끼던 행복, 하루일을 끝낸 저녁길에서 나를 기다리던 처녀의 정 어린 속살거림을 들으며 공상에 잠기던 행복, 그것이 나의 행복이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나는 나의 진정한 행복이 어떤것인가를 심장속에 새겨안았다.

행복- 그것은 바치는것이다.

힘과 마음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조국에, 그리고 동지들에게! 비겁한 사람은 행복을 모른다. 거짓말쟁이는 행복의 참뜻을 깨닫지 못한다.하여 탈수굴진공은 언제나 용감하고 솔직하며 각오 높고 절개가 굳어야 한다.

《탈수굴진공! 탈수굴진공!》

나는 이 말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한다. 어찌다 누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도 나는 탈수굴진공이라고 대답한다. 왜냐 하면 나의 가슴에 바다 같은 궁지가 차넘치기에...

《포구마을》

-그 옛날 배사공할아버지에게-

신병강

그 옛날 여기가 포구마을이었다니 ?!
저 갈술 우거진곳이 선창이었다니 ?!
할아버지 용서하십시오
믿지 못하는 마음 자꾸 또 되물어본다고

정말 이 주변엔 포도 많았군요
령정포, 홍천포
당두포, 해창포...
그래서 이고장을 통털어
《포구마을》이라 불렀겠나요?

흐르는 도랑물에도 고기떼 옥실거려
한번 삼으로 톱-찍으면
잉어 뗏마리가 너부러졌는지요?
사시절 가옥들의 지붕에 울바자엔
조기, 칼치, 까나리가 가득 넘리어
언제나 이고장엔 비린내 가실길 없었는지요?

더 묻지 않으렵니다 할아버지시여!
그 옛날의 정다운 《포구마을》의 이름이
어째서 오늘와서 《연선마을》로 통하는지
서해바다 옥실대는 고기떼를 겨드랑이에 끼고
어째서 동해바다 물고기가
여기 식료상점매대 절투에 올라야 하는지

더 말하지 않으렵니다 할아버지시여!
어째서 고기비린내 풍겨 오던 포구에
이제는 화약내 풍겨오고
어째서 돛폭이 날리던 바다가에
저주로운 직승기가 떠돌고있는지...

아, 《포구마을》 《포구마을》 ...
꿈에도 부르며 찾을것만 같은 그 이름
이내 몸 《연선마을》에 머물렀어도
마음속에 큰 자리를 펴는 《포구마을》은
내 세대에 찾아야 할 이름인가 합니다

한 굴진소대장에 대한 이야기

김용남

《탄부성격》

언젠가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혁신자속사관에 강운협소대장을 그려붙인적이 있다.

너부죽한 얼굴에 반쯤 열려진 빙글썸한 입, 가느스름히 쪼프린 눈귀에 내비친 조용한 미소, 장난군조무래기들이 그밑에 서투른 글씨로 《땅크소대장》이라고 쪼아박지만 앓았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이 유순해만 보이는 사람이 15년동안 굴진소대장으로 일하면서 해마다 연간계획을 넘쳐수행한 그유명한 《땅크소대장》인줄은 미처 몰랐을것이다.

그의 유순한 인상은 1971년 그가 굴진소대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소대원들을 저으기 실망케했다.

《꼭 샌님같다니까.》

《〈탄부성격〉이 못돼!》

한발과 해제긴 막장의 휴식참에 의례히 뒤따르기 마련인 탄부들의 그 절박한 룡담속에 이런 말이 오갔다.어느 익살군의 너스레로 막장이 떠나갈듯하던 휴식참의 호함진 웃음소리는 《쿵》하는 소리와 함께 똑 끊어지고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거기에는 방금 아름다리 동발을 땀따친 소대장이 빙긋이 웃고 서있었다.

《또 시작합시다.》 소대장의 작업구령은 매번 이렇게 시작되곤했다.

한번은 소대장에 대한 인상을 뒤집어엎은 사건이 있었다. 교대시간 앞두고 마지막 발파를 해제긴 소대원들은 권입장에 공차가 없는것을 알자 주섬주섬 교대준비를 하고있었다. 손시계를 들여다본 소대장 강운협동무는 동발마를 준비를 서두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초소장동무. 한순환 더 합시다. 지령대에 공차한줄 대라고 전화하시오.》

보통 교대시간을 앞둔 이런 시간에 지령대에서 긴장한 공차를 줄리만무하다. 공차를 달라거니

못준다거니 초소장과 지령대사이에 유방통화기로 한창 입씨름이 벌어지고있을 때 막장에서 뛰쳐나온 소대장은 벌써 지령대에 떡 뵈치고 서있었다.

《왜 굴진공들을 믿지 못합니까? 탄부들이 한다면 하는거요!》 소대는 기어이 공차를 받아내여 두 순환을 해제졌다.

이날 출갱길에 오른 인차안에서는 이런 말이 오갔다.

《보기하군 영 다르군, 정말 <탄부성격>인데!》

《언젠 샌님소대장이라더니 ?》

《아니, 땅크소대장이요!》

다시 준비한 혁신자속하모임

꽃테프로 단장한 방송차에서는 방송원의 흥분된 목소리가 격조높이 울렸다.

《지금 곧 탄광의 생명선인 우8호채탄장 굴진을 한달이나 앞당긴 굴진소대장 강운협동무의 가정 축하모임이 시작됩니다.》 갱입구는 진을 친 환영 군중들과 탄광기동예술선동대며 학생소고대로 흥성거렸다. 환영군중이 주인공을 기다리기에 어지간히 지쳤을 때 나타난것은 강운협소대장이 아니라 작업복차림의 세포비서였다. 말없는 가운데 소대장이 왜 안나오는가고 묻는 못시선들을 느끼자 세포비서는 난처한듯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소대를 떠난 자신의 성과란 따로 없다면 서 소대전원이 축하모임에 참가하게 해달라는겁니다.》

그렇다. 이것은 그 어떤 가식이나 지나친 겸손이 아니다. 강운협동무의 사람됨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해할수 있는 그의 마음의 진정이었다. 하나의 의지로 단합된 소대원들가운데 이곳에 첫 보급자리를 편 제대군인치고 새색시와 함께 또는 약혼녀와 함께 소대장을 찾아가지 않았던 사람이 없다. 그는 또한 착실한 소개군이

기도 했다. 고아인 김형제동무를 비롯하여 김병관, 최창성동무들의 안해들은 소대장이 직접 점찍어 맺어준 부부들이다. 명절이나 휴식일이면 소대장의 집은 온소대와 그 안해들이 모여들어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다. 김병관동무의 안해가 아들을 낳았을 때 우리 소대 대가정에 또 한사람의 굴진공이 태어났다고 행복의 웃음소리 얼마나 높았던가! 《우리 소대》, 《우리 가정》 강운협소대원들과 그 안해들이 즐겨부르는 이 말속에는 후더분한 인정에 끌려서만이 아닌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받들어가는 충성의 한길우에서 맺어진 혁명동지들의 참다운 의리와 단합된 마음이 그대로 깃들어있는것이다.

경제선동지회부는 강운협소대장의 제기를 쾌히 받아들였다. 소대전원과 그 안해들을 태울 배스가 달려오고 소대의 집단적혁신과 남편들을 도와나선 그 안해들을 축하하는 속보들이 새로 나붙었다. 이렇게 혁신자축하모임은 다시 준비되었던 것이다.

그의 소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혁명과업수행에서 표현됩니다.》

한생을 굴진공으로 살면서 자기손으로 직접 굴을 뚫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당을 받드는것이 그의 생활신조이다. 그는 어느날 신설탄광의 중대장으로 가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깊어지는 생각으로 하여 잠들수 없었다. 《쿵-쿵-》 이따금 창문을 흔드는 둔중한 발파소리가 이밤따라 더 유정하게 들렸다.

저 발파소리를 더는 자기손으로 울릴수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허전해짐을 느꼈다. 물론 중대장은 보다 책임적이고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한치한치 자신의 손으로 굴을 뚫어나가는것으로써 당을 받드는 그 보람외에 더 다른것을 생각해본적이 없는 그였다. 정든 막장, 정든 소대원들과 더불어 굴길을 열어가는 보람을 떠나서 무엇을

더 바란단말인가!

《이제라도 당위원회를 찾아가자, 한생을 굴진공으로 살고싶은 진정을 터놓자.》 이렇게 생각한 그는 그날 밤 초급당위원회를 찾아갔다. 당에서는 강운협동무의 소원을 풀어주었다.

다음날 그가 다시 굴진막장에 나타났을 때 그를 얼싸안고 환성을 터치는 소대원들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굴진막장을 떠나선 살것 같지 않거던! 우리 한생 굴진공으로 당을 받들자구!》

탄부의 《주소》

비방울이 후둑후둑 창문을 치는 곳은날 밤에 소대장이 자기의 한 굴진공의 집을 찾아왔다.

《이것때문에 왔네》 하고 도일보한장을 불쑥 내미는 통에 그 굴진공은 어안이 병병해졌다. 《자네가 쓴 벽소설이야.》

그때야 의문을 알아차린 그는 《거 뭐 변변치 못한건데 비오는 밤에...》 하고 반색을 했다.

《칭찬하러 온건 아니야, 소설 뒤끝에 쓴 자네의 그 주소때문이야!》

그는 정색해진 소대장의 엄엄한 기상앞에 그만 눈길을 떨구고말았다.

《굴진공이 소설을 써낸건 우리 소대의 자랑이야 하지만 산업동 45반이 뭐가.

이왕이면 룡림탄광 굴진소대 아무개라고 했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뜨거운것을 삼켰다.

룡림탄광 굴진공!

소대장의 이 말속에는 탄부의 영예와 긍지가 얼마나 존엄높이 울리는것인가. 그는 탄부들의 힘과 재능을 자랑하고싶었던것이다.

굴진공은 존경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소대장 강운협동무는 지금 초급당위원이며 구대의원이며 인민참심원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그는 가식을 모르는 평범한 탄부. 오늘도 래일도 한생을 굴진공으로 당을 받들어나가는 진짜배기 탄부인것이다.

봉 화

한원군

(조동무가 새 기계를 맡는다구? !)

어릴적친구를 찾아 수화기를 들었던 나는 반가운 소식에 접하였다.

조동무는 나의 소꿉동무이다.

군대에서 갓 제대된 그는 아버지가 일하는 평양종합방직공장 공무직장에 배치받았다.

예나 지금이나 그의 아버지는 공무직장 선반공이고 그의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와 함께 직포직장에서 천을 짜는 직포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해빛밝은 탁아소의 요람속에서 단꿈도 함께 꾸었고 유치원시절엔 한 책상에 앉아서 우리 말도, 셈세기도 함께 배웠다.

그 시절 어느해 이른봄날에는 공장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목청껏 환호의 만세도 함께 불렀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날은 온 나라가 공작기계 새끼치기운동에 떨쳐나섰던 1959년 5월 5일이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동무의 아버지가 일하는 공무직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프레나와 종삭반을 비롯한 공작기계들과 소면기를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기뻐하시며 공무직장을 찾아주시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프레나와 종삭반 소면기를 돌아보시고 아주 잘 만들었다고 만족해하시였으며 이 직장 노동자들이 기계에 대한 신비성을 깨뜨리고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에서 전국에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치하해주시였다.

그때 우리는 조동무의 아버지를 비롯한 공무직장 노동자들이 어떤 애로와 난관을 거쳐 것처럼 훌륭한 공작기계를 만들었는지 다는 알지 못했다.

다만 그날저녁 퇴근길에서 여느때 없이 조동무와 나를 번갈아 하늘 높이 쳐들어주고 두볼을 비벼주면서 기계소리 우렁찬 조립장이며 기세찬 용선로의 불길을 돌아보고 또 보곤하던 조동무의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벽찬 환희와 삶의 긍지를 어린 마음으로 가늠했을 뿐이다.

그때 조동무는 내 손목을 잡고 걸으면서 말했다.

(나도 크면 우리 아버지처럼 선반공이 될테야)

그런데 오늘 새 기계를 맡는다니 어떤 기계인지 궁금하기도 하였고 어엿한 기대공이 된 그를 기대결에서 만나보고싶은 마음이 간절하였다.

때마침 그곳으로 가는 기회라 그를 찾아 떠났다.

푸른 숲 설레는 대동강가에 위치하고있는 평양종합방직공장안의 공무직장은 형타, 주물, 단조, 가공, 조립 등 제품생산의 모든 공정이 그쯘히 갖추어져 그대로 기계공장을 방불케 하였다.

《〈1985년 6월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라는 구호가 나붙은 직장안에 들어섰을 때 마침 조동무는 한창 신바람나게 기계를 돌리고있었다.

머리가 반백이 된 그의 아버지와 직장장이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그의 작업모습을 지켜보고있었다.

뜻밖에 나타난 나를 보며 반가이 맞아주던 그의 아버지는 선뜻 영문을 몰라하는 내 심중을 알아차린듯 《이 기계가 〈1985년 6월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의 불길속에서 새로 태어난 선반 〈봉화1호〉 일세.》

(《봉화1호》)

순간 나는 가슴 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어릴적소원이 꽃핀 친구를 대해서이라 아버지의 기계에서 새끼친 새 기계를 아들이 맡은 그때문이다.

당의 결정지시라면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옹호관철하고야마는 확고한 립장과 자세로 또다시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의 봉화를 높이 추켜든 로동계급의 불같은 마음이 내 가슴에 불을 지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작기계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공작기계를 가지고있는 모든 부문, 모든 공장들에서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벌려야 합니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새기며 기계의 바다를 이룬 직장안을 둘러보았다.

육중한 공작기계축인듯한 큰소재를 물고 가볍게 도는 선반들, 복잡한 원통대면을 회한할 정도

로 척척 가공해내는 공작기계들, 행군서열처럼
작업장량측에 나란히 줄지어 서서 분주히 동작하
는 볼반들, 상하좌우로 실새없이 움직이며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듬고있는 종삭반, 평삭반, 타닝
반들 연마반, 프레나...

그 수를 헤아릴수 없는 공작기계들이 요란한
동음을 울리며 씩씩이 뜨거운 쇠팔들을 날리고있
었다.

그야말로 불꽃튀는 전투장을 방불케 하였다.

《이게 다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벌려 만든
공작기계들이야.

이제 우리는 대형공작기계와 특수공작기계도
만들게 돼,》

조동무가 신념에 넘쳐 힘있는 어조로 말하였다.
그 말은 마치도 새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에서 봉
화를 본때있게 추켜올리겠으니 두고보라는 뜻같
기도하였다.

설계도 자체로 하였고 가공도 조립도 자체로

한미더운 《새끼공작기계》들.

기계와 함께 당을 받들어 변함없는 로동계급의
신념을 넘겨받은 미더운 새세대 청년기대공들.

이제 이 새끼공작기계들이 또 새끼를 쳐 대형
공작기계와 특수공작기계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새끼공작기계》들이 태어날 때 우리 조국은 얼마
나 멀리 전진하고 얼마나 높은 기술문명의 봉우
리에 올라설것인가.

나날이 높아지는 기계의 동음속에 더 젊어질
이땅의 래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멀지 않은 앞날에 이 직장뿐아니라 조국
의 어느곳, 어느 공장 어느 농장에 가나 장엄하
게 펼쳐진 기계바다를 보게 될것이라는 크나큰
흥분에 잠겨 이 직장을 나섰다.

눈부신 해살을 받아안고 반짝이는 정원의 수억
만 입새들은 마치도 아름답게 안겨올 환희와 미
래를 축복하는듯 류렬히도 설레고있었다.

영원한 대답

김철민

번지노라, 내 언제든
한번은 와보고싶던곳
락원의 민주선전실에
승엄히 펼쳐진 그날의 회의록을

번지노라, 이제 금시
그날의 세포총회가 열린듯
우리 수령님 우러러
그날의 당원들이 토론하고있는듯

회의록의 갈피갈피
전쟁만 이기면
복구건설은 우리가 하겠다던
그네들의 불같은 대답이 울려오누나!

아, 이 땅의 마지막 한끝까지
성한것이란 없던 그날에
단 하나 성성했던 인민의 신념으로
우리 수령님께 신심드린 락원의 대답이어

뜨거워라, 한자두자
정성껏 적혀진 회의록의 글발들이

그 대답 생명삼아 폐허를 뚫고 일떠선
그네들 마음이 보석처럼 빛나고

한줄두줄...
회의록에 살아숨쉬는 글줄들도
그 대답 기폭처럼 떨치며
힘겨워도 몇몇했던 그네들의 길로 안겨오고

진정 그때문인가
세월을 넘어 세대를 지나
80년대의 진군길을 걷는 이 가슴에
갈피갈피 그날의 대답을 새겨주는 회의록

험한 진풍이 가로 놓이고
불흐르는 강하가 막아선대도
내 마음속 갈피갈피에서 울려나오려니
그날의 대답은...

아, 이 세상에 할 말은 많아도
당앞에서는
두말할줄 모르는 전사들의 대답을
세월이어, 너는 영원히 들으리라!

곧은 길 외 1편

문기창

이 땅우에 굽이굽이
갈래많은 길은 아니
누구나 걸어가는
평탄한 길은 아니

흰구름을 안고
아슬하게 솟은 철탑우
하늘로 뻗어간 송전선을 따라 걷는
선로감시원의 이 길

눈오는 날에도
생ন길을 헤쳐가고
비물이 사뭇쳐 흘러도
한자욱도 드림없이
벼랑길을 오르나니

한자욱 한자욱
철탑을 오를 때면
구름은 발밑으로 흐르고
날아에는 수리개 굽어보는곳

하늘로 올라도 나홀로
땅으로 걸어도 나홀로
길은 곧은 길

오로지 하나의 길

아, 이 길우에
정녕 나홀로 섰는가
철탑을 울리며 송전선을 흔들며
쉬임없이 올려오는 소리는...

펄펄 끓는 전기로의 숨결
웃음꽃 피어나는 직기의 노래
《80년대속도》 창조의 불길안은
조국의 거세찬 발구름

철탑우에 홀로 섰을 때조차
가슴 뜨겁게 조국의 숨결안고
이 하늘 이 땅 한끝까지
아 땅을 따르는 이 마음이어

내 걷는 구간은
송전선의 한구간이여도
당을 따라 하나의 길
송전선같이 곧추 뻗은
내 삶의 곧은 길
예 있어라

조국의 진군길

하루에도 그 몇번인가
한생을 철길우에 바쳐오는
순회원의 이 마음속에
정답게 울려오는 기적소리

신호기를 높이 들어
마중하며 바래우는
젊은 기관사의 눈길은
못잊을 전우의 그 모습인듯

들려온다 이 가슴에
싸우는 전선
불타는 고지로 달리던 기관사
나에게 들려주던 말
일본도 어길수 없는것이
철도의 시간이라고

들려온다 이 가슴에

포화속을 뚫고 불비속을 헤치며
가렷했던 그 시각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기관사의 그 목소리

-철길우의 정시는
멈춤이 없는 조국의 전진

아, 그날에 그가 남긴 말은
길지 않았어도
그날에 그가 헤친 그 길은
먼 구간이 아니었어도

기관사의 그 시간
기관사의 그 길이 있어
조국의 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은 휘날리였고

그날에 그 시간을 지킨
그날에 그 길이 있어

조국은 얼마나 멀리
창조와 건설의 길을 달려왔는가
얼마나 자랑높은
기념비의 탑을 쌓아 올렸는가

오늘의 행복이 꽃핀
이 땅우에
바라보는 명마루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 길이어라
비내리는 새벽에도
눈내리는 저녁에도

내 걷는 순희길

이 길우에
순간도 쉬임없이 돌아가는
회중시계의 초침소리는
높뛰는 심장의 맥박소리인듯
언제나 정시를 가리키고

아, 이 길우에
조국의 시간이 흐르고
이 길우에
조국의 진군길이 이어지거니

철길우의 정시는
조국이 전진하는 흐름
두줄기 철길은
조국의 진군길이어라

그때만도 미처 몰랐답니다

조성관

전선으로 배웅하던
그때만도 미처 몰랐답니다
다박머리 끄집어 올려주던
곶은 심술마져 애릇이 사무칠줄은

수양버들 휘늘어진 앞내가에
물장구 함께 치며 재갈이던
어깨동무 소꿉시절 돌이키면
눈길 마주침에도 수집었던 나날

그때만도 미처 몰랐답니다
마음속 한깊이 뿌리내린 소꿉정
지금에 메울길 바이 없이
가슴 이러히도 사무칠줄은

소리없이 고즈넉이 망울 짓던 순정
초연 뒤덮인 전호속에서
오롯이 사랑으로 피어났답니다
어둠속에 빛을 더하는 구슬처럼

포구에 닳을 내릴 때면

리소영

귀항의 배고동 울리며
포구에 닳을 내릴 때면
우리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만선기
나뭇기는 만선기

운반차 물고 달려오는
운전공처녀들의 정찬 머리수건
그 고운 퍼덕임을 안았는가
하륙장에 쌓이는 정어리를 바라보며
젠일손 옮기는 가공반 녀인들의
그 청고운 노래소리를 안았는가

노을을 비껴안고 넘실대는
바다도 웃는듯
도래굽이 술발 언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결도
그 무슨 웃음소리 안고오는듯

랭동정어리 가득 실은
꼬리긴 차판을 끌고
정시발차를 알리는 기적소리 안았는가
집집의 부엌에 따뜻이 흐르는
그 웃음을 안고오는가

아, 다시금
바라보는 만선기
온 나라에 높아가는 웃음소리로
가슴속 기쁨의 물결 흔들어주는
어로공 우리의 뗏뗏한 대답이어
우리 량심의 나래여

정 어 리

백 하

정어리 !

이 이름은 지금 우리 인민을 몹시 흥분시키고 있으며 기쁨의 대명사처럼 되고있다.

동해안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정어리떼가 밀려들어 우리 나라에 복이 들어왔다고들 한다.

그렇다. 1940년대초에 사라졌던 정어리떼가 수십년만에 밀려들었으니 또 하나 복이 밀려든셈이다.

지금 동해천리어장은 정어리잡이 풍어기가 숲으로 뒤덮였다. 참으로 우리 나라엔 올해 정어리대풍이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취재과정에 정어리가 밀려들어서 대풍이 든것이 아니라는것을 깊이 절감하였다.

참말로 그러하다. 정어리가 나타났다고 해서 정어리풍년이 든것이 아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수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들의 부식물문제를 푸는 좋은 방도의 하나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수산업을 발전시켜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높이시려고 천리해안의 예지와 원대한 구상,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으로 크나큰 심혈을 바쳐오시였다.

금시 전쟁의 포화가 멎은 정전직후였다.

미제의 야수적인 함포사격으로 청진시는 황폐화되였다. 건물들이 다 파괴된 바다가에는 그 옛날 정어리공장의 굴뚝들만이 남아있었다. 그 굴뚝들은 수싹개나 되였다. 도시를 새로 일떠세우기 위해서는 그 굴뚝들을 밀어제끼고 새 설계를 펼쳐야 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곳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정어리공장의 굴뚝들이 앞으로 쓸모가 있으니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라고 하시였다.

그래서 지금 이 빈 굴뚝들은 부두가의 기업소와 직장들의 마당 한구석에, 혹은 창고의 지붕 한복판에, 작업반 휴게실결에 옛모습 그대로 우뚝우뚝 서있다.

련진수산사업소 부기사장은 이 굴뚝들을 나에게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그때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깊은 뜻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 수령님께서 천리해안의 예지로 오늘을 내다보셨지요.》

이 굴뚝들은 오늘 정어리기름을 짜는데 리용되

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해의 해류의 변동을 세심하게 관찰하시며 정어리잡이 대책을 미리 철저히 갖추데 대하여 여러차례나 교시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1974년 한 해만해도 양화, 서호, 경표를 비롯하여 여러 랭동공장을 보수정비하도록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 6월 함북도와 청진시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정어리를 대대적으로 잡을데 대하여 하신 교시는 우리 나라 정어리잡이에서 새로운 전환을 불러왔다.

최근의 우리 신문방송들은 동해의 모든 어장들에서 지난해에 비하여 거의 3배에 달하는 정어리를 잡고있다고 크게 보도하고있다. 양화수산사업소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5배에 달하는 정어리를 잡고있다고 한다.

이 기적적인 성과!

이것은 정어리가 많이 밀려들었다고 해서 이루어진 성과가 아니다.

이것은 중심어장에 랭장운반선들과 대형선미쓰랄선들을 세워놓고 작업선들이 잡은 정어리들을 되받아실어들이는 방법으로 어로전투를 진행하지 않고는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충분한 어구를 갖추는 만능화된 현대적인 작업선들과 동해천리에 늘어선 랭동공장, 목통공장을 비롯한 강력한 가공기지를 갖지 못하고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정어리떼가 나타나기전부터 정어리잡이의 온갖 물질기술적조건들을 몸소 마련해주시였다.

우리는 만선기 날리는 중형쓰랄선의 갑판에 서서 그 위대한 령도, 그 빛나는 향도를 가슴뜨겁게 절절하게 체험하였다.

어창에는 백톤이 넘는 정어리가 가득차있는데 물으로 향한지 얼마 안가서 선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정어리는 불과 몇시간 안으로 인차 변하는 물고기이다. 때문에 물에 닿기전에 변하면 어분으로 처리할수밖에 없다.

랭장운반선과 바다가의 랭동공장들, 그것이 이는 정어리잡이는 허사이다.

우리는 청진수산사업소의 방대한 랭동공장, 칸마다가 운동장같은 그 성에로 뒤덮인 속을 걸으며 심장으로 부르짖었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아니었다면 어찌 할번했느냐고-

이 랭동설비가 없다면 정어리떼가 밀려든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랑동공장안을 돌아보고 밖에 나오니 하륙공들이 하륙콘베아팔을 배의 어장에 깊숙이 박고 연신 정어리를 퍼올리고있었다. 삽시에 부두의 고기받이칸에는 아직 선도가 좋은 깨끗한 정어리들이 산갈이 치쌍였다. 한마리도 허실없이 얼구게 된것이다.

그전 여름철엔 거의 비어있었다는 이 랭동공장도 비좁게 되었다.

지게차들은 쉽없이 정어리 랭동판대기들을 실어다 천정이 닿도록 쌓아나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정어리의 랭동판대기산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높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정어리풍년을 불러오시기 위하여 찬바람부는 부두가를 거닐으시며 뜨거운 사랑 베풀어주신 아버지수령님.

이제는 그리도 바라시던 정어리 대풍이 터졌으니 마음놓으시어도 되련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더 험한 길을 헤쳐가고계신다.

젊은 하륙공은 갈린듯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6월의 그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글썽 배를 타시고 이 포구로 오실줄이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저 앞바다로 해서 물결거친 배전에 서서 여 청진조선소 대안에 오르셨습니다. 진갑이 넘으신 우리 수령님께서...》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어리잡이어장에 더 큰 배들을 무어보내주시려고 몸소 험한 파도를 헤쳐 조선소를 찾으시였다.

그날의 그 감격을 안고 설레이는 그 배길우엔 흰 갈매기무리가 하얗게 떠서 눈송이처럼 날고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배길을 바라보며 오래오래 서있었다.

그렇다. 정어리떼가 밀려와서 정어리대풍이 든 것이 아니다.

이 정어리대풍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우리 당에서 몸소 불러오신것이다.

고향에서

염득복

예가 내 고향이란말인가
내 나서자란 산촌이란말인가
박우물 샘숫던 정든 산촌에
새라새로운 고층건물들이
키돋움하며 일어서는 신단천, 신단천

내 얼마만이나
고향을 찾은것은
중학교 모표를 떼지 않은채
초소로 떠나던 날
고향의 어머니 들메나무아래서
나를 바래주던곳은 그 어디인가

그 어디쯤인가
들판 아득히 안겨오는
누른빛 밀이삭
설레는 그 별을 바라보며
어린날의 꿈을 키워오던곳은

잔디밭에 땀굴며 소리치며
고향의 낮은 언덕에서
저 들판이 비좁도록

새 도시를 일떠세우리라
어린날 희망이 나래치던곳은

고향이어 !
너를 지켜 훈련의 낮과 밤
구름도 못오르는 칼벼랑을 넘으며
눈덮인 전호가에 밤 밝힌 궁지
가슴가득히 안겨주는 내 고향이어 !

당의 은혜로운 사랑이
그대로 행복의 주춧돌이 되고
번쩍이는 창문들이 되여
초소에서 돌아오는 이 아들을
어서 오라 마중하니

아, 초소로 떠나던 그날처럼
맹세도 새로운 가슴속
뜨거운 생각이어
조국 위해 진정을 바친다며는
조국은 언제나 사랑의 한품속에
행복히 따뜻이 안아주누나

사랑과 믿음

조승찬

산간읍의서관방 5호실에는 네사람이 류숙하고 있었다. 대체로 장기출장자들이었다. ㄷ광산에 새로 들어가는 전력인입선 설치로 이동작업을 나온 박정삼과 취재차로 나온 나, 그리고 상동탐사대의 지질기사와 함흥에서 온 제대군인 청년이었다.

객지에서는 사람을 사귀기가 몇배나 쉽다.서관방에서 하루밤을 묵고나자 우리는 벌써 구면처럼 친숙해졌다.

직종과 임무는 서로 달랐어도 ㄷ광산을 목적으로 온 출장자라는 공통된 심리가 작용해서 더욱 그랬는지 모른다. 어쨌든 보름이 되어오는 지금에 와서는 지질기사가 이곳의 무진장한 ㄷ광석의 매장량을 확정하기 위해서 온것이라든가 가정에는 자그만치 끝끝한 아들 다섯을 키웠는데 그들 모두가 아버지와는 달리 체육계로 뻗어 지난해 여름에는 둘째아들이 국제권투경기에서 모든 강자들을 물리치고 1등을 하여 전국을 들썩하게 하였다는 사연까지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함흥청년만은 언제 봐야 자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이 없었다. 너무 과묵한 성미 탓인지 아니면 년장자들앞에서 내우하느라고 그러는지... 보건대 그런것만 같지도 않았다. 때로는 호실의 분위기에 섭쓸려 웃기도 하고 몇마디 말도 나누곤했지만 창밖을 내다보며 혼자 명상에 잠겨 있을 때면 분명 그 얼굴에 떠도는 어두운 색조, 사색질은 눈빛에는 그냥 스쳐버릴수 없게 하는 그어떤 음영이 비껴있었다.

무엇때문일까? 이 의혹은 그가 호실에 든지 나 홀째 되던날 뜻밖의 사건으로 하여 더욱 커졌다.

그날은 마침 일요일이어서 우리는 모두 장기관에 마주앉아 객지에서 차례진 휴식의 한때를 즐기고있었다. 그때 밖에서 문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방식이 열리더니 문가에 몸이 류달리 뚱뚱하고 살집이 좋은 40대의 중년부인이 나타났다.

그를 보자 청년이 벌떡 일어나 반기였다. 알고보니 그는 청년의 누이였다. 우리는 녀인을 호실로 청하였다. 처음은 다소 주저하던 녀인이 우리의 친절한 호의에 사의를 표하며 동생을 따라 방으로 들어왔다.

얼마후 우리는 다시 장기관에 마주앉았고 들오누이는 저쪽 방 한끝에 무릎을 마주대고 앉아 귀속말로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던지...

갑자기 녀인의 격한 목소리가 우리의 귀전을 울리었다.

《내 그럴줄 알았다. 전번 네 편지를 받고...》

《누이 ! 》

청년은 황급히 그의 말을 막으며 민망스러운 얼굴로 우리를 돌아보았다.

우리들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은것 같은 죄스러움으로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고말았다.

잠시 잠잠하던 뒤에서 다시금 녀인의 소곤대는 목소리가 몇마디 더 울리더니 이윽고 자리를 털고일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봐서 한번 내려오너라. 나도 인숙이에게겐 편지해보겠다... 이거 안됐어요.》

동생과 말을 마친 녀인이 우리에게로 돌아서며 량해의 말을 남기고나서 문밖으로 나갔다. 청년도 따라나갔다.

무슨 일일까?

청년은 얼마후 호실로 돌아왔다. 그는 우리의 묻는듯한 시선과 마주치자 얼굴을 숙이며 방 한쪽에 가서 앉았다.

《무슨 일이요 ? 》

호기심많은 박정삼이 먼저 청년에게 말을 걸었으나 청년은 무척 거북해하며 어줍게 웃을뿐 대답하지 못했다. 무엇인가 말하기를 꺼려하는것 같았다.

그렇수록 우리의 의혹은 더 짙어졌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박정삼이 그 청년을 어떻게 구슬렸던지 그의 가슴속에 품고있는 사연을 듣고나서 몹시 분개해하였다. 우리는 처음 어리둥절했으나 그 내막을 알고는 박정삼의 흥분에 공감하였다.

제대되지 얼마되지 않는 청년은 크지 않는 상업관리소 자체인수원으로 일하면서 한 상점판매원처녀를 사랑하고있었다. 이런 때 당에서는 새로 개발되는 ㄷ광산으로 청년들을 불렀다. 청년은 당의 부름에 선참으로 탄원해나섰다. 그러나 청년의 행동은 그 처녀의 지지와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청년은 실망하였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뜨거운 심장, 열렬한 지향을 심어주면 그가 따라나서리라는 믿음을 간직하고있었다. 누이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기도 했었다. 처녀는 끝내 청년을 따라나서지 않았는데 이것이 마침내 누이의 노임을 사게 했다는것이였다.

생각을 깊게 하는 이야기였다.

《그런 일이 있었구만.》

나는 청년에 대한 동정심이 솟아올라 그를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그까짓거 그만둬. 너자란 남자를 따르기 마련

인데 어디 간들 그만한 처녀가 없겠소.》

언제 봐야 단순하고 명백한것은 박정삼이었다. 그는 눈에 열기를 띠고 본격해서 푸들쩍거렸다.

방안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청년에게 힘이 되고 믿음을 줄수 있는 이야기를 해줄수 없는것이 나에겐 안타까웠다. 그럴 때 지질기사가 침묵을 깨트리며 청년에게 물었다.

《동무는 그 처녀를 진짜 사랑했소?》

《예 ? !》

청년은 의외의 질문에 놀라는 낯빛이었다. 우리도 의아해졌다. 청년의 낯빛은 점차 붉은빛으로 변해갔다. 분명 그 어떤 모욕감을 느낀것 같았다.

《모욕을 주자고 묻는것은 아니요, 동무가 그 처녀를 믿지 못해 하는것 같아 그러오. 그래 믿소?》

《...》

따지듯 묻는 말에 청년은 말문이 막힌듯 지질기사를 멍히 지켜보다가 슬며시 고개를 돌리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가 서로 사랑한것만은 사실입니다.》

《...》

지질기사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러던 그가 그 어떤 추억을 더듬는듯 눈가를 가늘게 찌푸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소. 동무의 경우와 어느 정도 비슷한 이야긴데 들어보겠소?》

청년은 대답대신 그를 쳐다보는것으로서 응수하였다. 우리도 기대어린 눈길로 지질기사의 동일한 얼굴을 쳐다보았다.

《어느 한 연구소에서 있었던 일ियो. 그 연구소에는 남달리 탐구심이 강하고 장래가 기대되던 한 청년연구사가 있었소. 그에게는 맘속깊이 사랑하는 한 처녀가 있었는데 그는 연구소의 분석공이였소. 용모가 아름답고 품행이 단정한 처녀였소. 대학시절부터 남몰래 짝터오던 그들의 사랑은 청년이 연구소에 배치받아 특출한 성과를 올리는것으로 하여 더욱 깊어졌소. 이런 그들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졌소.

청년이 이태동안 심력을 기울여 연구해오던 새로운 실험법이 현장에 내려가 진행한 최종실험에서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말았던것이였소. 그 후과는 작지 않았소. 그러자 처음부터 새 방법에 의문을 품었던 많은 사람들이 때를 만난듯 그것의 불가능설을 력설하였고 지어 공명심이 낡은 엉당한 후과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나타났다.

청년은 눈앞이 아득하였소.

실험은 즉시에 중지되었고 국가재정과 로력을 낭비한 법적추궁이 뒤따랐소. 청년은 그 책임과 법적추궁앞에서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소. 의도야 어떻든 국가에 막대한 재정적손실을 준것만은 사실이였으니까.

청년의 성실한 태도에 처리는 관대하였지만 그 연구사업을 더이상 진척시키는것은 허용되지 않았소. 그것은 청년에게 있어서 또하나의 타격이 아닐수 없었소.

고민은 컸소.

그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처녀는 청년을 찾아가 진심으로 위로해주었소. 그러나 위로도 살뜰한 말도 청년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지는 못했소. 하지만 청년은 연구사업을 포기해버릴수가 없었소. 그렇다고 그것을 다시할 의향을 선뜻 내뱉수도 없었소. 번민끝에 그는 드디어 연구소를 떠나 현지에 내려가 자기의 연구를 완성할 결심을 가졌소.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게 된 마당에서야 그는 자기의 결심을 처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하는 문제에 생각이 미쳤소. 그러나 그는 처녀를 믿었소. 누구보다 처녀에 대해서는 잘 알고있다고 생각했던 그였소. 그래도 마음만은 여전히 편치 못했고 복잡하였소.

때는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고 움트는 계절이였소. 봄빛이 짙어가는 그날 청년은 모란봉언덕을 넘어서며 자기의 불안한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애썼소.

(공연한 근심이다. 아무렴 정애가...)

일요일이여서 처녀는 마침 서재의 창가에 앉아 책을 보고있었소. 오래간만에 나타난 청년을 보자 처녀는 반갑게 맞아주었소.

《덥지요? 좀 앉으세요.》

청년은 처녀가 권하는 결상에 걸터앉으며 그가 보던 책에 눈길을 보냈소. 옷도감책이였소. 펼쳐진 책에는 최근에 한창 유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봄철옷들이 원색 그대로 그려져있었소. 남자옷도 있고 여자옷도 있었소. 아마 새로 해입을 옷형태를 가늠해보던 모양이였소. 청년의 시선이 거기에 미치자 처녀는 웬일인지 낯을 붉히며 책을 접어 슬그머니 서랍속에 밀어넣었소. 그리고는 얼른 부엌으로 나가 동그란 다반우에 과자와 단물을 담아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드세요. 시원할거예요.》

처녀는 밝게 웃으며 그앞에 마주앉았소. 그는 처녀가 권하는대로 고뿌를 들어 몇모금 마시였지만 그것이 단지 쓴지 전혀 느낄수가 없었소. 처녀의 순결한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건만 이제 해야 할 말을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던거요.

《아버지는 아직 출장에서 돌아오지 않으셨소?》

《네, 아마 이달말에는 오실거예요.》

이렇게 대답한 처녀가 별안간 눈빛을 빛내며 정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전 오늘 인철동무가 꼭 올줄 알았어요.》

《그건 어떻게?》

《마음에 짙이더군요. 예감이란 이상하지요? 어떤 때 신통스럽게 맞아떨어지거든요. 비과학일가요?》

〈무슨 기쁜 일이라도 있었던 모양이구만.〉

〈기쁜 일은요...〉

하면서도 그의 입가엔 감출수 없는 기쁨의 미소가 남실거리고있었소. 그 미소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오르는듯 썸처럼 맑고 정갈한 것이었소.

청년은 의아해졌소.

〈파자라도 좀 드세요. 그렇게 자세히 쳐다보면 어디 이야기하겠어요?〉

처녀는 흰이를 가지런히 드러내며 또다시 곱게 웃었는데 그 사랑스러운 모습에는 어딘가 모르게 천진한데가 있었소. 그래도 싫지 않는 모습이었소. 그 모습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생신하고 발랄한 기운이 풍겨오고있었소.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었어요. 인철동무의 소식도 전하면서 제가 좀 약한 소리를 했더니 호호...〉

처녀는 또다시 낯을 붉히며 수줍게 웃었소. 그는 어리둥절했소. 자기에 대한 소식이란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닌것만큼 그의 아버지에게서 좋은 소식이 올리 만무한데 처녀의 맑고 명랑한 기분이 무슨 까닭인지 선뜻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었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긴... 노여웠겠지. 실망도 컸을게구.〉

〈아이 무슨 말예요?〉

처녀는 놀란듯 청년을 쳐다보며 부르짖었소.

〈과학연구사업이 순탄한것이 아닌것만큼 실패가 왜 없겠느냐면서 그래도 인철동문 꼭 이겨낼 거라는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얼마나 엄하게 꾸짖으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신념이 약해서야 어디에 쓰겠느냐는거지요 뭐. 이제 돌아오시게 되면 가만두지 않을거예요.〉

〈허허허.〉

청년은 허거픈 웃음을 지었소.

〈그러니 정애동문 나때문에 아버지에게 공연히 꾸지람 듣게 됐구만.〉

〈일없어요. 그런 말은 백번 들어 썬걸요.〉

처녀는 대수롭지 않다는듯 여전히 가벼운 미소를 입가에 머금었소. 그 맑고 생신한 미소는 어둡던 그의 가슴에 한줄기 밝은 빛을 비쳐주는듯 싶었소.

처녀는 다시 입을 열었소.

〈그리고 이번에 아버지가 오시게 되면 거기에 도 가보시겠대요.〉

〈거기에라니?〉

〈아 이 ... 몰라요.〉

처녀는 갑자기 눈을 곱게 흘기며 모로 돌아섰소. 그의 부드러운 랑볼이 노을빛으로 물들어졌소.

그제서야 청년은 머리속에 피득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소. 이번 연구사업이 끝나면 그는 처녀의

아버지와 함께 자기 집을 방문하기로 약속이 되었던것인데 그걸 그대로 리행하려는 것이었소. 그러구보면 처녀가 옷도감책을 꺼내들고 들여다보던 까닭이 리해되었소.

그는 립장이 딱해졌소. 처녀의 수집은 미소속엔 은근하게 내비치는 기쁨이 무엇이란것을 깨닫자 그의 입은 점점 더 굳어지지만 했소. 애초에 품고왔던 말을 이자리에서만은 터놓기 어려우리란 생각이 들었소. 청년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소.

처녀가 다 되어서야 그는 처녀의 집을 나섰소. 날저문 수도의 밤거리는 더욱 활기에 넘쳐있었소. 끝없이 명멸하는 각종 장식등들이며 하늘높이 솟구치는 분수못가에는 밤무지개가 령롱하게 비끼었소.

〈전말이에요.〉 하고 옆에서 걸던 처녀가 솟구치는 분수못가를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이곳에 오면 마음이 이상해져요. 왜 그럴까요?〉

〈? ! ...〉

〈언제인가 둘째언니는 이러는 저를 보고 처녀 때는 누구나 다 그런 감상주의에 빠지기 쉽다면서 놀려대지 않았어요.〉

〈그래 뭐랬소?〉

〈하지만 저는 언니의 말에 수긍할수 없더군요. 이곳에 와 서면 무엇인가 크고도 벽찬것이 가슴속에 그들먹히 차오르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기란... 생각은 뻔한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처녀는 혼자생각에도 어이가 없었던지 가볍게 웃었소.

청년은 그것이 처녀의 심금에서 순간마다 울리고있는 삶에 대한 희열 그가 나서자란 이 도시의 하늘밑에서 창조되고 번성해가는 행복에 대한 끝없는 애착과 사랑이란것을 알았소.

〈그런 생각은 언제부터 하게 되었소?〉

〈모르겠어요. 정말 언제부터일가?〉

처녀는 그를 돌아보며 놀라와했소. 그것은 사실이었소.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그도 딱히 알수가 없었소.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꽃바다 춤추는 배움의 길로 입학하려 가던 그때부터였던지. 아니면 어느해 설날 학생소년궁전 설맞이공연때 아버지원수님을 처음으로 우러러 뵈고 기뻐 어쩔줄 모르던 그 잊을수 없는 영광의 날부터였던지... 아니 그 모든것의 총체속에서 생겨난 감정일수도 있었소. 그러나 한가지만은 명백하였으니 그것은 이 고마운 제도에 대한 감사의 정이었소. 했지만 자기의 그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할수 없었소. 그래서 더욱 놀라움에 잠긴 처녀는 이렇게 중얼거렸소.

〈모르겠어요. 그저 저는 이런 기쁨없이, 이런 행복없이 사는 삶을 생각할수 있을가 하고 가끔 생각해 보면 어쩐지 마음은 한없이 다감해지고 생

각은 깊어지더군요. 우습지요 ?)

처녀는 말을 끊었소. 불빛 휘황한 하늘가에 구름인듯 안개인듯 부서지며 흩어지는 분수의 물보라를 바라보는 처녀의 단아한 얼굴표정은 푸른 수은등에 아롱져 더욱 아름다와보였소.

청년은 새롭게 변해가는 처녀의 모습을 놀라운 눈길로 지켜보며 말을 하지 못했소. 입가엔 빙긋이 미소를 머금고있었으나 속에선 다른것을 생각하고있었던것이요.

그렇소. 이 도시에 대한 사랑과 경탄과 애착의 감정으로 처녀의 목소리가 열렬하면 열렬할수록 그는 처녀에게 처음에 품고왔던 말을 할수 없으리란것을 똑똑히 깨달았소. 자기가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것을 안다면 그가 얼마나 놀라와하랴, 그처럼 행복에 넘치고 기쁨에 충만된 처녀에게 그말만은 차마 해줄수가 없었소. 이때만은 대학교수의 안해인 그의 말언니며 외교부에서 일하는 둘째언니의 모습이 새로운 의미로 떠오르며 그역시 자기의 언니들이 간 그 길외에 다른 길을 걸을수는 없으며 또 그렇게 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자기에게는 없다는것을 깨달았소. 가슴은 아팠지만 그렇게 하는것이 옳은 처신일것만 같았소. 그러자니 마음은 서글퍼졌소.

〈왜 그래요? 어디 편찮아요?〉

뒤늦게야 청년의 낮빛에 떠도는 침울한 기색을 눈치챈 처녀가 약간 놀란 빛을 담고 근심스럽게 물었소.

〈아니 일없소, 어서 걷지요.〉

청년은 대범하게 웃으며 먼저 분수못가에서 발길을 돌렸소. 처녀도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소. 그 얼굴엔 여전히 가시지 않는 의혹이 담겨져있었소.

그리하여 이날 그는 처녀와 헤어질 때까지도 처음 하자던 말은 종내 입밖에 내지 못하고말았소.〉

지질기사는 우리들을 의미있게 둘러보며 잠시 말을 끊었다. 함흥청년의 이야기로 의분이 솟아 푸들쩍거리던 박정삼도 어느덧 지질기사의 턱밑으로 바투 다가앉아 숨을 죽이고있었고 함흥청년도 호기심어린 얼굴로 눈을 빛내고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 청년은 정말 처녀에게 아무 말도 없이 훌쩍 떠나버렸단말인가. 그리고 처녀는? ...

저으기 궁금해진 나도 어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되기를 초조히 기다렸다.

《드디어 떠나는 날이 다가왔소.》

하고 지질기사는 담배연기를 휘익 내뿜었다.

《그러나 청년은 그대로 떠날수가 없었소. 그대도 사연만은 알려주고 떠나는것이 옳은 도리라고 그는 생각하였소. 그대 편지로 모든것을 알리기로 결심하였소. 그는 그전날 집으로 찾아갔던 일이며그동안 자기가 한 결심을 죄다 적어넣었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소.

〈기일이 얼마나 걸릴지 알수가 없소. 5년이나 1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일수도 있소. 완성하기전에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겠소. 설후 성공치 못하여 일생을 영영 그대로 묻혀버린다 해도 후회가 없겠소. 이것은 내 스스로 택한 결심이요. 그러니 심사숙고해서 결심하길 바라오. 동무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 결코 강요하지 않는다는것을 명심하기 바라오.〉

역으로 나온 청년은 배려주려 온 동무들과 함께 역사앞에 나와 서성거렸소.

그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길 건너편 전차길로 자주 쏠려갔소. 모진 마음을 먹고 편지엔 그렇게 썼지만 그래도 떠나는 이 시각 처녀를 다시한번 보고싶었소. 그러나 다섯번째 전차가 지나가고 여섯번째 전차가 와닿아어도 기다리는 처녀는 나타나지 않았소. 무정한 시간은 자주 흘러 출발시간으로 줄달음쳤소.

(어찌된 일일까?... 무슨 딱한 사정이라도 생겼는가, 아니면... 아니 나올게다... 나를 따르지 않는다 해도 오늘날만은 나올게다.)

그러나 그 믿음은 헛된것이였소. 개찰을 알리는종이 울리고 사람들이 역구내로 꾸역꾸역 밀려나갈 때까지도 처녀는 종시 나타나지 않았소.

청년은 가슴이 찌지는듯한 실망과 허전함을 느끼며 발길을 돌렸소. 그 어떤 믿음을 배반당한듯한 아픔이 그를 못견디게 괴롭혔소. 믿어지지 않았소. 설마 정애가... 다른 처녀라면 몰라도. 그만은 그럴 녀자가 아니라고 굳이 믿고싶었으나 현실은 그 리성의 부르짖음을 무자비하게 부정해버렸소.

청년은 차에 올랐소. 차창밖으로는 벗들이 흔들어주는 작별의 손길이 어른거렸소. 그는 손을 들어 맹목적으로 몇번 답례를 보내고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꼭 부르짖었소. 그의 눈앞엔 처녀와 사귀게 되던 지난날의 잊지 못할 추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소.

청년이 그를 알게 된것은 대학시절이었소. 농촌지원전투를 앞둔 어느날 저녁이었소. 대학도서관에 들러 공부에 정신이 팔렸던 청년은 밤이 켜 깊어서야 기숙사로 돌아오고있었소.

인적이 끊어진 대학구내길은 한적하였소. 다만 몇걸음 앞에서 량손에 큼직한 책보따리를 들고 힘겹게 걸어가는 처녀대학생이 있었을뿐 주위는 피피한 정적에 잠겨있었소. 그가 처녀앞을 방금 지나쳤을 때였소.

〈어마나!〉 하는 소리와 함께 처녀의 손끝에서 책보자가 풀어지면서 책들이 길바닥에 좌르르 흩어졌소. 어떤것은 청년의 발앞에까지 밀려나왔소. 청년은 그냥 지나칠수 없어 발밑에 흩어진 책을 모아서 처녀에게 가져갔소.

〈미안해요.〉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하였소. 책을 모아서 다시 싸자니 보자가 모자라서 언제 또

그런 봉변을 당할지 알수가 없었소.
 청년은 책보따라에 손을 내밀었소.
 <제가 좀 가져다 드리지요.>
 <아이 일없어요.>
 하면서도 처녀는 청년의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
 었소.
 그들이 얼마쯤 걸어갔을 때였소.
 <무슨 책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요?>
 청년의 호기심어린 물음에 처녀는 수줍게 웃었
 소.

<보지요 뭐.>
 <이걸 다요?>
 <...>
 <욕심이 보통이 아니로군 !>
 그런데 며칠후 청년은 모내기전투장에서 뜻밖
 의 광경에 부닥치게 되었소.

바로 그 처녀대학생이 모내기전투에 나온 자기
 학급동무들에게 일일이 책을 나누어주며 학생들
 은 언제 어디서나 학습제일주의로 나가야 한다는
 당의 뜻을 명심하고 전투기간 자체 복습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자고 뜨겁게 호소하는것이였소.
 처녀의 그 모습은 청년의 머리속에 지울길 없는
 인상을 남겨놓았소.

그 이듬해 여름이였소. 청년은 오래동안 모색
 하던 끝에 가치있는 소론문을 집필하는데 성공하
 였소. 그 논문이 공개되자 학생들속에서는 물론
 대학교수들속에서도 파문이 일었소. 논리정연한
 체계와 대담한 시도, 충분한 실험적자료들은 논
 문의 가치를 허물수 없게 하였소. 재학중의 학생
 이 이런 논문을 집필하였다는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이 집중되었소.

청년은 부푸는 가슴을 금할수 없었소.
 그런데 하루는 그 청년에게 처녀가 찾아와 론
 문을 좀 볼수 없느냐고 묻는것이였소. 처녀는 웬
 일인지 몹시 흥분되어있었소.

청년은 그의 요구에 쾌히 응해주었소.
 론문을 훑어보는 처녀의 눈빛은 몇차례 변하였
 소. 흥분에 젖은 까만눈은 갑자기 흐려지기도 하
 고 그보다는 또다시 깊이를 알수 없는 사려깊은
 눈빛으로 변해갔소.

청년은 말없이 그의 표정을 지켜보았소.
 이윽고 마지막 장을 넘기자 처녀는 잠시 말없
 이 앉아있었소.

<수고했군요. 축하해요.>
 처녀는 청년에게 다가와 론문을 되돌려주고 조
 용히 문밖으로 나가버렸소. 처녀의 얼굴에는 분
 명 남의 성공을 축하하는 마음만이 아닌 그 어떤
 심각한 표정이 어려있는것이였소. 청년은 그것
 을 놓치지 않았소.

<무슨 일인가...>
 잔뜩 의혹을 불러일으킨 처녀가 사라진 문쪽을
 바라보며 청년은 혼자소리로 중얼거렸소.
 그 이튿날이였소.

선생의 부름을 받고 강좌에 들어갔던 청년은
 자기의 론문과 똑같은 제목의 론문이 선생의 책
 상우에 놓여있는것을 보았소.

<이건 누구집니까?>
 의아해서 묻는 청년의 물음에 선생이 대답하였
 소.

<유정에동무지요. >
 <예?>
 청년의 눈앞엔 어제 찾아왔던 처녀의 흥분어린
 모습이 언뜻 스쳐갔소.

<그 동무는 이것을 졸업론문으로 한해동안이나
 준비해왔소. 그런데 동무가 먼저 발표하고보니
 론문의 가치가 쓸모없이 되었소. 그래서 그 동문
 졸업이 두달밖에 남지 않은 오늘 이 론문을 포
 기하고 새로운 쟁마를 잡겠다지 않겠소...>

<? ! ...>
 청년은 놀랐소. 처녀가 자기를 찾아왔던 그 까
 닭이 이제야 비로소 깨달아졌소.

<선생님,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아직
 졸업을 하자면 1년나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
 무는...>

저는 그 동무를 위해 기꺼이 양보하겠습니다.)
 선생은 크나큰 감동에 젖은 눈길로 그를 지켜
 보더니 설레설레 고개를 끄는것이였소.

<하지만 정애동무는 접수하지 않을거요.>
 <그건 넘어 마십시오.>

청년은 그길로 처녀를 찾아갔소. 청년이 찾아
 온 사연을 다 듣고난 처녀는 입가에 쓸쓸한 미소
 를 머금었소.

<성의는 고마와요. 하지만 인철동무! >
 하고 그는 처음으로 청년의 이름을 부르며 정
 색해서 말했소.

<나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다시는 그런 말을 말
 아주세요.>

우리는 물론 서로 모르고 한 쟁마에 대한 연구
 론문을 집필했고 그것을 완성했어요. 그러나 일
 단 한 론문이 세상에 공포된 이상 또 다른 사람
 이 그것으로 국가졸업론문을 내놓을수야 없잖습
 니까. 과학탐구의 첫걸음을 떼는 나에게 랑심
 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 ...>
 처녀의 결심은 확고하였소. 그 높은 정신세계,
 과학탐구의 옹은 자세앞에서 청년은 다른 말을
 할수가 없었소. 다만 가슴속에 격랑처럼 일어번
 지는 크나큰 감동을 안고 뜨거운 눈길로 처녀의
 모습을 오래오래 바라보았을뿐이였소.

그후 청년은 처녀가 졸업론문을 남은 두달동안
 에 완성하도록 어김없는 방조를 주었소. 처녀도
 청년의 그 진심만은 고맙게 받아들였소.

그랬던 처녀였소...
 그렇게 맺어진 우정은 어느새 소중한 감정으로
 자라났고 그 열렬한 감정은 평생 잊을수 없을듯
 이 깊어져갔소. 그런 처녀가 어려운 길을 떠나는

청년에게 바래주는 아량조차 보이지 않았소.
섭섭했소. 노엽고 분하기도 했소. 그제서야 그는 지난날 자기들의 사랑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소.

가슴은 금시 미어지는것 같았소.
(아아, 차라리 잊자, 이제 무슨 미련을 가지랴. 차라리 그를 위해서도 잘되었다.)

처음은 처녀의 소행이 노엽고 섭섭했지만 차츰 흥분이 가라앉자 청년은 리성을 회복하였소.

현장에 도착하자 그는 그 모든 잡념을 잊기 위하여 연구사업에 온 정력을 쏟아부었소. 그 청년을 두고 현장에서는 말이 없는 사람, 웃음이 없는 사람, 일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통용되게 되었소. 그러나 때로 달 밝은 밤에 산촌의 물소리 유정한 밖에 나서면 처녀의 모습이 못견디게 그리워지는 청년이었소. 이런 때면 처녀에게 편지라도 해보고싶은 욕망이 불쑥 솟군했으나 그는 그 충동을 애써 눌러버렸소.

자기때문에 처녀가 생소한 고장에 와서 몸에 배지 않은 생활로 고생하느니 차라리 자기가 미련을 버리는것이 그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스스로 위안했소.

그러던 어느날 뜻밖에도 그에겐 처녀가 보낸 한장의 두툼한 편지가 날아왔소. 그것을 받아드는 순간 청년의 기쁨은 얼마나 컸겠소.

그는 급히 결봉을 뜯고 속지를 꺼냈소. 그러나 편지를 읽어가던 청년의 얼굴에선 점차 웃음이 가셔졌소.

처녀는 먼저 몇마디 안부를 전한 다음 처음부터 불같은 항변으로 설문을 토했소.

〈…강요하지 않으니 결심대로 하라구요? 이것이 동무가 지금껏 나를 사랑한 마음의 전부인가요? 편지를 받은 그날 저는 너무도 분하고 억울해서 자리에서 일어설수 없었어요.

그날에야 비로소 저는 동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왔는가를 똑똑히 깨달았어요.

동무의 눈에 비쳐진 저라는 인간이 뭐겠어요. 비바람만 한번 세차게 불어도 당장 움츠러들고말 연약한 처녀, 온실속의 화초겠지요?…

그래도 저는 동무를 믿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동무만은 나를 믿고 함께 손잡고 난관을 뚫쳐나가자고 할줄 알았어요.

그래 동무가 바라는것이 뭐예요?
시련을 겪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지는 못할망정 그를 질식시키고 꺼꾸러뜨리는것과 같은 비렬한 행위를 하라는건가요?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는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느냐말예요?

때에 따라 마음이 변하고 조건에 따라 사랑을 달리한다면 그게 무슨 인간이예요?!

좋아요. 저는 결코 동무에게 사랑을 구걸하지는 않겠어요. 다시는 이런 편지도 쓰지 않을거예요…)

세찬 걱정과 터져오르는 오열을 씹어삼키며 울면서 썼을 처녀의 눈물로 얼룩진 편지는 비수같은 말마디로 한가득 채워져있었소. 그 말마디들은 청년의 가슴을 사정없이 뒤흔들어놓았소. 그는 어찌하여 처녀가 역으로 나오는 아량조차 보이지 않았던지 그 심정이 똑똑히 깨달아졌소. 그런 처녀를 두고 섭섭해하고 노여워했던 자신이 부끄럽기그지없었소.

청년은 편지를 그러쥐며 신음소리를 내었소. 그것은 자신의 실책이었소. 아직은 처녀를 다 몰랐던탓으로 빚어진 후과였소. 그는 처녀의 항변에 대하여 한마디 변명도 할수 없는 자기라는것을 깨달았소. 그리고 그는 결코 자기의 값싼 동정이나 바라는 연약한 처녀가 아니란것도 깨달았소. 그것을 깨달을수록 그에겐 처녀가 더없이 소중한게 여겨졌고 돋우보는것이였소.

청년은 자책과 사죄로 엮어진 긴 편지를 써서 처녀에게 보냈소.

그러나 처녀에게서는 답장이 없었소. 열흘, 스무날, 한달이 지나도록 그에게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소.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소. 처녀의 냉담하고 비수같은 말마디, 단호하고 결단성있는 선언, 그것은 해빛 따사로운 서재나 불 밝은 수도의 분수못가에서 망막속에 새겨넣었던 처녀의 아련한 모습이 아니였소. 가슴이 아팠소. 처녀는 단호하게 선언한 자기의 말을 실천으로 옮기려는것이 분명하였소.

청년은 피로운대로 마음을 다잡고 모든것을 단념하지 않으면 안되었소.》

한창 고조에 이르렀던 이야기는 복도에서 떠드는 소리에 잠간 끊어졌다. 아마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온 모양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주위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관심을 돌릴만한 정신적여유가 없었다. 그처럼 우리는 지질기사의 이야기에 흠뻑 심취되어있었던것이다.

《그후 편지는 안했는가요?》

박정삼이 참지 못하고 궁금해서 물었다.

《안했소.》하고 지질기사는 빙긋이 웃으며 하던 말을 이어나갔다.

《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 반년이란 세월이 흘러가도록 그들은 서로 소식없이 지냈소.

청년의 모색도 무척 변해갔소. 관지빠가 두드러지고 살갗이 꺼칠해졌고 깊숙한 눈확속에서 은근하게 빛나는 리지적인 두눈만이 이전과 다름없이 정기에 넘쳐있었소.

그러나 연구사업에선 별반 성과가 없었소. 고심어린 탐구의 나날은 밤마다 계속되었소. 방도가 나지 않는 현실앞에서 몇번이고 주저앉았다가도 그를 떠나올 때 다졌던 맹세와 처녀의 편지

를 상기하고는 다시금 일어서군했소. 고심탐구의 세월이 많이도 흘러 그의 연구에서는 또하나의 새 결과가 나타났소. 그러나 그는 두려웠소. 자기 눈앞에 펼쳐진 수자앞에서도 가슴아픈 지난날의 추억으로 모태졌단말이요. 그러다보니 실험도 하루하루 미룬채 안타까운 시간만 보냈단말이요.

이럴 때 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충격을 준 하나의 사변이 일어났소.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합흥전원회의 소식이었소. 그 소식에 접하자 그는 연구사업을 더는 미룰수 없다는 절박감을 통절히 깨달았소. 그것은 당의 요구였소. 그 요구앞에 그의 심장은 불길처럼 타올랐소. 그는 여직 마음속으로만 바재이고있던 새 방법, 최악의 경우를 예견해야 하는 그 방법을 단행해볼 결심을 내렸소. 그것은 하나의 모험이었지만 그것이 성공하면 광석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유용광물들을 갈라낼수 있게 되며 그것으로 얻어지는 유색금속만 해도 하나의 광산을 새로 얻는것이나 다름없는것이였소. 그의 이 결심을 지지하고 도와나선것은 오랜 기능공인 작업반장아바이였소.

그들은 어쩌나 긴장했던지 네시간에 걸친 실험이 끝나자 현훈증을 느끼며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소. 얼마후 정신을 가다듬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실험결과치를 들여다보던 그는 자기 눈을 의심하였소.

광석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희유금속들이 분류되어 나왔소. 그는 터질듯한 기쁨과 환희를 금할수 없었소. 비록 함유량이 80프로밖에 분류해내지 못했지만 성공의 단서는 건어진셈이였소.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소. 너무도 오래동안 찾던것이어서 그는 오히려 의심이 생겼던것이였소.

이런 때에 영영 잊은줄 알았던 정애라는 처녀가 그를 찾아왔소. 현장에서 그를 보자 청년은 흠칫 놀라 엉거주춤 일어섰소.

처녀는 굵높은 까만 가죽구두에 밤빛 의혁가방을 손에 들고 산뜻한 가을철의투를 단정하게 받쳐 입었지만 얼굴만은 웬일인지 무척 피로가 어려있었소. 려로에 지쳐서인지 아니면... 그도 마음만은 편치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얼핏 머리속을 스쳐갔으나 정작 처녀앞에 서자 청년은 까닭모를 울분을 느꼈다.

〈어떻게 왔소?〉

청년은 슬그머니 시선을 피하며 무뚝뚝한 어조로 물었소. 처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소.

〈나는 아직 성과가 없소. 전담도 안담하오.〉

청년은 우야 자기 연구사업의 실패를 절망적으로 표현했소. 주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길로 그들을 지켜보았소.

〈어디 좀 들어가지 않겠어요.〉

처녀는 조용히 일깨우듯 말했소.

청년은 그를 데리고 자기 방으로 갔소. 사무실

청사의 한쪽 구석에 자리잡은 청년의 방은 아늑하였소.

방에 들어서자 청년은 여전히 무뚝뚝한 어조로 거칠게 말했소.

〈가주오. 이곳에 와봐야 기쁠것은 하나두 없소. 사실 난 동무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싶지 않았소.〉

〈먼길을 찾아온 사람에게 이견 너무하지 않아요.〉

처녀는 애써 웃는 표정을 짓고 부드럽게 말했소. 처녀의 아량있는 태도에 청년의 노기는 다소 풀여졌으나 어두운 표정은 여전하였소.

〈그동안 고충이 많았을줄 알아요. 애쓴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될가 해서...〉

처녀는 가방속에서 한편의 책을 꺼내 책상우에 내려놓았소.

청년은 의아해했소. 그리고는 처녀를 다시한번 힐끔 쳐다보고나서 그가 내놓은 공책을 집어들었소. 술한 공식들이 깨알처럼 박혀있는 공책이였소. 그 공식들을 더듬어가던 청년의 눈빛이 대뜸 광채를 띠고 번뜩이기 시작하였소. 마지막 결과치에 이르렀던 청년의 가슴은 터질듯한 환희로 가득 차올랐소. 그 결과는 자기의것과 똑같은것이였소.

그러니 처녀의 그 자료는 청년이 이미 찾아낸 결론이 틀림없다는것을 재삼 확인해주는것이였소.

순간 그는 처녀가 남몰래 바쳤을 고심어린 탐구의 나날들이 충분히 헤아려졌소. 바로 이것을 위해 처녀는 아직 침묵을 지켜왔고 피타는 노력을 아낌없이 바쳤을것이였소.

가슴이 뜨거웠소.

〈그러니 동무는...〉

하고 청년이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처녀는 재빨리 머리를 저으며 속삭였소.

〈아니 아니예요. 이견 전적으로 아버지의 도움이예요. ...참고가 되겠어요?〉

청년은 말없이 처녀를 뚫어지게 지켜보았소. 까칠해진 얼굴, 조갈이 들어 터갈라진 입술... 그것은 말보다 더 많은것을 말해주고있었소.

청년은 천천히 서류함속에서 그 자료와 똑같은 결과치를 꺼내놓았소. 그것을 받아들였던 처녀의 얼굴엔 폭풍같은 환희의 물결이 일어번지었소.

아, 그때 그 얼굴에 어리던 생신하고 발랄하고 크나큰 감동에 찬 기쁨의 감정을 무슨 말로 표현할수 있었겠소. 처녀는 한참이나 그를 지켜보더니 입속으로 속삭이듯 중얼거렸소.

〈찾았됐군요!〉

〈찾았됐군요!...〉

〈찾았소!〉

〈전...전 믿었어요. 이럴줄을 믿었어요!〉

처녀의 눈가엔 끝내 맑은 물기가 펴 어리더니

별안간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며 돌아섰소. 동그스름한 처녀의 두어깨가 가볍게 물결쳤소.

청년은 당황하였소.

〈정애 왜 이러우?〉

한걸음 다가가 처녀의 어깨를 잡아흔들자 처녀는 걱정을 이길수 없는듯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소.

청년은 가슴이 뭉클하였소. 자기때문에 얼마나 속태웠으면 이러라 싶은 생각이 들면서 눈곱이 뜨거웠소.

얼마후에야 청년이 간신히 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속삭였소.

〈그러나 정애,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오.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소, 난관도 수없이 가로놓일거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동무는 꼭 해결거예요!〉

〈그걸 믿소?〉

〈믿지 않구요. 믿지 않는다면 오지부터 앉았을거예요. 전 믿어요!〉

〈...〉

청년은 더 다른 말을 할수가 없었소. 처녀의 대답이 빈말이 아니란것도 잘 알았소. 하마트면 자기는 처녀의 이 마음을 영영 모르코말았을지도 몰랐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았소. 그것은 최악이었소. 실상 믿음에 믿음으로 보답치 못하는것처럼 추하고 너절한 행위는 없는것이요!〉

지질기사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주위가 갑자기 밝아지고 생활이 몇배로 풍만해진것 같은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였다.

침묵은 오래도록 계속되었다. 누구도 입을 열지않았다.

언제나 말머리의 선코를 떼던 박정삼도 이번만은 낮빛이 불길해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고 함흥청년도 고개를 수그린채 말이 없었다.

《쉽지 않는 녀성이군요!》

얼마후에야 내가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그러자 지질기사가 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니 짧은 친구, 내 말이 리해되오?

동무들의 사랑이 진심이였다면 그 녀성은 반드시 동무를 찾아올거요.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는 처녀라면 알겠소? 그는 사랑할만한 가치가 없는 녀성이요.》

《...》

청년은 아무 말이 없었다.

×

그때로부터 몇달이 지났다.

그후에도 나는 몇차례 그곳을 지나다녔다. 그

곳을 지날 때면 나는 려관방에서 들었던 지질기사의 이야기를 가끔 회상하였다. 그리고는 함흥청년의 후일담이 어떻게 결속되었는지 알고싶어졌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시읍을 더 지나 멀리 출장길에서 돌아오고있었다. 려행자는 많았다. 며칠째 긴장한 원고작업으로 밤을 밝혔던 나는 흔들리는 의자등받이에 기대쳐 술곳이 찾아드는 잠에 취해있었다.

차는 어느 한 역에 멎었다가 다시 떠났다. 그릴때 뒤컨에서 외짝 떠드는 소리가 났다.

《어딜 가시오?》

《오, 우리 명식이한테... 그 애가 광산 돌격대인데 이번에 잔치를 한다우. 그래 내 목이 부러지도록 한입 이고 가지.》

《거긴 뭐 없을라구요?》

《있겠지. 그러나 누이가 해주는것과 같은가. 우리 그 새애기가 얼마나 참한지...》

녀인의 떠드는 목소리는 끝이 없을것 같았다. 나는 나의 단잠을 깨친 수다스런 녀인이 대체 어떻게 생긴 녀자일가싶어 고개를 뒤로 돌렸다.

했을 때 나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그 녀자는 려관방에 뛰어들어 우리의 휴식을 방해했던 함흥청년의 누이였다.

그러니 명식이란 그 청년일것이였다.

《처녀는 어디 너잡니까?》

한마디 툭툭히 나무라자고 했던 나는 도리어 녀인의 흥을 부추기게 되었다.

《처녀요?》

하고 나를 힐끗 돌아보았던 녀인은 나의 친절한 관심에 입이 벌어졌다.

《함께 일하는 광산처녀지요.》

《...》

나는 실망하였다. 그들은 영영 헤어지고말았구나!

무언가 배반당한듯한 의분이 솟아올라 나는 그대로 외면해버릴수가 없었다.

《그래 처녀는 광산에서 뭘해요?》

《권양기운전공을 하지요. 본래는 저 함흥에서 상점판매원을 하했는데...》

《함흥이요? 그럼 인숙이란 처녀가 아님니까?》

나는 상반신을 벌떡 일으키며 환희에 넘친 어조로 다급하게 물었다.

녀인이 나를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손님은 우리 인숙일 어떻게 아시우?》

《반갑습니다. 날 모르겠습니까? 지난 가을 아주머니는 시읍 려관에 있는 동생을 찾아왔댔지요? 제가 그때 한방에 있던 손님입니다.》

《아이구머니나! 난 또 누구라구, 그러니 저 지질기사선생하구...》

녀인의 커진 눈은 놀람과 호기심으로 빛났다.

《예, 그때 지질기사선생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선생도 후에 만났댔습니까?》

《만나다니요. 우리 애들의 약혼식때는 그 선생이 주관해서 축하해주었지요. 참 고마운 사람이지요.》

《그렇군요 ! 》

나는 충격이 컸다. 그 지질기사의 사람좋은 너 부족한 모습이 다시금 눈앞에 선히 떠올랐다.

《그래 처녀는 인차 따라왔습니까?》

《동요야 좀 있었지요. 이해할만한 일이 아니시우. 그렇지만 그는 그걸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선 내 죄다 사죄하렵니다. 듣지 못하는 욕도 수태 하고 노염도 샅땀었니까요...》

녀인은 웃었다. 온갖 노염과 시름이 풀린 행복

스런 웃음이었다. 그 웃음을 보며 나는 생각하였다.

우리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우정에 대하여 비록 한때는 곡절이 있고 동요는 있었어도 당이 바라고 당이 요구하는 그길우에서 하나의 의지로 결합되고 활짝 꽃피난 그들의 사랑이었기에 내 가슴은 이렇듯 기쁨에 넘치고 즐거움에 가득차는것이 아닐가.

아, 온갖 속되고 추한것은 버림받고 밝고 깨끗하고 의로운것만이 존대받고 사랑받고 키워지는 사회주의 내 조국 이 품속에서 사는 우리 사람들은 마땅히 누구나 이래야 하는것이다 !

풍년든 함주벌에서

한정규

무르익은 낱알향기에 취해
백학은 하늘높이 춤을 춰도
호합진 이삭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였구나

아득한 함주벌은
그대로 고개숙인 금빛의 바다
억만 이삭의 무게
이 가슴에도 무겁게 실리어
생각도 깊어지는 가을이여 !

안아보자 이삭아 !
그 어느 논두렁 어느 포전길에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이른봄날 다녀가신 그 자욱
아니 새겨진곳 있더냐

서걱이는 얼음밭
질적이는 논두렁을 밟으시며
바다바람 세찬 이 벌에
풍년 종자를 골라주신 그 자욱

수령님 다녀가신곳치고
농사 안되는곳 어데 있느냐고
이 땅에 맞는 종자를 찾아내여
풍년농사를 짓자시던 그날의 그 말씀
이삭마다 스며배 이리도 무거우냐

조용히 올려가는 저 금나락 설레임소리는
그이께서 바다바람에 날리시던

웃자락의 그 펄럭임소리를
잊지 못해 이 벌이 잊지 못해
부르고 부르는 감사의 노래가 아니냐

오 ! 그이께서 그날 골라주신것
어찌 이 벌에 물을 씨앗뿐이었으랴
이 가슴의 빈구석에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불씨
보답없인 살수 없는 전사의 도리를
충성의 씨앗으로 심어주셨거니

물도 그 물
땅도 그 땅
농장원들도 그 농장원들이건만
그이의 높으신 뜻이
가슴에도 벌에도 소중히 뿌리내려
오늘은 이런 만풍년 실렸으니

그 사랑 그 은정 뜨거워
감사의 큰절 올리는
우리의 이 마음 안아
풍년든 함주벌이여
너도 무르익은 이삭의 물결 펼쳐들고
아 ! 머리숙였구나

해와 달이 다하도록
풍년으로 그이를 받들어모실 한마음
이삭처럼 익는
함주벌의 가을이여 !

해 일

박원선

《향산려관》맞은편 골짜기들에는 상기도 푸름한 미명이 감도는데 아스라하게 울려다보이는 수정 봉정수리는 벌써 해빛의 애무를 받아 연보라빛을 뿌리고있었다. 밤새도록 잠들었던 젖빛안개가 파아란 하늘가로 머리를 풀어헤치며 그물그물 피여오르자 산허리의 단풍은 부끄러움을 잘 타는 처녀들의 불같이 점점이 빨간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금빛해살은 이슬머금은 단풍잎새들에 발범발범 내려앉아 수정봉전체를 보석덩어리같이 번쩍거리게 만들어버렸다.

××에서 온 화가 다원치는 새벽풍경을 음미하듯 려관정문앞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한동안 움직일줄 모르던 그는 속사철과 받침대를 들고 이슬이 굴러내리는 전나무밑의 긴의자로 걸어갔다. 그는 또 같은 모양으로 의자옆에 서서 수정봉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드디어 결심을 내린듯 의자에 앉더니 화판을 펼쳐놓고 풍경을 속사하기 시작했다.

성긴 하얀 머리카락이 조골조골한 그의 불에 흘러내려 흐느적거렸다. 뽀족한 턱과 그우에 의무감에 떠밀리어 돌아오른것 같은 노르끼리한 수염 여러문대, 피골이 상접한 손등과 그자신이 쥐고 있는 연필대같이 가늘고 긴 손가락들이 한생을 그림으로 늙어온 사람임을 쉽게 알아보게 하였다.

하지만 그의 갈색눈만은 청춘의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다.

화판에 물결을 일으키며 달리던 그의 손은 문득 멈춰섰다. 해빛이 화판에 와닿은것이였다.

려관에 든 손님들이 밀려나와 자기나름의 탐승길로 차들을 달려갔다. 다원치는 그에 개의치 않았다. 속사철에서 수정봉으로 수정봉에서 속사철으로 눈길은 자기 세계의 그 한푼을 따라 오고갔다. 마치 주어진 소재를 규격대로 깎아나가는 선반기와 같이...

골안을 감돌던 안개도 가뭇없이 사라지고 나무잎새들에 맺힌 이슬방울마다엔 해빛이 령롱하였다.

어느덧 속사를 끝낸 다원치는 팔목을 들어 시계를 보더니 화판을 접으며 송형준이 기다리고있는 강가로 향했다.

그런데 기다리고있을줄 알았던 송형준이 어디에도 없었다.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던 그는 너럭바위우에 놓인 송형준의 화판을 발견했다. 그러나 다원치가 담배 한대를 거의 다 태울무렵까

지도 형준은 나타나지 않았다.

(혹시 나를 찾아 려관으로?)하는 생각을 하며 그가 려관쪽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저쪽 산굽인돌이에서 송형준이 불쑥 나타났다.

《다원치선생, 미안합니다.》

송형준이 크게 웨치대며 활달한 걸음걸이로 다가왔다.

다원치는 자신이 인차 오지 못하여 찾으려 려관으로 갔는가 했다며 의아한 눈으로 형준을 보았다.

형준의 바지가랭이가 축축히 젖어있었다.

《예-에 이슬때문에.》

《부장선생은 어딜...옷을 마치며.》

형준은 산굽이쪽을 가리키더니 웃으며 이야기를 하였다.

《작년봄에 이곳 중학생들과 같이 심은 잣나무가 있답니다. 그게 잘 자라는지 해서. 그런데 모두 살아났더군요. 기뻐서 나무밑에 돋은 풀들을 뽑다가...》

형준은 아직도 손에 들고있는 풀대들을 보이였다.

《아, 선생, 손이 말이 아닙니다. 장난 세찬 아이들같이.》

다원치가 풀물이 파랗게 든 형준의 손바닥을 보며 유쾌하게 웃었다.

《산에 오면 난 언제나 아이들 마음이랍니다. 이제 한5년만 지나면 저기서 잣열매가 쏟아질텐데 이까짓 풀물이야, 자 갑시다.》

형준은 너럭바위우에 화판을 접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두사람은 일정계획대로 인호대를 향해 길을 떠났다.

그들이 상원동골짜기에 들어서니 탐승객들의 대렬이 길이 미여지게 흘러가고있었다.

옥계수 흘러내리는 골짜기의 오솔길 좌우에선 조릿대가 청소한 일사귀를 펼치고 바지가랭이에 매달려 어리광부리고 계곡에는 물이라기보다 푸른진주 흰 진주알들이 미끄러져내리며 사람들을 유혹한다.

파아란 하늘을 배경으로 적황색의 단풍이 황황타오르고 잣나무, 소나무, 가문비, 물황철은 바위틈사이에 요술사처럼 비집고서서 영원한 청춘을 자랑하듯이 가을바람에 어깨춤을 춘다.

보라빛 기암괴석들과 회백색의 너럭바위들, 명주필을 베여드리운듯 곳곳에서 하늘을 가르며 날아내리는 폭포들이 웨치며 화답하며 황홀경을 펼

치었는데 건들건들 골바람이 머루, 다래 익는 들크무레한 냄새까지 실어다 함함이 뿌린다.

다윈치는 어리벙벙하여 자옥을 내짚지 못하고 빙글빙글 선자리에서 맴돌았다.

《어느 풍경을 화폭에 옮길지… 이건 신비경입니다.》

형준도 감개무량하여 허리에 손을 걸고 웃으며 말했다.

《명산들을 다 돌아보구 어느 하나를 골라잡으시지요.》

《자연의 이 색깔, 이 음향, 이 향기를 한꺼번에 화폭에 담을수 없는것이 한스럽습니다. 차라리 산중의 한덩이 돌이 되어 저 봉우리에 얹혀지는게 어떨지. 허허.》

두사람은 너럭바위우에 앉아 그림을 한장씩 그리고 여러개의 허궁다리를 건너 가독나무들이 짙들어선 평평한 둔덕에 이르렀다.

숲속에서 왁자지껄하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애, 순호, 그건 바꿔야겠어. 색이 바랬다.》

《그래. 화가선생님이 만든것으로 바꾸자꾸나.》

이어 망치질소리가 산울림을 하며 울렸다.

《무슨 아이들이 이렇게 ? …》

다윈치가 형준에게 물었다.

《학생들이 산을 가꾸러 나온가 봅니다.》

형준이 이렇게 대답하며 아이들의 목소리에 이끌리듯 숲속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이 형준을 부르며 반기었다.

《애들아, 외국에서 오신 화가선생이시다. 인사를 하여라.》

다윈치는 아이들의 인사를 받으며 그들이 들고 있는 새통에 눈길을 보냈다.

《이건 뭇하는겁니까?》

《새집입니다.》

《봄에 더 고운 목소리로 노래부르게 하려고요.》

《집트락도 아닌데 새집을 달아준단말이지.》

다윈치는 속눈썹이 화살촉같은 아이가 들고있는 나무통을 만져보았다.

《이건 화가선생님이 만든건데 2층 <아파트>랍니다.》

한 아이가 머루알같이 까만눈을 반짝이며 신명나서 말했다.

다윈치는 송형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 저쪽 큰 나무아래서 새통을 달아매는 아이들의 일손을 거들어주고있었다.

(어제 아침에 그림을 그리러 학교쪽으로 간다고하더니 어느사이 아이들과 섞들려 새통까지 만들었는지.)

다윈치가 이런 생각을 좇고있는데 나무우에 올라가앉은 아이가 까르르 웃더니 형준을 향해 재갈거렸다.

《이 새통안엔 깃털이 그냥 있어요. 막 따듯하

네.》

《그래두 내려보내라. 색칠두 벗겨졌는데.》

《새가 그걸 아나요뭘.》

《어, 이녀석 봐라, 새들도 사물을 원색대루 본단다. 옛다 이걸 걸어라. 깃털은 옮겨넣어주구.》

파란 락카칠을 한 새통을 섬겨주는 송형준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어려있는듯하였다. 형준과 아이의 다정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다윈치는 그에게로 다가갔다. 다윈치가 가닿았을 때에는 형준은 벌써 새통을 매다는 일을 끝내고 산꼭대기에서 장마때 굴러내려온듯한 돌들을 줄을 맞추어 쌓고있었다.

다윈치는 유원지관리원처럼 알심있게 일하고있는 형준에게 《선생이야 화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아침부터 돌과 씨름을…》하며 말끝을 흐리었다.

《그냥 지나게 되지 않아서, 거진 됐습니다.》

형준은 허리를 펴며 너부죽한 얼굴에 웃음을 담았다.

두사람이 다시 길을 떠나려고 할 때였다.

《곰이다. 곰 !》하는 아이들의 쩡쩡하고 다급한 웨침이 저쪽 숲속에서 들려왔다. 그들은 머리를 숙구어 그쪽을 바라보았다. 커다란 갈색곰이 도토리나무우에 틀고앉아 열매를 따먹고있는것이였다.

다윈치의 눈이 광채를 띠고 번쩍이였다. 다윈치는 어느사이 화판을 펼쳐들더니 곰을 속사하기 시작하였다.

《뭘 그까짓 곰까지 그리십니까.》

형준이 빙그레 웃으며 하는 소리였다.

《저런 희한한 풍경이 흔히 뵈니까. 난 누구나 볼수 있는 풍경을 그리는데 좋아안합니다. 살에 박힌 입묵처럼 인상에 박혀서 진한 흥미를 줄수 있는 풍경이라야 그럴맛이 …》

다윈치는 연필대 쥔 손을 흔들며 말하고나서 다시 화판에 머리를 숙이고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렸다.

아이들이 몰려와서 그림을 들여다보며 종알거리기 시작하였다. 어떤 애들은 새까만 머루송이며 말큰말큰한 다래를 따가지고 와서 두사람에게 내밀었다. 노란 다래알을 받아 깨무는 다윈치의 주름잡힌 눈가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여있었다.

《애들아, 고맙다, 고마와. 너희들때문에 좋은 그림두 그리고 산열매두 맛보구, 즐겁기만 하구나.》

다윈치는 옆에 와앉아 다래를 권하며 고개를 가웃하고 그림을 들여다보던 속눈썹이 화살촉같은 아이의 어깨를 꼭 껴안아주었다.

《선생님, 좋은 그림 많이 그리십시오.》

고개를 끄덕거리는 다윈치의 얼굴에도 아이들의 어린 볼에도 단풍이 타는듯하였다. 아이들과 헤어진 그들은 골짜기를 따라 산을 올라갔다.

손수건을 담그면 금시 초록물이 들것 같은 령

주담물결엔 깎아세운듯한 돌기둥들이 단풍을 안고 거꾸로 들어섰는데 담가녀 너럭바위우에 화가들이 앉아 그림을 그리고있었다.

채색중인 조선화를 들여다보며 다윈치가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아, 조선화가 아닙니까. 본일이 있습니다. 독특한 기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에 고유한 그림수법입니다. 지난 시기에는 먹선만을 쓴 〈수묵화〉를 주로 그렸지만 오늘은 이렇게 시대의 미감에 맞게 채색화를 활발히 창작하고있습니다.》

화가 한사람이 물통에서 꺼낸 붓의 물기를 털어 다윈치앞에 내보이며 설명을 하였다.

《간결하구 섬세하구 그러면서도 힘이 있고… 조선화의 특징을 이렇게 말할수 있겠습니까?》

다윈치가 그림을 들여다보며 하는 소리였다.

화가들은 그가 조선화의 특징을 정확히 이야기하였다고 입들을 모았다.

《산정기까지 옮겨진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완성하면 얼마나 받을것 같습니까?》 하고 다윈치는 물었다.

화가들은 서로들 마주볼뿐 대답을 안했다. 한참만에 물가녘에 바투 나가 앉아 붓을 씻던 젊은 화가가 다윈치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며 《돈말입니까?》 하고 반문했다.

《그려보야 알겠다는 말씀일테지요.》

화가들은 허구프게 웃었다.

그들의 웃음을 제나름대로 해석한 다윈치도 따라웃으며 말을 이었다.

《조선속담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그럴바엔 명작으로 완성하십시오. 아마 값이 경충 오를게구 명에는 또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나도 조선에 와서 두번째 명작을 내보려고 합니다.》

다윈치는 발치에 날아내린 빨간 단풍잎사귀를 집어들고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열맥을 주르르 훑었다. 한참만에 다윈치는 눈귀를 쪼프리며 회심에 젖어 이야기를 계속했다.

《예술가치고 후세에 길이 전해질 창작품을 내놓고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당신들도 포함해서말입니다.》

다윈치는 담배 한가치를 뽑아물었다.

《나도 조선의 풍경을 담은 명작을 내려고 합니다. 나의 두번째 명작으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명작을 이미 냈는지 좀…》

화가 한사람이 호기심을 가지고 물었다.

《〈해일〉이라는 풍경화입니다.》

다윈치는 질문이 있으리라고 예견하고있었던것처럼 인차 대답하고나서 담배연기를 맛나게 빨아들이었다.

《더 늙기전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작을 남겨보려고 고심하고있던 때였는데 그때 미술공예품상사의 간절한 청탁도 있었습니다. 기억과 추억

의 언덕들을 넘으며 전해질 대풍경, 매혹적인 화폭을 그릴수만 있다면 이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가볼 생각이었지요. 여생의 기력을 깡그리 모아서말입니다.그러던 어느날 가을이였습니다. 거리에 나갔다가 나는 X 섬부근 바다밑에서 화산이 분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해일이 일어날것이라는 희한한 소식을 얻어듣게 되었습니다.…》

…화산연구소 배는 만속으로 내달렸다. 해일을 피해 항구로 들어오는 어선들의 갑판우에 사람들이 하얗게 붙어서서 무엇인가 비끄러매며 헤엄치는것이 바라보였다. 다윈치는 공포심보다 해일을 곧 보게 되리라는 일종의 호기심이 온몸을 사로잡음을 느꼈다. 그는 화관을 둘러매고 선실을 나와 갑판으로 뛰어올라왔다. 바다는 조는듯 아직은 태평스러이 굼닐고있었다. 그는 벌침대를 퍼세우고 그우에 화관을 올려놓으며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대자연의 룡트림을 제때에 그려야 한다.)

다윈치는 마음의 허리띠를 든든히 조이며 주머니에서 담배 한가치를 뽑아물었다. 그가 라이타를 꺼내려는 그 찰나 연구사친우가 갑판으로 뛰어올라와 다짜고짜 팔을 부여잡았다.

《자네 정신나갔소 ! 당장 폭발이 있겠다는데 빨리 선실로.》

《여보게, 내가 무엇을 찾아 예까지 왔는지 모르나.》

그때였다. 《우르릉 쿵쿵》하는 웅글은 폭발소리가 고즈넉한 정적이 깃들었던 바다우를 누비며 수평선 저쪽에서 들려왔다. 둘은 와들 놀라 서로의 팔을 마주쥐고 소리나는 쪽으로 낮을 돌렸다.

《빨리, 다윈치 !》

친우는 화관을 나꿔채듯 집어들고 다윈치를 잡아끌었다.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던 기관선이 섬기슭에 와닿았다. 연구사는 다윈치를 앞세우고 기슭에 뛰어들었다. 선장과 기관장만이 배에 남았다.

《섬봉우리로 오르시오. 곧 해일이 밀려올거요.》

두사람은 배악을 내던지더니 기슭가까이에 선로송밀등에 비끌어매었다.

다윈치는 연구사들을 따라 섬마루를 향해 올러걸었다. 마루를 50메터쯤 눈앞에 두었는데 누군가 《밀려온다》 하고 웨쳤다. 모두들 그자리에 주저앉아 바다쪽을 내다보았다.

《썩-아》 천군만마의 울부짖음소리를 앞세우고 산악같은 파도가 섬쪽으로 몰려왔다.

《앗 저기 배들이.》

여러척의 어선이 해일마루에 등실 뗏다가 나락같이 깊은 파도골짜기아래로 돌덩이처럼 허공떨어져 태질을 했다. 갑판에 서서 웨치는듯하던 사람들이 파도 갈구리에 걸려 사라졌다. 숨박꼭질하듯 물마루에 앉았다 물끓에 박혔다하던 두 배가 맞부딪쳐 산산조각이 났다. 파도소리가 천지

를 진감하니 배들이 맞부딪치는 소리조차 들을 길 없었다. 해일은 섬기슭을 날아넘고 산중턱까지 기여올라와서는 술한 나무들을 뿌리채 뽑아가지고 나갔다.

《우리 배가 끌려나간다.》

연구사친우의 웨침소리가 다윈치가 선 산아래에서 비명처럼 들려왔다. 공포가 서린 눈길들이 자맥질하듯 나타났다 사라졌다하는 기관선을 찾아 물속을 더듬었다. 기관선도 로송도 영영 사라졌다. 《인젠 끝장인가》 누군가 무릎을 철석 같기며 통탄했다. 그러나 다윈치는 리성을 잃지 않았다.

(이것이다. 광란하는 해일의 기상을 그려야 한다.)

기관선이 파도에 먹히웠으니 돌아갈 길이 막히웠다는 걱정같은것은 그의 안중에 없었다. 애오라지 해일의 기상만이 그의 심장을 세팔게 틀어잡고있었다.

다윈치는 무릎우에 화판을 올려놓고 거대한 자연의 조화를 속사하기 시작했다. 물 물...온통 물 천지 온통 물소리다. 하늘과 바다가 한덩어리가 되어 안고 뒹군다. 아득한 하늘끝까지 올리솟아 세상을 굽어볼듯 같기를 날리며 일어서는 물기둥, 쪼각난 배들, 암초우에 튀어오르는 널쭌자들...

한낮부터는 뜨끈뜨끈한 흠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다윈치는 방수포속에 몸을 웅송그리고 들어앉아 광란하는 해일의 기상을 눈에 새기고 또 새기였다. 당장 채색할수 없는것이 안타까웠다. 흠비가 떨어야겠는데 어쩔수 없었다.

연구사들의 무선기가 연구소와 계속되어 헬리콥터를 보낸다는 희소식을 사람들의 컴컴한 가슴에 던져주었다...

다윈치는 말을 끊고 불이 꺼진 담배에 다시 불을 붙여서는 가뜩이나 움푹 패인 불이 아예 맞도록 연기를 들이빨았다. 그의 얼굴엔 포부와 희망을 실현한 사람들에게서만이 볼수 있는 궁지와 희열이 차넘치고있었다.

《여기에서 보는것모두가 절경이니 명작을 만들 욕심이 동합니다. 조선에 오기를 내 참 잘했다는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러노라면 만수대예술단 공연을 본것이 나에게 천행이었다는것두 돌이켜보게 되구... 좀 거북스런 이야기입니다만 난 원래 우리 나라 예술수준을 앞선 나라는 없는것으로 자부하고있던 사람입니다.

나의 집안태력을 보더라도 대를 이으며 미술을 해오는 가문이니깐요. 〈최후의 만찬〉이나 〈몬나리자〉를 알테지요. 그와 못지않는 명작들을 낸 가문이지요.》

《레오나르도 다윈치의 작품말입니까?》

젊은 화가가 다윈치의 말을 받았다.

《...귀국예술단의 공연이 나의 자존심을 뒤흔들었습니다. 조선인민의 광란적인 생활과 예술적기교 특히 무대미술이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저로

록 아름다운 산천이 있었는가) 선뜻 믿어지지 않았구 믿지 않을수도 없었습니다. 실상 조선은 나에게 미지의 세계였었으니깐요. 그러나 그때부터 동방의 조선에 한번 가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동양풍경을 그려 〈해일〉에 찍지않는 명작을 또하나 내보고싶었습니다.》

화가들은 담우에 새겨지는 잔물결우에 날아내려 빙글빙글 돌아가는 빨강고 노란 단풍잎사귀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늘그막에나마 조선을 찾아왔길래 명작을 또하나 낼수 있게 됐으니말입니다.》

다리를 펴고앉아 말하는 다윈치를 형준은 실눈을 해가지고 바라보았다.

그의 길고 흰 머리카락은 이마전에서 흐느적거리고 갈색눈에서는 20대청년들의 열정과 생기가 뿜겨나오는듯하였다.

어제저녁 산에서 도토리를 따먹는 고품과 인호대 폭포를 속사하고 려관에 돌아왔을 때도 기분에 들떠 어쩔줄 모르던 다윈치였다.

다윈치는 방에 들어서기 바쁘게 본국에 있는 미술공예품상사에 장거리전화를 걸었다.

《사장선생님입니다. 나 다윈칩니다. 지금 조선의 묘향산에서... 예 건강합니다 〈해일〉 못지않은 작품을 낼수 있을것 같아서... 예예, 선생과 미리 판매계약을 하려구... 예? 믿어도 좋습니다. 두달 후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럼요. 또한번 쉼세이션이라구요. 그럼 안녕히, 고맙습니다.》

전화를 끝내고 난 다윈치는 희색이 만면하여 줄담배를 태우며 방안을 거닐었다.

형준은 다윈치를 바라보며 새삼스럽게 창작가의 기쁨과 행복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창작, 그것은 열정의 산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윈치의 불타오르는듯한 열정은 귀중한것이며 로인의 열정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것이였다. 뜨거운 열정의 분출로 이루어질 명작과 더불어 후세에 길이 전해질 화가 다윈치의 이름, 다윈치는 명예를 빛내이는 거기에 자신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있는것이 아닌가.

다윈치는 형준의 마음속물음에 대답이라도 하듯 흥에 겨워 어깨를 으쓱거리며 이야기를 계속하고있었다.

×

며칠후 다윈치와 송형준은 법왕봉에 올라앉아 다리침을 하였다. 그들이 앉은 자리에선 향산천 계곡과 향산읍은 물론 청천강이 손금처럼 내려다보였다.

《파시 장관입니다. 귀국을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말이 뜻이 있었군요.》

담배를 피워물고 강이 어슴푸레 사라진 거기엔 눈길을 보내던 형준은 다윈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처럼 이윽도록 말이 없었다.

다윈치는 화판을 펼쳐놓고 그림을 그리려 하였으나 형준은 까딱하지 않고 앉아 띠를 풀어 늘인 것 같은 강과 조선식기와집들이 꼭 들어선 읍거리, 감졌다풀렸다하며 산굽이를 에돌아 뻗어나간 향산천을 바라보며 사색에 몰혀있었다.

한참이나 그림을 그리던 다윈치는 그러는 형준이가 이상했던지 무슨 일인가고 물었다.

형준은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다윈치 쪽으로 돌아앉았다.

《마음속으로 그림을요. 하하, 참 송선생이 사람을 웃기는구려.》

고개를 젓히고 유쾌하게 웃는 늙은이의 그 모습에 우스워 형준도 덩달아 웃었다.

《난 사실 여기 내려올 때 과제를 하나 받게 있습니다. 평양에 지금 새로운 예술극장을 하나 건설하고있습니다. 극장 무대막그림으로 묘향산 전경을 넣기로 했는데 이제 올라가면 구도를 토론해야 합니다. 그래서 ...》

《그랬었구만. 선생의 재능을 한번 시위하게 될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잘해보십시오. 일전에 화가들을 만났을 때에도 이야기했었지만 나의 〈해일〉을 미술공예품상사에서 인쇄하여 판다기에 상사매장으로 가겠습니다. 마누라와 조각을 하는 말아들을 데리구.》

...상사매대에는 벌등지를 쭈서놓은것 같았다. 《해일》의 원작은 금빛액틀속에 싸여 방한가운데에 걸렸는데 상점안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시선은 곧 거기에 끌리게 되어있었다.

하늘을 치받을듯 올리솟는 물기둥과 성난 사자 무리와 같이 섬의 기슭을 향해 내닫는 파도이랑들을 보노라면 와 하는 울부짖음이 터져나올것 같았다.

《명 화가가 다르구만. 파도복판에 뛰여든것 같지않소?》

《아유, 난 막 숨이... 파도가 덮칠것 같아서.》

중년의 신사와 그의 부인인듯한 녀인이 하는 말이였다.

《아버지, 저 부인은 심장이 약한가봅니다.》

아들이 다윈치에게 하는 소리였으나 그는 아들의 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대답은 않고 머리를 버릇처럼 끄덕거리며 그림을 사느라고 벽적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갈수록 상점안은 더욱 붐비였다.

《여보, 마누라, 자동차시장으로 갑시다.》 마누라는 웬 영문인가 하여 마른 나무이파리같은령감의 얼굴을 뻘히 쳐다보았다.

《저 애 승용차를 하나 사주자구요.》

시장에는 갖가지 형태와 크기의 차들이 줄을 지어 서있었다.

《마음드는걸 골라잡아라. 아버지의 일생에서 더없이 기쁜날인데.》

다윈치가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아들에게 하는

소리였다.

한식경이 걸려서 아들은 서독제 벤즈200형을 골라잡았다.

세사람은 바다가를 끼고 뻗은 고속도로로 차를 달렸다. 늦은 가을의 쌀쌀한 바람이 차창으로 흘러들어왔다. 바다는 쪽빛으로 물들어 설렘있고 길가의 감나무아지에 주렁진 감알들은 꽃송이마냥 그들을 보고 웃음지었으며 누렇게 황이 든 잔디밭은 주단처럼 끝없이 펼쳐져있었다. 승용차는 세사람의 뜨거운 열기를 날개로 삼은듯 경쾌하게 미끄러져갔다. ...

다윈치가 형준에게 말을 건넸다.

《그래 선생은 그걸 완성하면 어떤 명예칭호라도...》

《글쎄요... 난 사실 그런건 미처 생각해보지 못...》

형준은 말끝을 여물구지 못하고 애매하게 대꾸하면서 히죽이 웃었다.

《부락을 받았으니 그린다는겁니까. 선생이야 이름난 화가가 아닙니까?》

다윈치는 이상한듯 고개를 기웃거렸다.

《그럼 형준선생은 재능있는 화가로서 명예에 대하여 생각해본적이 없단말입니까?》

동안이 지나서 형준의 입에서는 갈린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명예요... 재능이라는게, 물론 나에게 재능이 있다고 칠 때 말입니다만 그 무슨 천성적인것이 아니라고 난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물려준 유산 두 아니구요. 나의 부모들이 내게 물려준 유산이라는건 두주먹밖에 없었지요. 머슴군이였습니다. ...인민이 그림을 좋다고 하면 거기에서 난 행복과 보람을 느끼곤할뿐입니다.》

형준의 눈앞에는 이제는 아득한 옛일로 되어버린 자신의 어제날이 토막토막 되살아왔다. 지주 집 소를 물고 꼴을 먹이려 갔다가 땅우에 꼬챙이로 그림그리는 재미에 늦게 돌아와 지주놈에게 매를 맞던 일이며 중학교에 다니는 지주아들놈이 그리는 그림을 들여다보다가 연필에 판자노리를 찢리던일, 열네살되던해 해방을 맞고 학교에 가게 되고 미술학원을 거쳐 미술대학생이 되던 일...

다윈치는 눈을 쪼프리고 형준을 쳐다보았다. 반나마 벗어진 이마밑에선 굵다랗고 시꺼먼 눈썹이 꿈틀거렸고 언제나 인상좋은 너무적한 얼굴이 범접하기 어려울만치 근엄한 기색이 어려있었다. 말없이 청천강이 사라진 아득한 먼곳에 시선을 보내던 형준은 무거운 철문을 열듯 두툼한 입을 지 않고 공부하던 이야기며 미체가 전쟁을 일으키자 전선에 나가던 일, 전쟁도중 소환되어 다시 대학에서 공부하던 일들을 들려주었다.

다윈치는 연필대를 매만지기도 하고 형준의 판자노리에 새겨진 허물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생각

을 굴러보았다. 말끝마다 인민이라는 표현을 붙이는데 그것이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있기에 명예도 그를 위해 바치는데 있다고 하는지 알수가 없었다. 이미 공훈예술가가 된 사람이래서 명예는 더 바랄것이 없다는 소리가 아닌지...

다원치는 더 길게 생각해볼것이 없다고 단정하고는 인민이 좋아하는 그림은 어떤것인가고 형준에게 물었다.

자기생각에 묻혀 담배를 피우던 형준은 다원치의 물음에 조용히 대답하였다.

《세상의 부를 만들어내는 근로인민의 창조적 노동과 생활, 그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그들의 지향을 화폭에 담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비위에 맞게말입니다.》

다원치는 잠자코 이야기를 듣고있다가 좋은 구도를 잡기 바란다고 하면서 불영대쪽으로 내려갔다. 오솔길을 걸어가는 다원치의 생각은 번거로웠다.

그의 말들이 여전히 리해가 되지 않았고 자기는으로 보기까지는 했지만 아이들까지 산을 가꾼다는 소리도 난생처음 들어보는것이였다. 며칠전

약초캐는 로인을 만났을 때에도 돈 소리를 꺼내자 허구프게 웃기만 하였었다. 그 늙은이가 명예를 위해 일하는것은 아닐텐데.

다원치는 이 나라 사람들이 즐겨쓰는 인민이요, 자연이요, 마음이요 하는 말의 의미를 터득해보려고 애를 썼으나 모든것이 실꾸리처럼 험클어지는것만 같았다.

× ×

다음날도 형준은 다원치와 함께 산으로 향하였다. 다원치는 어제 시작한 부감도를 마저 완성하여야 하였고 형준은 무대막그림에 필요한 속사를 더해야 하였다.

그들이 오솔길을 따라 한참이나 산을 오르다가 샘물터에 이르렀을 때였다. 맑은편 숲속에서 삭정이와 락엽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둘은 숲속을 바라보았다. 키가 흰칠하고 백발을 보기 좋게 기른 한 늙은이가 어깨에 다래끼를 메고 그들이 서있는 길쪽을 향해 오고있었다. 가까이 다가오는 로인을 유심히 바라보던 형준이 환성을 지르며 그에게로 마주갔다.

《아바이, 그새 편안하십니까?》

《아니 이거 송선생이 참 오래간만이구만. 그런데 저 외국로인과 함께 오셨소?》

두사람이 이말저말 하며 길우에 올라서는데 다원치도 반기며 로인에게 다가왔다. 형준이 두 로인을 인사시키려 하자 다원치는 빙긋이 웃으며 《또 만났습니다. 로인장.》 하며 로인의 손을 마주 잡았다.

형준은 로인의 말을 듣고서야 며칠전 편주담에서 화가들을 만난 다음날에 두 로인이 산판에서 우연히 만났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로인장, 먼저번에 두봉확이야기랑 불영대의 력사이야기랑 참 재미나게 들었습니다.》

《뭘 이야기할줄 몰라서...》

《아닙니다. 얼마나 흥미있던지 허허... 그런데 오늘도 아침 일찍 산을 오르셨으니 고향에 고달프시겠습니까.》

《고달프다니요. 하고싶어하는 신선놀음인데요.》

로인은 다래끼를 벗어 나무의자에 놓고 의자끝에 얹어놓은 쪽박을 들어서 샘물을 퍼서는 다원치앞에 내밀었다.

《산삼 씻어내린 불로삼이웨다. 쪽 마시십시오.》

그들은 샘물을 한쪽박씩 마시고 의자에 앉아 땀을 들인다음 산마루로 올라갔다.

산마루에 이른 로인은 다원치의 팔을 잡아 두봉화꽃밭옆에 만들어놓은 나무의자에 앉혀놓고 담배를 꺼내여 다원치에게 권하고 자신도 한대 뽑아물었다. 한동안 담배를 태우며 송형준과 로인은 서로의 가정안부를 물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님, 인젠 좀 설겜 그러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이 넘은지도 10년이 지났는데.》

형준이가 이러자 로인은 《거 무슨 섭섭한 소릴... 일을 놓으라는건 죽으라는 소리나 같은거지요. 평생 로동으로 살아온 낸데.》 하며 짐짓 노여운 표정을 지었다.

다원치가 로인에게 《70이 적은 나입니까 옳은 말씀같습니다. 그런데 뭇때문에 그토록 늙은 나이에...》 하며 의문이 가득 실린 눈으로 로인을 바라보았다.

《산이 젊어지구 사람들이 젊어지지 않습니다.》

로인은 짜리바구니에서 머루송이를 한웅큼 꺼내며 고개를 기웃거리는 다원치와 여전히 미소를 머금고 서있는 형준에게 권하고 마치 옛말이라도 하듯이 답답이 이야기를 꺼냈다.

《선생님, 이 산엔 나무와 초본식물만해도 수백종이나 있습니다. 그 귀한 보배를 내 손으로 가꾸고있으니 그제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우리 할아버지는 나무에 치워 돌아가시구 아버지는 돌에 깔려 돌아가셨지요. 나도 열세살부터 돌을 쪼아냈구 내 아들들도 응석부릴 나이때부터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돌가루 범벅이 되구 피가 엉킨 우리네 손을 쓸어만져주는 사람은 없었지요. 기침이 나두 이 산에 흔한 도라지 한뿌리, 오미자 한송이 쓸수가 없었지요. 가꾸재두 가꿀 나무, 가꿀 꽃이 없었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신 그때부터 짐승같이 살던 우리 식구들두 값에 들구 사람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산두, 강두, 하늘두 모든게 우리의 것, 인민의것이 되었지요.》

로인은 새 담배가치를 꺼내여 불을 붙여물더니 의자에서 일어서서 하비로골짜기쪽을 가리켰다.

《저기가 하비로라는 골짜기입니다. 바로 저 골짜기막바지 폭포부근의 땅밑에는 큰 금광맥이 묻

혀있지요.》

《금광맥이요? !...》 다윈치는 놀라며 물었다. 《물론 개발할만한 가치가 있는거겠지요? 가치가 큰가말입니다.》

《크다마다요.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묘향산의 아름다운 풍치를 그대로 보존하여 인민들이 즐기며 휴식할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 술한 금을 그대로 묻어두도록 하시었지요.》

다윈치는 무릎우에 올려놓았던 화판을 들어 땅에 놓더니 천천히 일어서서 로인이 가리키던 골짜기에 눈길을 보내며 혼자말로 웅얼거리었다. 《수만 톤의 금을 그냥 묻어두었다는말이지요. 인민을 위해서...》

형준이 다윈치옆에 다가가 소년단야영소머 건물들을 손질해보이며 낮으나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수령님께서 이곳을 여러번 찾으시여 험한 벼랑길을 걸으시였습니다. 산세가 험한데는 발흠도 파고 안전최졸도 늘이구 줄다리도 놓으라고 자리까지 찍어주시었습니다. 지어 아까 마시던 산중턱의 샘물터에 쪽박도 띄워놓고 의자도 만들어놓아 등산객들이 리용하게 하라고 일러주시었습니다.》

로인이 형준의 말을 이었다.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길가의 조약돌 하나라도 무심히 대할수가 없습니다. 늙었다구 육신이 성해가지구 가만 있을수도 없구요. 거저 우리 수령님의 마음속엔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차있으니 우리가 보답해야 할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산에서 떠날수가 없습니다.》

다윈치는 감동에 젖은 갈색눈으로 로인을 바라보더니 알պ한 손으로 굳은살이 박힌 로인의 커다란 손을 잡고 흔들었다.

《로인장, 늙지 마십시오.》

《늙다니요. 산천이 나날이 젊어지는데... 선생, 좋은 그림을 많이 그려가지구 가시우.》

다윈치와 송형준 그리고 로인은 산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제각기 자기 일들을 하였다.

저녁녘이 되면서부터 골짜기아래서 광풍이 휘회 불어오더니 하늘이 흐리기 시작하였다.

《저녁에 비가 오겠다구 하더니...얼른 내려가야 할가 봅니다.》

형준이 근심이 비낀 얼굴로 다윈치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들은 걸음을 다우쳤다.

두사람이 산중턱을 내릴 때에는 후둑후둑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또 얼마를 걸어 길가의 단풍나무근방에 이르렀을 때였다. 나무주위에 아이들 여라문명이 돌아가며 벅적거리고있었다. 그들은 나무밑으로 다가갔다. 며칠전 도토리나무 숲속에서 만났던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받침대들을 단풍나무주위에 세우고 노끈으로 쟁쟁 동여매고있었다. 눈썹이 화살촉같은 아이가 먼저 형준

을 발견하고 《선생님, 바람에 나무가 무사해야겠는데. 올봄에 우리가 산에서 옮겨온거랍니다.》 하더니 다람쥐처럼 나무우로 기어올라가 받침대 끝을 나무줄기에 동여매기 시작했다.

받침대 그루터기를 돌로 두드리던 아이가 형준에게 걱정스럽게 한마디 했다.

《이제 빌 맞으면 단풍잎이 다 떨어지겠는데 참 아까와요. 솔잎처럼 장참 붙어있었으면 좋겠는데. 》

《형, 나무에 비웃 입혀주자. 이거.》

인민학교 1학년생쯤 되였을 아이가 단풍잎 걱정을 하던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며 자기가 쓰고 있던 빨간 비옷을 벗어서 내밀었다.

그바람에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다.

다윈치는 가슴속에 무언가 쿵 하고 마쳐오고 뒤이어 그것이 와르르 허물어지는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한그루의 단풍나무가 뿔이기에 저 애들이...이 묘향산의 수호신이거나 한것처럼, 비를 맞으며.)

다윈치는 아이들이 봄비는 모습을 녀없이 바라보았다.

비옷을 벗어들고 나무잎에 입혀주자던 어린애가 땅바닥에 엎드려 단풍잎사귀를 한장한장 주어들더니 잎이 떨어진 나무가지끝에 하나씩 꽃아주고있었다. 다윈치는 그 아이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나무잎을 받아쥐고는 아이가 하는대로 따라하였다. 그는 형언할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밀창에서 끓고있음을 느끼며 아이들의 일손을 거들어 이번에는 노끈을 동였다. 광풍의 손발을 엮어매는 심정이였다. 아이들의 가룩한 마음을 알아 나무잎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더욱 굵어지는 비방울들은 나무잎사귀들과 나무줄기와 그의 손등을 두드리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윈치는 그것을 느낄수 없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비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고 다윈치의 혈관속에 몇배로 뜨거워진 피를 돌게 해주고있었다.

일이 끝났을 때 아이들은 다윈치의 팔에 매달리며 고맙다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동안 좋은 그림을 많이 그렸는가고 묻기도 하였으며 나무잎이 이번 비에 떨어지겠는데 정말 안되었다고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불찰로 생긴 일이기라도 한것처럼 걱정까지 하였다.

다윈치의 심장은 수백마디의 말을 하고있었으나 그는 입술이 경련을 만났듯 자꾸 떨려 겨우 한마디를 하였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단풍잎사귀는 떨어지지 않을것이다. 애들아.》

자기앞에 선 아이들의 얼굴이 단풍잎사귀같이도 하고 눈부신 빛을 뿌리는 금돌같이도 보였다.

려관에서 승용차가 내려왔으나 다윈치는 차에 오르지 않았다.

《먼저 가십시오. 송선생, 난 좀 거닐다가 가겠습니다.》

형준은 차에서 우산을 내려주고 러관으로 돌아갔다.

다윈치는 우산을 받아들기는 하였으나 펼침을 하지 않고 단풍나무밑으로 허청허청 걸어갔다. 그는 지금 자기의 뇌수복판에서 이제껏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화폭의 구도가 연두빛 봄색처럼 돌아올라 서서히 자라고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놀랍고 두렵기까지 한 일이었다. 차츰차츰 테두리가 잡혀가고있는 새로운 화폭이 금빛액틀속에서 못시선들을 모으며 자기의 자부심을 살찌우고 명예를 하늘높이 추어올려준 《해일》을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짓누르고있는것 같았다. 다윈치의 눈앞에는 해일의 무시무시한 광경이 펼쳐지었다.

물, 물... 온통 물천지, 물소리, 하늘과 바다가 한덩어리가 되어 빙빙 돈다. 하늘에 맞구멍이라도 뚫은듯 치솟는 물기둥, 조각난 배들, 뿌리채 뽑혀밀려다니는 나무들...

(그래 그건 내가 그린 그림이지, 내가 그런데누굴 위해 그렸던가, 만사함을 기쁘게 해주려고? 아니었다. 금전과 명예를 위해서였지.)

환멸의 감정이 밀물처럼 밀려와 이마살을 찡그리며 중얼거렸다. 우산은 여전히 손에 든채로였다. 비물은 머리카락을 다 적시고 목덜미속으로 기여들고있었다. 그러나 찬기운을 느끼지 못하는 듯하였다.

다윈치의 귀가에 다정한 말소리들이 들려왔다.

조선에 와서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 다가오기도 하였다. 속눈썹이 화살촉같은 아이의 빨간 볼과 아이들과 어울려 새통을 달아주며 돌을 쌓던 형준의 무뎌진 얼굴, 백발을 날리며 산판을 걷는 로인의 모습이 대리석조각상이 되어 단풍나무밑으로 모여오는것 같았다. 천진란만한 어린이들로부터 70고령의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자연을 가꾸고 그것을 향유하는 나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꾸는 거대한 힘은 무엇일까. 하느님인가, 조물주인가, 아니다.

다윈치는 짙은 안개속에 든 사람의 심정이 되어 사색의 난바다를 헤치며 향산교를 거닐었다. 향산천의 물소리가 크게 확대되어 고막을 팡팡 두들겨댔다. 골안의 모든 공간이 물소리로 가득 찬듯하였다. 문득 물소리는 간데없고 잡힐듯말듯하는 안개의 포말같은것이 차츰차츰 커지더니 각광을 받은 물체처럼 선명하게 눈앞으로 다가왔다.

인민의 휴식터를 위해 황금도 물어두게 하시는 수령, 하기에 이 나라 사람들은 하느님이 아니라 수령을 믿고 따르며 우리 수령이라고 하는것이 아닌가.

그래서 로인도 인간의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산을 가꾸고 형준도 인민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아이들도 인민을 위해 하나의 단풍잎에마져 비웃을 씌워주려고 애쓰고있는것이리라. 모든것이 근로하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나라, 인민의 땀속에 자신의 한몫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자연을 가꾸는 원예사들이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예술가들이며 그것을 향유하는 문화인들이다. 조선의 산천이 그토록 아름다운것은 이 나라 사람들의 정결하고 뜨거운 마음이 어려있기때문이라.

다윈치는 위대한 세계를 발견한것 같아 청년처럼 가슴을 짹 벌리고 어둠속에 누운 산봉우리들을 한아름에 안을듯 다리 저쪽으로 걸어갔다. 단풍든 산봉우리들이 다윈치를 마중하여 달려오는 듯하더니 그로부터 한자욱 두자욱 뒤로 물러서는 것이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시뻘건 아구리를 벌리고 룡트림을 하며 불길과 먼지를 토하던 활화산이 눈앞에 와서 서물거리더니 아득한 나락으로 곤두박쳐 곱툰곱툰 모지름을 쓰는것 같았다.

방수포를 뒤집어쓰고 바위쥬에 얹드려있던 자기의 모습이 다시 보이기도 했고 매대앞에서 그림을 사며 벽적대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리는듯하였다.

《당신은 어떤 그림을 그렸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다윈치는 손바닥으로 귀를 짹 누르며 눈길을 비물이 번들거리는 땅바닥에 떨구었다. 이번에는 리성의 웨침이 더 크게 고막을 두드리었다.

《해일이 과연 명작인가, 아니 명작이었던가, 후세에도 길이 명작으로 존재하리라고 믿는가?》

다윈치는 안간힘을 써서 손을 올리뻔쳐 비물이 흐르는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마구 쥐어뜯었다. 손등과 손바닥을 타고내린 비물이 팔소매속으로 기여들었으나 그는 감각을 잃은 사람처럼 털념을 안했다. 그는 손바닥을 오그려 얼굴을 싸쥐고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다윈치는 실성한 사람처럼 이렇게 중얼거리다가 고개를 젓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언제 비가 몇었는지 금싸래기같은 별들이 다윈치를 내려다보며 반짝거렸다. (하비로골짜기의 금돌들이 하늘로 올라 별들로 변했는가!)

묘향산절경들이 다시 그에게로 달려와 속삭이는것 같았다.

《다윈치선생,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윈치는 쿵당거리는 심장우에 두손을 포개여 대고 지국이 늘었다. 그는 지금 자기의 가슴속에서 자연의 해일과는 대비도 안되는 엄청난게 거창한 마음의 해일이 뒤설레이고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60평생 한번도 보지 못했던 아름답고 위대한 해일이었다.

분수

리병희

양덕 맹산 굽이굽이
흐르고 흘러
평양에 들어서자 걱정에 못이겨
저리도 치솟는 분수 대동강의 쌍불수
해와 별 우러르며 노래하누나

위대한 태양의 빛발따라
만년대계 창조물 죽순처럼 일떠서고
거리도 마을도 산천도
날마다 젊어지는 영광의 시대에
분수야 너도 태어나 역사를 보는구나

태고이래 아래로만 흐르던 물도
언덕으로 치달려 생명수 되거니
산도 옮기고
바다도 막는 기적의 서사시를
거창하게 읊어라, 하늘높이 솟는 폭포수여 !

너는 정녕 힘이며 젊음 .
아름다움이여라
인간의 위대함

한없는 사랑에 대한
높은 찬가여라

폭포수의 솟구쳤다 떨어지는 물보라
어찌보면 진달래향기
어찌보면 해바라기
위대화 수령님께 드리는
축원의 노래를 무지개로 펼쳤구나

만경대 들메나무의 곱디고은 무지개
형일대전 만리길의 눈보라 ,
개선의 그날의 영광의 꽃보라
승리의 열병식날 기발의 바다를
한순간에 다 보여주늘 구 신비로움 !

분수처럼 꽃으로 피면서 흐르는 물
풍년벌 적시면서 흐르는 생명수
그런 값있는 순간들에 살리라 !
내 한순간도 고인물 되지 않으리
솟구치는 분수의 한방울로 되리 !

기다린 봄

황성하

새들이 우짖고
온갖 싹 돋는 봄날은
푸르른 마음들 움트는 때라
젖빛안개 자욱한 봄숲에서
처녀와 총각은 만났네
우등불에 가슴 더웁히던 그자리에서

덧쌓이는 눈사태 산악을 뚫고
늘여가는 두줄기 궤도와 함께
두 심장 불길되어 타올랐네
헤어지면 그리움에 못견디다도
만나면 터치기 주저한 그 말
누가 엿볼세라 마음속깊이 묻어둬채

긴긴겨울 이겨내고
마침내 새 철길 뻗어간 이봄
깊이깊이 묻어두다 아예 묻을라

얼어붙었던 계곡의 내물은
재촉하며 흐르고
벼랑턱 진달래 빨강게 머리드네

암반을 떠밀 댄 장벽갈던 가슴
이 봄바람엔 하냥 부드러워져
불쑥 전네는 총각의 말
-이 봄을 기다렸소
수집은듯 처녀의 얼굴 활짝 붉어졌네
-아이참, 봄이 이렇게 빨리 올줄은...

아! 봄은 얼마나 좋은가
정다운 마음들 터치는 봄날은
봄빛안고 연연히 뻗은 철길우에
청춘의 두 심장 뜨겁게 엉켜지고
기적소리 울리며 달려오는 기관차
그 사랑 천리만리 싣고 달리니...

아동중편소설 창작에서 성격창조와 생활묘사의 수준을 높이자

리효운

박춘삼, 최병환작 아동중편소설 《자매섬》은 외진섬에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뜨거운 사랑과 두터운 배려를 베풀어주고 학습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세심히 보살펴주는 영광스러운 당의 은정에 보답하기 위하여 《영예의 붉은기학교》 칭호를 쟁취하기 위한 토끼기르기운동에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치는 등대섬 소년단원들의 보람찬 생활과 투쟁을 그리려고 한 작품이다.

박춘호작 아동중편소설 《바다는 잠들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로동으로 꽃피웠구 피로 지킨 고향땅을 참되게 사랑할줄 알고 그것을 또다시 짓밟으려는 원썬놈들을 미워하고 끝까지 싸우려는 마음을 키워가면서 혁명적경각심을 높여 조국땅을 지키는 광산마을 소년들의 보람찬 생활과 투쟁을 형상하는데 바쳐진 작품이다.

이 두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수 있는 긍정점은 소년단원들속에서 다른 사람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과 지혜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말은 혁명과업을 잘해나가는 정신을 키우려고 한것이다.

이 두편의 소설에서 볼수 있는 긍정점은 또한 소년단원들, 학생들의 생활과 투쟁을 아이들의 세계에 국한시켜 그리던 일부 편향을 극복하고 여러가지 직업과 직위를 가진 어른들과의 호상관계와 교감속에서 그들의 지도와 방조를 받아가면서 좋은 일을 하거나 성장해가는것으로 묘사한것이다.

그중에서도 소설 《바다는 잠들지 않는다》의 중심주인공을 비롯한 학생들이 어른들의 교양과 영향을 받아 점차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이 높은 혁명적인 소년으로 자라 반간첩투쟁에서 영웅주의와 위훈을 높이 발휘하는것으로 그린것은 좋은 지향이다.

아동중편소설 《바다는 잠들지 않는다》에서 찾아볼수 있는 좋은 점은 또한 아이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는 평이하고 소박하고 생활적인 언어와 표현을 취사선택하여 구사하려고 노력한것이다.

이 소설에는 자연환경, 정황묘사, 초상묘사 등에서 쉬운 말로 대상이 방불하게 안겨오도록 묘사한 장면들이 적지 않다.

또한 이 소설은 지루하지 않고 비교적 흥미있게 읽히는것도 좋은 점이다.

두편의 아동중편소설들은 종자와 주제사상이 서로 다르고 생활소재와 양상도 각이하다.

그러나 이 두 작품들에서는 기본결합들이 공통성을 띠고 발로되고있으며 아동중편소설창작에서 이 작품들의 작가들은 물론 다른 작가들도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교훈이 있다.

그 하나는 인간성격들을 전형적으로, 진실하게 그리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며 다른 하나는 전형적인 생활을 옹게 그리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다.

1

아동중편소설 《자매섬》과 《바다는 잠들지 않는다》에서 나타난 가장 기본적인 결합은 다양한 인간성격들을 전형적으로 진실하게 그리지 못한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종지는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들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밝혀진다.》

종자는 다양한 성격들과 그들의 생활을 통하여 밝혀져야만 진실하고 생동하게 안겨올수 있다.

그런데 《자매섬》에서는 중심주인공 김해철이와 그의 쌍둥이동생들인 인민반학생 해룡이와 해월이의 성격을 잘 그리지 못하였다.

가장 큰 결합은 김해철을 비롯한 자매섬 아이들을 우리 당에 의하여 교양육성된 주체형의 새세대의 전형으로, 우리 학생소년들의 긍정적모범으로 형상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소설에서 중심주인공 김해철은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자각과 각오가 높은 성격으로 설정되고있으며 자매섬 아이들속에서 나이가 제일 많고 조직력도 있는 상급생으로 활동하고있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이 중심주인공이 처음에는 창발성을 발휘하고 애도 쓰는 인물로 그려지고있으나 점차 그 성격묘사는 약화되고있다.

김해철의 활동은 그가 자매섬분단모임을 지도하고 자신심이 없어하는 인민반 4학년생 차예남이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장면, 《공훈토끼》를 엄지로 키우는 이야기, 《소년신문》지상에서 한 학교 아이들이 《통이 크게, 판도 크게 !》

일을 벌려 몇달사이에 수천마리의 토끼를 길러 나라에 바쳤다는 모범에 고무되어 사람 안사는 《거북섬》을

《토끼섬》으로 꾸러 거기에서 토끼를 방목하려고 창안하는 장면, 아이들을 데리고 《거북섬》에

가서 토끼를 채가는 독수리와 싸우면서 토끼를 방목하는데 성공하는 장면들에서 그려지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과 활동 장면들이 당의 은덕에 토끼를 잘 기르는것으로 보답하려는 지향선으로 판통되지 못하였으며 그에 참가하는 중심주인공을 비롯한 아이들의 충성심이 발휘되고 심화되는 과정으로 그려지지 않고 개개의 《사업》이나 이야기로만 그려지고있다.

이와 함께 김해철의 활동은 주로 《사업적측면》에서 그려지고 그의 긍정적성격을 전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형상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그의 내면세계의 움직임의 잘 그리지 못한것과 많이 관련되어있다.

우리는 소설을 통하여 정치사상적각오정도가 높은 중심주인공 김해철이 자매섬 아이들을 어떻게 교양하였으며 아이들과 함께 간고분투하는 과정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알게 되고 무엇을 새로 깨닫게 되었으며 그의 사상심리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며 또 그의 사상이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를 잘 알수 없다. 소설은 기본주인공인 김해철의 훌륭한 사상감정을 응당 보여주어야 하였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

작품전체를 통하여 진하게 안겨오는 인상은 해철이는 손아래 아이들과의 사업이 점차 서툴게 되어가며 아이들의 사상심리상태에 대하여 둔감할뿐아니라 신경질이 많고 속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에서 아이들을 잘 이끌어가기보다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그러한 고등중학교 학생으로 느껴지는것이다.

《자매섬》의 중심주인공인 김해철은 등대섬 아이들속에서 토끼기르기운동을 발기하고 엄지토끼들을 확보한 다음에는 최우등생경험발표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섬을 떠나게 되고 자매섬의 5명의 소년단원들은 해철이의 참여없이 토끼기르는 활동을 벌린다. 그러므로 김해철의 성격은 토끼를 기르는 섬아이들과의 교감속에서 그려지지 않고있다.

해철이의 내면세계를 엿볼수 있는 대목은 《소년신문》에서 토끼기르는 우수한 경험과 모범을 본받아 무인섬인 《거북섬》을 토끼섬으로 만들데 대하여 구상하는 장면과 기계배를 타고 거북섬에 가서 토끼를 방목하는데 성공하는 장면들이다.

우리는 이 장면들에서 해철이가 무인섬에서 토끼를 길러보려고 머리를 쓰고 애쓰는 한측면을 엿볼수 있다.

그러나 이 장면들에서도 그의 성격은 당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지향과 감정 선에서 심화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모범적인 우리의 새세대로서의 지향과 념원, 내면세계와 사상심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방학기간을 리용하여 고향집이 있는 자매섬에 찾아온 그가 아무 믿음직한 담보도 없이

무인섬에 토끼를 방목하게 만들었다는것이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안겨오지 않기때문에 그의 창발성과 구상이 허황하게 느껴지는것이다.

해철이는 방학이 끝나면 물에 돌아갈것이고 토끼섬에는 매일 누가 배로 가서 토끼들을 관리하게 되는지, 배는 매일 갈수 있는지, 수리개가 와서 토끼들을 채가는데 온종일 관리자없이 방목이 가능한지 등등의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이와 같이 해철이의 활동의 생활적바탕이 허약하고 믿음성이 가지 않을뿐아니라 그의 분단 아이들과의 사업에서도 긍정면보다 부족점이 많이 눈에 띄이게 된다.

엄지토끼들이 알아놓고 애써 구해온 《공혼토끼》마저 병들어 죽게 되자 섬아이들은 물에 있는 본교아이들이 길러주겠다고 하던데 괜히 가져온것이 아닌가고 동요하면서 신심을 잃게 된다.

이때 물에서 찾아온 해철이의 친한 동무인 차예숙이가 이런 상태를 알고 수습해준다.

그런데 이러한 전말과 실태에 대하여 김해철이는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을뿐아니라 《거북섬》에 방목한 토끼들을 정체를 몰 짐승이 먹어치우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또다시 토끼들을 학교토끼사로 옮겨가지 않겠는가고 말하게 된다.

해철이는 이에 대하여 그럴만한 근거를 가지고 아이들을 해설설복시켜 신심을 가지도록 할대신 욕설을 퍼붓는다. ,

그는 또한 예남이가 붉은기학교판정검열을 받기위하여 악기를 배워야 하지 않느냐고 묻는데 대하여, 영민이가 공부를 잘하지 않는 수영이를 두고 걱정하는데 대하여 전혀 주의를 돌리지 않으며 분단위원장인 동생 해룡이가 아이들이 토끼기르기에 잘 동원되지 않는 문제를 놓고 예남이와 다투다가 그를 때린데 대하여 예리하게 문제를 세우고 사건화하지 않는다. 또한 해철이는 아이들과의 사업에서 종종 신경질을 부린다.

상급생이며 소년단원들의 교양자, 조직자로 설정된 주인공 김해철은 소설에서 이와 같이 정치사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고 사람과의 사업이 서툴뿐아니라 사업 방법과 작품이 거칠고 긍정적이 되지 못하고있다. 그런 대목이 적지 않다.

다시말하여 중심주인공인 김해철이는 분단의 단합이 일시적으로 약화되고 집단의 창조적적극성과 열성이 저하된데 대하여 응당 자신의 사업에서 교훈을 찾고 자매섬 아이들의 실정에 맞는 사상교양사업을 능숙하게 하여야 하겠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있다.

그는 도리어 이 모든것이 본교의 소년단원들이며 모범학생인 차예숙의 충동질에 의하여 일어난것이라고 속단하는 경망한 성격으로 그려지고있다.

작품은 해철이의 내면세계, 모범학생으로서의 그의 사상심리적 움직임과 변화에 대하여서는 거의 관심을 돌리지 않고 해철이의 예숙이에 대한

오해와 그에 기초한 갈등과 충돌을 심화시켜나가는 데로 가고있다.

중심주인공의 형상을 작품의 종자와 주제사상을 꽃피우는 방향에서 전형화하지 못한것은 김해철이와 차예숙이와의 호상관계를 그린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차예숙이는 공부도 잘하고 토끼기르기운동에서 이름난 모범학생이며 손퐁금수이며 《자매섬》 아이들을 지원하는데서 앞장서며 마음씨도 고운 녀학생이다.

예숙이는 자기에게 부과된 토끼기르기계획을 끝내고 분교학생들을 지원하는 본교에서 받은 자기분공도 잘 수행한 학교 소년단위원으로서 섬에 있는 4촌동생 예남이를 비롯한 인민반학생들의 토끼기르기를 자신이 맡아 수행하고 그들에게는 학습과 악기다루기, 체육 등에 힘써야 한다고 직접적으로나 편지로 타이른다.

그런데 차예숙이와 친한 해철이는 처음에는 그의 행동과 마음씨가 아름답고 착하다고 생각하다가 예숙이가 섬아이들을 깔보면서 그들의 토끼기르기를 방해해나선다고 주관적으로 속단하고 마감에는 그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지고 반목하고 싸우기까지 한다.

두 학생들의 이런 갈등과 충돌은 중앙에서 내려온 간부와 군당책임비서의 도움에 의하여 풀리게 된다.

성격창조의 각도에서 볼 때 해철이와 예숙이의 갈등은 무엇때문에 필요한가? 작품의 흥미를 돋구기 위하여 필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해철이의 《개성》이나 기질을 보여주기 위하여 설정된 오해와 충돌인가, 혹은 등장인물들의 성격들을 가리우는 사건선이나 사업선을 인간관계의 선으로 바꾸어 메꾸기 위하여 필요했는가?

이 두 모범학생들의 충돌과 갈등은 오히려 긍정적인 중심주인공이 속단하는 나쁜 버릇이 있고 신경질적이고 동무들에 대하여 편협한 인물처럼 느껴지게 하는 후과를 낳게 하였다.

이렇게 새세대들의 긍정적성격을 전형화하고 작품의 종자와 주제사상을 깊이 해명하며 학생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는데 손상을 주었다.

일반적으로 소설에서 동지호상간의 오해에서 오는 갈등을 취급할수 있다.

중편소설 《자매섬》에서 해철이의 예숙이에 대한 오해와 그것에 기인한 충돌을 영광스러운 당의 은덕에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생긴 현상으로 심화시키면서 두 학생의 아름다운 호상관계와 숭고한 정신세계를 개방하였더라면 이상과 같은 결함은 발로되지 않았을수도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

중편소설 《자매섬》의 등장인물들의 성격형상에서 발로된 중요한 결함의 다른 하나는 인물들의 개성이 잘 그려지지 못하고 형상적묘이 록록하지 않은것이다.

김해철의 쌍둥이동생들인 분단위원장 해룡이와 해월이는 당의 은덕에 보답하려고 나선 섬아이들의 앞장에 선 핵심적인 성격들로 설정되어있다.

그런데 해룡이, 해월이를 비롯한 5명의 섬아이들에게서는 소년단원 일반에서 찾아볼수 있는 연령심리적특성이 느껴지고 소년단조직에서의 그들의 조직적분공이나 기계배 《토끼산》호에서 차지하는 그들의 직책(선장, 기관장등)이 보일뿐 그들의 개성적특징이나 형상체계에서 차지하는 형상적묘는 똑똑히 안겨오지 않는다.

지어 그들의 외모의 특징이나 언행과 거동의 개성적특성에 대하여서는 거의 표상할수 없다. 이런면에서는 해철이도 마찬가지다.

작품에서는 예남이의 성격에서 그의 동요성이 극복되고 토끼기르기에 대한 신심이 생기는 과정을 비교적 생동하게 그렸으나 이 인물도 종합적으로는 뚜렷한 개성으로 그려지지 못하였다.

작품에서는 응당 해룡이나 해월이의 성격을 형상적으로 부각하는데 력점을 찍어야 하였으나 력점은 예남이에게 집중되고 부차적인인물들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쌍둥이의 성격은 잘 살아나지 못하고있다.

중심주인공과 부차적인인물의 성격창조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결함은 당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보답하려고 애쓰는 등대섬 아이들의 생활과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깊이있게 보여줄수 없게 하였으며 작품의 주제사상을 심도있게 구현하는데 지장을주었을뿐아니라 읽을 재미가 덜하게 만들었다.

중편소설 《바다는 잠들지 않는다》에서는 《자매섬》보다 중심주인공 유명진이를 훨씬 높은 수준에서 전형화하였으며 성격의 개성화도 일정한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광산기사장의 외아들인 명진이는 고등중학교 2학년생으로서 그는 고향인 광산지구를 떠나 한때 도시에서 공부하다가 다시 고향마을인 련포마을에온지 1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는 정치적, 계급적 각성과 고향땅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부족한데로부터 원쑤놈들에 대한 증오심과 혁명적경각성이 부족하고 자유주의적산만성을 자주 발로시키는 소년단원으로부터 고향마을에 대한 애착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정치사상적각성과 계급적자각이 높은 소년단원으로 혁명적으로 개조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미제의 고용간첩들을 적발하고 일망타진하는 투쟁에서 용감성과 대담성을 발휘하고 불굴의 투지로 큰 위훈을 세우게 된다.

정치사상적으로, 계급적으로 뒤떨어졌던 명진이는 민청조직, 내무원과 광산일군들, 담임선생의 다방면적인 교양과 영향 밑에 혁명적으로 각성되어가는 성격으로 발전과정에서 비교적 진실하게 그려졌다. 그러나 이 인물형상도 성격의 개성

적생동성의 견지에서 볼 때 적지 않은 부족점들이 있다.

그리고 명진이의 가장 가까운 동무인 승철이와 학급반장 호성이의 성격을 파고들어 창조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들의 개성도, 형상적묘도 뚜렷하지 않다.

승철이는 군사분계선이 멀지 않고 특수광을 캐는 광산마을이 자리잡고있는 련포마을 선바위초소에서 해안감시를 하는 조장으로서 혁명적경각성이 높은 학생이다.

그런데 조국땅에 대한 사랑과 계급적각성이 높지 못한데로부터 안일해이하고 감시근무를 서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으며 근무시간에 초소를 리탈하는 행동을 하는 명진이를 용화목과하여주며 동지적비판도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간첩투쟁에 앞장서며 공훈을 세운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이 인물이 점차 자기의 잘못을 어떻게 뉘우치게 되며 그가 새롭게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것이 무엇인지 잘 알수 없으며 그에게 고유한 성격의 변화도, 내면세계의 움직임도 잘 찾아볼수 없다.

승철이는 명진이와 함께 간첩을 알아내고 잡아내는데 적극 나서는 동무로서 활동하는 선상에서 많이 볼수 있으며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적극 투쟁하게 되는 그 결과를 보게 될뿐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승철이의 형상은 변화발전하는 과정에서 개성적으로 깊이있게 그려지지 못하였다.

학급반장인 호성이의 성격묘사에 대해서도 같은것을 말할수 있다.

호성이는 승철이보다 책임성과 각성이 높은 학생으로 설정되고있으나 명진이나 승철이에게 이렇다할 영향도 주지 못하고 작가의 의도를 전달이나 하는 고식적인 성격으로, 무개성적인물로 되어버렸다.

이와 같이 작품은 응당 중심인물인 명진이와 긴밀하게 교감하는 중요한 인물들인 승철이와 호성이의 성격을 전형화하는데서 약점을 발로시켰다.

승철이와 호성이의 성격을 명진이와의 깊은 관계속에서 파고들어 형상하지 못한데로부터 그들의 개성도, 형상체계속에서의 그들의 묘도 인상깊게 안겨오지 않게 되었던것이다.

이상과 같이 증편소설 《자매섬》과 《바다는 잠들지 않는다》에서는 인간성격들을 주체시대의 긍정적인 학생소년들의 전형으로 잘 형상하지 못하였다.

또한 한두 인물의 형상창조에 매달리면서 중심주인공을 비롯한 주요인물들의 형상들을 의의있고 깊이있게 창조하려는 탐구와 노력을 잘하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두 작품에서는 인간성격이 사건이나

《사업》에 파묻혀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특히 《자매섬》의 경우에 이것은 소설의 구성상결함과 관련되어있다.

《바다는 잠들지 않는다》에서는 특히 후반에 가서 사건선을 추구하던나머지 성격묘사가 뒤전에 밀려나가게 되었다.

반간첩투쟁을 취급한 작품의 경우 물론 사건과 흥미를 떠날수 없다.

그러나 반간첩투쟁을 내용으로 하는 소설도 역시 공산주의인간학의 견지에서 문제성있고 의의있는 성격을 창조하여야 한다.

이 소설은 총 15절로 이루어졌는데 제12절 《하나의 돌》을 내놓고는 소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9절이후는 미제의 고용간첩들의 준동, 그들의 멸망, 그들에 대한 적발투쟁 등 사건을 보여주는데 치우치고있다.

이와 같이 두 소설들은 공통적으로 사건과 《사업》, 투쟁과 이야기를 통하여 발현되는 우리의 새세대들의 아름답고도 고상한 정신세계를 여러모로 찾아내고 그것을 인간학적견지에서 전형화하는데 집중하지 못하였다.

다시말하여 긍정적인 전형적성격을 사업과 투쟁, 생활과 사건 속에서 산 개성으로 그리지 못하고 무개성적인 성격으로 되게 한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두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또하나의 결함은 긍정적주인공의 형상이 인상깊이 그려지지 않은 반면에 개조되는 인물성격이 두드러지게 형상된것이다.

《자매섬》에서 차예남은 해철이나 해룡이보다 더 인상에 남고 《바다는 잠들지 않는다》에서는 유명진이 승철이나 호성이보다 더 인상에 남게 형상되었다.

부정인물 또는 개조되고 혁명화되는 인물을 중심에 놓고 작품을 창작하는것은 최근 우리의 아동소설들에서 하나의 경향으로 나타나고있다.

물론 작품의 종자와 주제사상, 작품의 생리에 따라그렇게 형상할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긍정인물들의 성격이 인상깊게 형상되어야 할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우리는 긍정인물이 부정인물 또는 개조되는 인물보다 못하게 그려지며 개조되는 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을 쓰는 경향이 계속 나타난다면 이에 대하여 사전에 경계해야 한다.

2

증편소설 《자매섬》과 《바다는 잠들지 않는다》에서 발로된 주요한 결함의 다른 하나는 전형적인 생활을 풍부하게 깊이있게 잘 그리지 못하는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에서는 반드시 전형적인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전형적인 생활을 그리기 위하여서는 생활의 본질과 현상을 정확히 가려보는것이 중요하다.》

전형적인 생활이란 시대의 본질과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체현하고있는 그런 생활이다.

전형적인 생활을 그려야 작품에서 인간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할수 있고 작품의 철학적깊이와 인식교양적기능도 강화할수 있다.

생활묘사에서 전형화의 원칙을 구현하여 사실주의적화폭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생활현상에서 본질적인것과 비본질적인것을 가려낼줄 알아야 한다. 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고 많이 보이는 사실이라고하여 다 그릴것이 아니라 사물적이고 잡다한것은 버리고 종자해명에 복종되고 인간성격을 전형화할수 있으며 생활론리와 형상의 론리에 맞는 생활세부를 취사선택하여 생동하게 구체적으로 그려야한다.

소설 《바다는 잠들지 않는다》에는 생활묘사가 잘된 대목도 적지 않으나 생활묘사에서 전형화의 원칙과는 거리가 먼 장면들과 세부들도 적지 않다.

레하면 군관모자를 빌려쓰고 내무원으로 가정한 명진이가 《칠대백》 등판 비석있는 부근에서 놀라 달아나는 키다리간첩놈을 추격하여 돌배나무굴과 바위가 있는 산턱까지 따라가는 장면이 그러하다.

여기에서는 명진이의 기지와 용감성, 대담성과 강한 의지, 수산물도매소 운전사인 간첩놈의 당황성, 비겁성 등을 보여주는데 력점을 두면서 함축과 비약의 수법으로 묘사를 진행하여야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과정을 길게 그렸다.

이 작품에는 또한 이미 형상적으로 보여주었거나 형상론리에 의하여 독자들이 알고있는 내용을 등장인물의 입을 통하여 또는 작가의 지문으로 설명하는 결함도 있다.

그것은 명진이가 우물집마당에 잠복해있으면서 《독버섯》과 《검열관》의 거동을 실피다가 거기에서 빠져나와 내무원 중위에게 보고하니까 중위가 명진에게 적정에 대하여 알려주면서 경각성을 높여 마을을 잘 지켜야 하겠다고 하는 대목에서 볼수 있으며 뒤이어 명진이의 성격에서 변화가 일어난 점에 대하여 생활론리와 형상론리와는 맞지 않는 설명을 한 대목 동에서도 볼수 있다. .

이 소설에는 또한 정황에 맞지 않는 생활묘사도 적지 않다.

14절 《초소에 서있는 아들》에서는 이런 대목들을 적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명진이가 감시초소에서 고무배를 타고 해안으로 침입하는 무장간첩들을 발견하고 부근에 있는 종을 쳐서 비상신호를 하려고 감시호에서 뛰쳐

나간다. 그때 온몸을 검은 옷으로 휘감은자가 나타나 명진이의 앞을 가로막고 《너의 집이 불붙은 것도

모르고있니 ? ...》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듣자 그자가 망책인 《우물집아주머니》라는것을 알아차린다.

그런데 이 소설의 절정이라고도 할수 있는 적과 최후 대결하는 이 고도로 긴장한 장면에서 소설은 그 여자간첩년의 《선심》과 간교성이 아버지의 사업과 광산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한 간악한 속임수였다는것, 자기는 그런년을 곁에 두고도 가려보지 못했다고 뉘우치는것 등을 곁붙여 설명하고있다.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독자들은 여기까지 이르는 이야기와 사건 등을 통하여 작가가 재삼 설명하려는것을 알게 된다.

정황과 생활론리에 따른다면 이 소설은 웅당 이런 긴박한 순간에 중심주인공 명진이가 어떻게 종을 쳐서 비상신호를 울리며 적과 정면대결하는가를 긴장미를 조성하면서 묘사를 전개해야 할것이다.

정황과 생활론리에 맞지 않는 부자연스럽고 진실치 못한 다른 장면은 원쑤년이 던진 날창에 어깨를 찢기운 호성이가 단검을 들고 달려드는 그 년에게 고추가루와 매운채를 들썩였을 때 벼랑 밑으로 내뛰는 원쑤년을 두고 명진이와 호성이가 하는 행동을 묘사하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독자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부상당한 두 소년이 간첩망 책임자년을 어떻게 추격하며 그와 어떻게 싸우는가를 알고싶어한다.

그런데 소설은 이 대목에서 간첩년이 내뛰었다는것만 말하고는 두 소년이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서로 상대방을 리해한데 대하여, 동무들을 고무하고 칭찬한데 대하여 묘사를 집중하고 있다.

정황과 생활론리에 맞지 않는 주관주의적묘사는 생활과 성격을 본질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할수 없으며 따라서 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그려내지 못하게 된다.

생활을 전형적으로 그려내지 못한 결함은 중편 소설 《자매섬》에서 심하게 나타났다.

이 작품에서 강하게 눈에 띄우고 느껴지는것은 섬의 생활과 특이한 생활정서, 섬사람들의 생활풍습과자연, 생물세계 등이 풍부하고 실감있게 안겨오지 않는것이다.

외진 등대섬이라는것, 바다와 백사장, 사람없는 작은 섬이 있고 배가 왕래한다는것, 파도가 쉬임없이 밀려온다는것 등 섬과 관련된 몇개의 말을 빼다보면 소설의 무대는 어느 해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고 토끼먹이가 없는 지대라고 하여도 큰지장이 없을 정도이다.

이 소설이 외진 등대섬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아이들의 생활에 깊이 뿌리박지 못한다로부터 작품에 그려진 인물형상들과 그들의 생활적바탕이 대단히 허약하고 진실감이 적게 되었다.

우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방학이 끝나면 해철이는 물에 있는 본교에 돌아가게 되고 자매섬에는 5명의 아이들이 남게 될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공부를 계속하면서 기계배를 물고 《토끼섬》에 넘어가 매일 토끼를 기를수 있겠는지, 그러한 현실적조건과 가능성이 있는지, 독수리를 비롯한 맹금,맹수들이 토끼를 채가지 못하게 하고 비가 오던가밤이 되면 관리해야 하는데 누가 하는지... 이에 대한 예술적해답이 없는데로부터 여러가지 의문이 생기고 허황하게 느껴지게 한다.

따라서 소설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생활과 활동의 생활적바탕에 대한 믿음이 잘 가지 않게 될뿐 아니라 인물형상의 진실성도 아주 약화되고말았다.

생활의 전형화가 잘되지 못하고 생활적진실감이 부족한것은 소설의 세부묘사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 소설에서는 생활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형상하여 사람들의 정서와 감정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본질적이고 특색있는 생활세부가 많지 못하다. 여기로부터 소설에서 뗀어진 인간관계와 사건들이 생활적으로 풍부하지 못하고 앙상한 감을 다분히 준다.

이것은 특히 이 소설의 3분의 2이하 부분인 11절이후에서 농후하게 발로되었다.

11절 《무줄장군》에서는 무인도인 거북섬(아이들은 《토끼섬》이라고 이름지었다.)에 놓아기른 17마리의 토끼들중 몇마리를 독수리가 채간 사건과 이를 계기로 아이들속에서 일시 동요가 일어나고 신심이 약화되는 이야기, 이에 대하여 해철이가 욕설을 하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 아이들의 열성과 사기가 떨어지게 되고 그들의 단합이 약화된 이야기 등에 뒤이어 해철이가 예숙이를 오해하고 패씹하게 생각하기 시작한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 절에서 볼수 있는것은 사건과 이야기의 비대감, 아이들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있으나 본질적인것을 놓친, 력점이 없는 사실의 라렬, 소설의 감정조직에서 방향전환(토끼를 거북섬에서 잘 기르려고 한 해철이와 섬아이들의 활동과 지향선으로부터 해철이의 예숙이에 대한 오해에 기초한 갈등선으로의 방향전환)등이 산만하게 안겨온다.

그러나 이 절부터 시작하여 그후는 해철이와 예숙이의 갈등, 충돌, 그의 해결 등이 주되는 사건으로, 감정조직으로 되었으며 거북섬에서 토끼를 잘 기르게 되는 《자매섬》아이들의 생활은 뒤

권에 물러나고 흑간 보이는 그들의 생활은 풍부하게 실감있게 그려지지 못하고있다.

또한 해철이는 주로 예숙이와의 관계에서 외곽으로 그려지게 되고 섬소년단원들과의 생활은 거의 볼수 없게 된다.

이로부터 중심주인공인 해철이의 생활과 그의 성격을 폭넓고 깊이있게 진실하게 그려낼수 없게 되었다.

이 소설에서의 전형적인 생활묘사에서 나타난 기본결합의 다른 하나는 인물과 이야기와 사건등이 작품의 주제사상을 심오하게 구현하고 해결하는 견지에서 취사선택되지 못한것이다.

중앙에서 온 일군과 군당책임비서, 담임선생인 옥미 등 인물들의 등장과 그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와 일화 등은 섬아이들과는 관계는 있으나 작품의 주제사상과 그들의 생활에 대한 의의있는 진실한 형상창조와는 거리가 먼것이고 덧붙인것 같으며 일화와 사건도 인위적인 감을 준다.

다시말하여 이 인물들과 그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는 당의 깊고 뜨거운 은정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영예의 붉은기학교》관정검열에 우수한 실적으로, 통과되도록 토끼기르기운동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하는 등대섬의 5명의 소년단원들과 그를 이끌고나가는 중심주인공 해철이의 전형적인 생활과 투쟁을 진실하게 형상하는 문제와 꼭 맞물리지 않는것이다.

당에서 등대섬 아이들의 학습과 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큰 배려와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는가를 보여주는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또 당의 은정에 대하여 천만번 이야기해야 하고 더 감명깊게 그려야 한다.

그러나 작품에서는 중요하고 훌륭한 문제도 그 작품의 종자와 주제사상, 그를 형상적으로 구현하는 인물형상속에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하며 구성상 생리에 맞아야 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아동중편소설 《자매섬》과 《바다는 잠들지 않는다》에서 인간성격을 깊이있게 개성적으로 그리는 문제와 전형적인 생활을 잘 그리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 작품들에 나타난 주되는 결합들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 문제들은 현실생활과 형상창조에서 분리되어있는 문제가 아니라 밀접히 련관되어있는 문제로서 서로 침투하고 서로 작용하는 원칙적문제들이다.

이 두가지 문제는 생활묘사와 성격창조에서 전형화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귀결된다.

우리 아동문학작가들은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의 계승자들인 새세대들을 주체형의 혁명인재로 교육교양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소설을 비롯한 문학작품창작에서 형상성을 더욱 높여나가자.

극적정황속에 살아난 진실한 성격

-단편소설 《대지의 표정》을 읽고-

김성우

어머니조국땅, 사랑하는 대지의 표정에 대하여 생각해본적이 있는가. 아니 보다 먼저 대지에도 심장을 가진 산 인간처럼 풍만한 표정이 있다는 것을 어느 한순간이라도 느껴본적이 있는가...

작가 안동춘은 피로 얼룩진 가련한 격전장에서 조국을 지켜 목숨바친 한 농민전사의 소박한 형상을 통하여 우리가 늘 발붙이고 사는 이 말없는 대지의 변함없는 표정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태양의 은혜로운 빛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말없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다수확농민의 땀젖은 얼굴이며 성실한 로동으로 갈구어진 밭고랑을 마구 짓밟는 원주의 무쇠발굽밑에 서슴없이 분노의 퇴성으로 터져오르는 노한 전사의 심장이다. 장능보와 같은 인간들이 그 대지를 이루고있다. 과연 어느 누가 이 대지를 굴복시키랴!

이렇듯 소설은 하나의 서정시, 하나의 생동한 성격의 화폭이다. ,

이 단편소설이 독자들을 감동시키는것은 무엇보다 형상의 핵을 이루는 성격의 진실성에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에서는 생활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사상 감정을 그에 고유한 성격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야 한다.》

진실한 형상은 그 어떤 정황에서도 작가의 주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성격론리에 따라 움직이는 산 인간이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자기 주인공의 행동을 《조종》하지 않고있으며 그의 말에 자기 말을 뒤섞지 않고있다.

단편소설 《대지의 표정》을 펼치면 우리는 결사전을 앞둔 소대에 갓 배치된 열세명의 신대원들을 보게 된다.

《뭘했는가구요? 농사를 했지요...》

《훈련을요? ...했지요. 꼬박 하루동안... 총두 쏘았습니다. 세방씩이나... 안맞더군요. 》

도무지 군대맛이라고는 전혀 느껴볼수 없는 이 사람들속에 우리 주인공이 있다. 적의 집중포사격이 쏟아지는 무시무시한 조발가운데로 불쑥 나타난 황소, 전호를 막치고 내달아 학범하듯 소를 따라가는 《새군복》, 성이 난 젊은 소대장앞에 눈일을 할 때처럼 바지가맹이를 걷어올리고 털이 부엌부엌한 장판지를 드러낸채 서있는 나이 지숙한 전사... 이렇게 장능보는 소개된다.

소대장은 자의적으로 전투위치를 벗 어난데 대하여 엄한 경고처벌을 준 다음 규률도 의무도 모

르는 이 《바지저고리》를 더 호되게 다그어댈양으로 군인선서를 외워보라고 했다. 그때 능보는 어쭙게 웃을뿐 《외우는 꼴》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허지만 동문 왜 입대했는가고 다가뵈을 때는 능보의 얼굴에 피가 물린다. 모욕감에 타는 눈길에 향방없이 해매다가 소대장의 눈길에 부딪쳐 땅바닥에 떨어지며 겨우 한마디로

《조국보위를 하자구... 나왔수다. 》

이 얼마나 진실한 대답인가. 군인선서는 비록 외우지 못했지만 그것은 그의 심장속에 있다. 왜 입대했는가구? 말로 번지르르하게 표현하지는 못해도 그것만은 안다. 똑똑히 안다. 이 진실은 누구도 모욕할수 없다. 어질고 소박한 인간의 가슴에 순간적으로 고평치는 량심의 반발... 자존심... 허나 곧 수그러지는 머리, 여기에는 자그마한 분식도 과장도 없다.있는 그대로다. 기실 능보는 경고라는것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 후에 그 뜻을 묻기까지 하지 않는가.

소설은 이런 능보가 운명적인 적의 땅크 공격 앞에서 발휘하는 불굴의 영웅주의를 펼쳐보여주면서 소설의 절정이라고 할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세부로써 그의 성격을 특징짓고있다.

또다시 제마음대로 명령도 없이 미친듯 전호를 차고 뛰어나간 능보전사는 적땅크앞에서 갑자기 전진을 멈추고 돌아섰다. 겁이 나선가? 아니였다.그는 울상을 하고 소대장에게 소리쳤다.

《소대장동무, 전사 장능보...》

다음말을 못잇고 울대뻘만 오르내리더니 그만 고개를 내젓고 웅쳤다.

《보고법은... 모르겠수다. 제가 까졌수다. 명령 해주슈.》

전사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나가다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보고때문에 되돌아서는것이다!

소대장의 명령을 받고서야 헛는 한번 팔지 않고 《마치 김매는 농군이 밭고랑만 보고 나가듯 곧추 전진》 하는 그의 모습앞에서 왜 우리는 눈물을 머금는가. 어떤 전투 교범과 규정에도 없고 명령과 규률로써도 시킬수 없는 육탄공격으로 적땅크를 흘날려버린 그의 죽음앞에서 왜 소리없이 통곡하게 되는가.

장능보야말로 참된 인간, 참된 전사, 참된 다수확농민, 참된 조선사람의 전형적인 형상이다. 이 하나의 세부에 비친 그의 모습에는 해방전에 머슴을 살았고 해방후 《영명하신 령도자 김일성장군님의 시책을 높이 받들고 알곡증산에 모범이르

로》다수확모범농민 상장을 받았으며 전쟁이 일자 오직 그 상장을 내들고 이래두 자격이 안되느냐고 우기며 결사대에 뽑혀나온 전사의 모든 성격이 집약되어있다. 작가는 그뒤에 대렬참모와의 담화, 능보전사의 배낭을 그리면서 그의 성격을 더 짙게 채색하였다. 그의 배낭속에는 벽성의 고향에 보낼 빈 편지봉투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많은것을 독자들에게 말해주고있다.

진실한 성격, 산 인간을 우리는 보았다.

이 단편소설이 주인공의 매혹적인 성격을 진실하게 창조할수 있는것은 또한 구성의 극적집중성과 짜임새, 정황의 극적예리화에 있다.

소설은 말그대로 소설이지 극은 아니다. 그러나 생활의 어느 한 단면을 표착하여 절실하고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를 날카롭게 밝혀대는 단편소설에서는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는 계기와 국면을 극적으로 집약화하고 예리화하면 할수록 좋다.

단편소설 《대지의 표정》은 인간관계와 사건을 집약화, 집중화하면서 소설전반을 극으로 충만시키고있다. 소설은 시작부터 마감까지 긴박한 극적정황속에서 이야기를 끌고나간다. 장능보전사와 관련하여 앞뒤에 설정한 두개의 인상적사건은 능보의 움직임을 목격하는 소대장이 긴장하던 나머지 입술을 악물고 온몸을 떨면서 가슴을 조일만치 활줄처럼 팽팽하게 켜기워져있다. 하기에 이런 정황속에 움직이는 인물들에 대한 묘사도 간결하고 방력있게 진행되고있는데 어디에도 인물들의 심리묘사는 전개되어있지 않으며 행동묘사는 한두 문장속에 함축되어있다.

이야기를 극적으로 엮어나가는데서 얼룩소임자인 농민의 설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수 있다. 그가 필요한 인물인가. 잘 짜인 구성의 극적집중성이 그때문에 손상되지 않았는가...

아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극은 더 짜여지고 주인공의 형상이 돋보이고있다.

첩첩한 눈의 농민은 소설에 두번 등장한다. 처음에 자지 소를 구해준 《군대어른》에게 인사를 올리자고 나타났을 때 그는 조발과 소에 갇든 감명깊은 사연을 터놓아 멍멍하던 소대장의 마음을 풀어주었으며 소뒤편에 처맨 분홍색 개인봉대로써 능보의 응심깊은 마음속을 내비쳐주었다.

치열한 격전을 치르고 능보가 희생된 뒤 다시 나타난 그는 모든것을 이해하고난 소대장에게 능보에 대한 값높은 상념을 불러일으킨다.

어쩐지 우리 독자들에게는 첩첩한 눈의 그 농민이 꼭 능보처럼 느껴진다. 그렇다. 그는 곧 주인공 장능보이다. 긴장한 극적정황속에서 미처 구체적으로 그려보여줄수 없었던 능보의 뒤생활과 진실한 속마음이 그의 모습속에 구현되어 나타난것이며 대지에 피를 뿌리고 숨졌으나 대지와 더불어 영생할 능보의 고결한 넋이 그의 모습으

로 되살아나 대렬속에 돌아온것이다.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능보를 더 깊이 리해하게 되며 대지의 숨결을 더 뜨겁게 느끼게 되는것이다.

또한 그는 작품의 극적정황을 직접 조성시킨 장본인일뿐아니라 작품의 감정선을 긴장과 완화의 톨동적인 과정으로 조화시켜주는 중재자이다.

집중포사격구역안에서 소를 끌어내는 예리한 극적정황속에서 앞뒤를 가릴새없이 마구 폭발되어 거칠게 뒤엎힌 인물들의 심리세계는 그가 소를 끌고 등장하여 몇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점차 정리되어 사색하고 분석할 여유를 준다. 소대장 정시화에게 있어서 이것은 자기의 맹목적인 선입견을 누르고 장능보의 사람됨에 대해 다시 한번 생

각해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원래 감정조직은 긴장과 긴장의 연속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긴장된 장면뒤에는 보다 더 팽팽히 긴장시켜나갈수 있는 상대적완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작가는 얼룩소임자를 등장시켜 앞뒤에 설정한 긴장한 극적정황에 탄력있는 중간다리를 만들어준것이다.

소설에는 이처럼 불필요한 인물이나 세부는 없다. 또한 언어구사가 간결하고 세부묘사들이 섬세하다.

그러나 이 소설에는 부족점들도 있다.무엇보다 소대장 정시화의 성격형상에서 어느 정도 주관적도식을 찾아볼수 있다.

주인공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기본상대인물로서 정시화의 형상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장능보의 형상은 모두 정시화의 눈과 생각, 체험을 통해 제시되고있다. 장능보의 성격을 보다 심오하고 인상깊게 드러내기 위하여 그를 잘 리해하지 못하는 정시화의 내면세계를 강조해야 할 필요는 있으나 어떤 대목에서는 지나치게 의도를 앞세워 성격을 도식화하고있다.

레하면 능보가 위급한 순간 적땅크를 끼기 위해 전호를 뛰쳐나가는 마지막대목이 그렇다. 작가는 그의 모습을 본 소대장의 심리를 그리면서 《기가 막혔다》고 했으며 (과연 저사람이 ? ...) 하는 《의혹과 놀라움의 교차속에 주시》하였다고 했다.

운명적인 지각에 목숨을 내대고 적땅크를 끼겠다고 기여나간 전사를 보고 소대장이 기가 막힌다는것은 무엇이며 의혹은 또 무엇인가. 확실히 주관적도식이다.

또한 작품에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은 결사대에 하필 하루밖에 훈련을 안받은 신대원들만을 보충해주어야 할 타당한 근거가 주어지지 않고있다.아무리 전략상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정황이라도 그우에 중대와 대대가 있는 이상 말그대로 결사대로 싸울 소대에 총을 겨우 세방 쏘보았는데 그나마 한방도 못맞춰본 사람들을 보낸다는것

은 너무나 리치에 맞지 않는다.

작품은 모든 설정, 모든 형상이 생활과 성격의
론리에 맞아야 한다. 사소한 의문이라도 생기면
형상의 진실성에 돌이킬수 없는 손실을 입을수
있다.

아마도 이런 측면들에 좀더 관심을 돌렸더라면

소설은 보다 훌륭한 작품으로 완성되었을것이
다.

생활을 깊이있게 탐구하고 당과 수령께 끝없는
충직한 새형의 인간성격을 진실하게 그려낸 좋
은 단편소설들을 더 많이 창작하자.

기쁨속에 옛말하네

윤영탁

앞마당 노적가리우에
등근달 휘영청 올라앉은 밤
종구나 미루벌 박아바이네
막내아들 잔치한다오

해빛 언제나 눈부신 방에
꽃과 같은 도시치너 맞아들이고
박아바이 너무 좋아 이리 보고 저리 보며
이 밤에 옛이야기 펼쳐놓았소

-옛날옛적 치너 하나
미루벌로 시집와서
목이 말라 이슬방울 털어먹다
삼일만에 도망쳤지

온 집안에 웃음집이 와그르 터지는데
웬일인가 저만큼 물러앉는 할머니
웃음절반 눈물절반
목메여 하는 말

-하필이면 이 기쁜남
그 옛말은 왜 펼치노
내사 미루벌로 시집와서
물그립고 쌀그리워
령감정도 다 잊을번했지

아하 어찌보면 전설같고
옛말같은 그 이야기
우리 미처 몰랐구나
박아바이 가문의 이야기였던줄을...

그런들 어떠리 그 옛날에야

어찌다 맞아들인 새 사람마저
본의아닌 생리별을 하소하던 이고장에
오늘은 도시치너 별방치너들이
앞다투며 깃을 펴고 날아드는데야

아무렴 하늘에 극락이 있다 한들
내 사는 이고장에야 어찌 비길소냐
박아바이 배내밀며 앞문 활짝 열어제끼니
저것 봐라 미루벌이
또다시 천지개벽하였구나

호수가의 밤기러기 줄지어 날아올라
두리둥실 밝은 달에 목도리를 둘러주고
수령님 다녀자신 재우재기슭
즐비하게 새집들이 내거리로 솟았는데

백리라 가없는 벌에 짝 차넘치는
프락또르 발동소리 자동차소리
엇갈리며 대낮감이 오고가는 불빛들
그저 저 하늘 별숲이 여기 온통 내렸도다

어허 좋을시구 미루벌이 좋을시구
눈물겹던 그 세월을 옛말속에 묻어두고
수령님 은덕아래 당의 해빛아래
날을 따라 큰 살림이 펼쳐지는 땅

달빛아래 흰수염 끌어내리며
새며느리 그 모양도 언지시 다시 보며
박아바이 이 밤에 큰소리친다
-두고 보아라 우리 미루벌사람들이
공산주의 대가정을 제일먼저 꾸릴테니...

거울 반쪽

리 원 배
오 희 복 역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민족문화유산에 대하여 허무주의적으로 대할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그것을 계급적립장에서 똑바로 알려주어야 하며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것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진보적이며 인민적인 문화유산은 오랜 력사적시기를 거쳐 내려오면서 그 내용에서 뿐아니라 형식면에서도 끊임없이 변화발전하여왔다.

이번 호에 편집하는 리원배(1745~1802)의 시 《거울 반쪽》은 18~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새로운 풍조를 보이면서 다양한 발전을 이룩하던 우리나라 시문학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은 《삼국사기》에 실려 전해지는 가설과 설랑에 대한 인민설화에 기초하여 서정서사시적인 형식으로 창작한 한문자의 시작품이다.

그대 님 맞이하려
상우에 비단이불 올려놓았고
그대 님 맞이하려
결에다 거울 반쪽 걸어놓았네

이 저녀은 어떤 저녁인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저녁
아버지는 기쁨겨워 잠 못이루고
등잔불 돋우며 앉아계시네

신부마음 기쁨과 슬픔에 엉켜
그 몇번 탄식하며 말을 하였네
이제는 우리 혼사 이뤄졌으니
지나간 옛일들을 얘기하리다...

늙으신 아버지 환갑나이에
허약한 몸 병들어 누워계셨네
그때에 변방엔 싸움이 잦아
수자리 군사들 뽑아가는데

작품은 설씨설화의 줄거리를 거의 그대로 리용하고있으나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밝히고 성격들을 부각하는 방향에서 사건들을 전개하여 구성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당대 피압박인민들로서 이들의 형상에는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성격과 전투적인 미풍이 체현되어있으며 여러가지 묘사에서 민족적풍모가 잘 풍기고있다.

봉건시기 억압받고 무권리한 인민을 긍정적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그들의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풍모를 우리 나라 한자시문학에서 서정서사시적형식으로 노래한것으로 하여 의의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시대적인 제한성과 작가의 사상예술적인 제한성으로 하여 엷음새가 짤리지 못했고 인물들의 성격을 사회정치적관계에서 폭넓게 형상하지 못한 약점이 있다.

앞마월에 내려온 군사명부에
아버지 이름도 적혀있었네
아버지가 떠나가면 못돌아온다고
부녀는 부여잡고 눈물흘렸네

집안에 사내아이는 없으니
그 누가 늙은이를 대신하겠니
슬하에 자식이란 너 하나뿐
그 누가 내 걸음 대신하겠니

아버지의 그 말에 딸은 슬펐네
차라리 제몸으로 대신하려나
연연하고 나약한 처녀몸
어이 병쟁기를 잡을수 있으리

아무리 생각해도 별수 없어
부녀는 부여안고 눈물흘렸네
이럴 때 이웃마을 젊은 가실이
스스로 그 아버지를 대신나섰네

높은 그 의리 세상 드물고
그 은혜 산과 바다 같으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으랴
진정으로 그에게 사례하였네

내 이번 수자리 길을 떠나면
다시는 고향땅에 못돌아올걸
그대가 내대신 가겠단 하니
무엇으로 이 은혜 갚을수 있나

늙은 내가 아끼는건 아무것 없고
애젊은 딸애 하나 있을뿐이네
얼굴생김 그다지 곱지 못하나
길쌈일은 그래도 잘하나니

그대 만약 아직도 총각이라면
내 딸이 자네 돌아오길 기다릴결세
바라노니 부디 잘 다녀오라
돌아오면 좋은 연분 맺게 되리라

가실은 아버지께 인사드렸네 .
그 말씀 진정으로 고마웁다고
로인님의 그 말씀 고마울지만
약속한 표적은 있어야 하리

나에게 한개의 거울 있거니
이것을 나누어서 두쪽 만들어
하나를 따님이 간수해두고
한쪽은 내 몸에 지니오리다

나에겐 기르던 말도 있으니
로인님이 그때까지 길러주소서
돌아올 날 손꼽아 가늠해보니
아마도 3년이면 될듯합니다

젊은이 절을 하고 길을 떠날 때
아버지는 큰길까지 바래주었네
산설고 바람세찬 변방땅에서
가실은 병기들고 고생하였네

설랑은 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언제나 그대 님 생각하였네
마구간의 준마도 그를 반겼고
채롱속의 쪽거울은 그를 비쳤네

그대 님은 기다려도 안돌아오고

빈방에서 세월은 빨리 흘렀네
창문앞에 꽃피던 복숭아나무
여섯번째 탐스러운 열매열렸네

어느날 아버지는 딸을 불러
가까이 앉히고 말씀하셨네
내 이제 산다한들 얼마 더 살라
집안엔 너밖에 자식 없구나

내 몸에 자식이란 너 하나뿐
늙은 나는 너만 믿고 살아가거니
떠난 사람 생각 말고 시집가거라
그러면 아들겸 사위생기리

네 나이 올해에 몇이 되느냐
그러다간 한창나이 때를 놓칠라
지난날 가실이와 약속을 할 때
3년으로 기한을 정하지 않았더냐

어언간 석삼년이 두번 지났어도
아무런 소식도 알길 없구나
이웃마을 총각 하나 말이 났는데
집안은 참말로 당당하더라

나이드 올해에 열대여섯살
얼굴이 번듯하고 끼끗하더라
집안살림 협편도 꽤 넉넉하고
권세도 재물도 팬치않단다

옛그제 중매군 나를 찾아와
혼사를 치르자고 말을 하더라
그래 나는 단마디로 허락했으니
저쪽 집도 좋은 날을 기다릴게다

너도 이젠 첫날옷 지어야겠고
시집갈 차림도 해야 하겠다
이것저것 갖추기 어려운것은
집안재물 팔아서도 마련하거라

아버님 이내 마음 잘못 보셨소
아버님 무슨 말씀 그리하세요
떠나간 사람과 하신 그 약속
아버님은 어이 벌써 잊으셨나요

아버님이 사위 하나 못맞는대도
약속하신 그 일을 차마 어기시려오

이 딸은 빈방에서 늙어죽어도
맹세코 다른 집엔 안가오리다

아버지는 이 말 듣고 성을 내더니
이윽고 웃음지며 딸을 달랬네
아가야 어린 네가 무얼 알겠니
늙은 아빈 벌써부터 생각한거다

처음엔 그런 생각 나도 했지만
그때의 약속은 3년이였다
이젠 벌써 6년세월 지나갔건만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 없구나

그 총각이 늙은 나를 저버리었지
애비야 총각을 저버렸느냐
네가 만약 그대로 기다리기만 하면
늙디늙은 이 애비를 어쩔려느냐

네 지금 내 말을 귀담아듣고
곰곰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음부터 다시는 두말말아라
내 마음 결심한지 이미 오래다

설랑은 그 말 듣고 얼굴 붉혔네
령령한 말투로 대답하였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며는
만물의 령장이라 일러오지만

이 딸이 들어온 옛사람들의 말
《신용이 없다면 사람 아니다》
한번 맺은 그 언약 어길수 없어
목숨마저 버린 사람도 있지 않나요

아버님은 그 사람과 약속하시고
이제와서 어기시니 어인 일이옵니까
하물며 아버지 대신 떠나간 그이
누굴 위해 변방에서 고생하나요

후에라도 그이가 돌아오거든
아버님은 무슨 낮에 만나시려오
그이가 아직까지 못돌아옴은
나라일에 한몸을 바쳤기때문

그이가 아버님을 저버리다니
아버님이 그 사람을 배반하셨소
아버님은 3번이라 말씀하지만

이 몸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리다

십년이고 그대 님 안돌아오면
십년동안 빈방을 지킬것이고
백년이고 그대 님 못돌아오면
백년동안 빈집을 지키오리다

그대 님의 큰 은혜 어디 갚을가
늦어온다 그 약속 감히 어길가
아버님 저의 뜻 꺾으시려면
차라리 이 목숨 끊어주소서

아버지는 딸의 말에 감동하였네
얼굴에 근엄한 빛 가득 담았네
늙은 내가 그만 잘못하였다
듣고보니 네 말이 백년 옳구나

내 만약 네 말이 아니었다면
하마트면 사람구실 못할번했다
네가 품은 생각대로 처신하여라
내 이제 이웃 총각 거절할테니

설랑은 그 말 듣고 일어나앉아
눈물을 거두면서 방긋 웃었네

방안에 들어가 채롱을 여니
반쪼각 거울은 빛을 뿌렸고
마구간의 준마도 발을 구르며
주인이 돌아온듯 반가와했네

어느 하루 아버지 밖에 나갔다
미칠듯 기쁜 소식 듣고오셨네
변방의 수자리 이젠 풀리어
가실이도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가실이 돌아오면 성례를 해야지
아가야 한시바빠 옷단장해라

머칠후 가실이 돌아왔건만
파리한 그 모습 전과 달랐네
제발로 가실이 왔다하건만
아버지는 그 얼굴 몰라보았네

총각은 잠자코 말이 없더니
품속에서 거울 반쪽 꺼내보였네
반쪽 거울 두개를 합치고보니

둘레도 가지런히 꼭 들어맞네
 이 거울에 그대 마음 비쳐볼는가
 정녕코 그대 님 돌아왔구나
 하루빨리 좋은 날 골라잡고서
 잔치차려 좋은 인연 이루어야지
 온 동네사람들 모두 모여와
 바라보며 두세번 칭찬하였네...

깊어가는 이 한밤 초불앞에서
 신부와 신랑은 마주앉았네
 신랑은 의리있는 좋은 사나이
 신부는 지조높은 여진 아가씨
 반쪽거울 이제 다시 합치고나니
 즐거워라 좋은 연분 이리어졌네
 이토록 아름다운 옛날이야기
 력사책에 오래도록 전하여지리

조국의 푸른 지붕아래서

박재수

밤깊어
 숲푸른 청봉밀림에
 별빛은 고요히 날아내리고
 어디선가 스쳐오는 바람결에
 찬이슬 옷자락 적시여도
 나는 가슴뜨거이 서있다
 두고온 고향집 처마밑보다
 다음 더 후더워오는
 청봉,
 너의 푸른 지붕아래
 귀강구니 들려오누나
 그 밤의 천막가 여기저기서
 혈전만리 달려온 열혈투사들
 온돌아닌 가랑잎 깔고
 너의 끝없는 설레임소리 들으며
 장밤 나누던 그 속삭임소리...
 아름답리 구호목 쓰다듬으니
 이 가슴에 안겨오누나
 숨지던 강토에 소생의 맥박을 주며
 한획, 또 한획...
 항전의 노래를 새겨가던
 투사들의 불같은 그 마음
 이깎삭정이 빨강게 익던

모닥불자리 더듬으면
 고향땅에 새봄안고 가는날
 용광로의 첫쇠물 끓이자던
 투사들의 그 목소리 울려오고
 취사장터 웅달샘 찾으리
 친위전사의 진정이 어리였구나
 오, 청봉의 푸른 숲이여
 하기에 너는 그날 그 밤에 별써
 조국의 지붕으로 되었구나
 장군님 오시여
 투사들의 그 념원
 겨레의 한마음
 모두 품안아주셨기에
 정녕 못잊을 그 봄밤
 투사들 마음의 지붕으로 엮고간
 그 푸른 지붕이 있어
 내 여직껏 고향집 추녀아래서
 행복의 단잠을 잤구나
 오, 언제나 잊지 않으리
 푸른 숲 네 모습
 내 너를 떠나 그 어디 간대도
 눈비의 차거움을 모르며
 너의 푸른 지붕 머리에 이고 살리라
 혁명의 성지, 숲푸른 청봉이여

폭 포 외 2 편

안정기

장하구나!
천길벼랑 뛰어내려
억만구슬 휘뿌리는
너 구룡의 폭포수

쏟아지는 열광의 물줄기는
금강의 우뢰인가
숫구치는 칠색물기둥은
선경속의 무지개가

오, 거창한 네 물길아래서
나는 불현듯 보았노라
거인으로 솟아 나래편 나의 모습을
절벽을 뒤흔드는 네 웨침아래서
나는 심장으로 들었노라
온몸에 넘쳐나는 열정의 노래를

넋을 잃고 섰노라
천하명승 황홀경에
발길 차마 못돌려

내 삶의 걸음걸음
너를 두고 다시 또다시 돌아보며...

저 아슬한 창공에서
날아내리는 벽계수
한번 흘러 다시 못을 그 길에
조국강산 빛내는 폭포수

소리치누나!
빛발치누나!

내 한생의 길도 너와 같이
뛰어내렸다 다시 오르는
아이들의 조약대가 아니어늘

반복할수 없는 인생향로에
너처럼 값높이 달려가라고
정한 길 주저없이...
험한 길 용감히...

사랑은 어디 있는가

다니지 마시라
사랑을 구하려
사랑은 언제나
가까이 있는것

묻지를 마시라
진정을 알려고
진정은 말이 아닌
일속에 있는것

유보도 달빛아래서야
그 마음 어이 알랴
미소어린 그 얼굴밖에

달콤한 그 말소리밖에

다니지 마시라
사랑을 구하려
묻지를 마시라
진정을 알려고

불꽃튀는 기대옆에
산처럼 쌓아놓은 제품에
아름다운 그 얼굴 비껴있으리
달빛으로는 볼수 없는
그 마음-진정까지도

사랑의 조건

탓하지 않으리
키는 늘씬하지 않아도
나무라지 않으리
얼굴은 번뜻하지 않아도

그대 말 주변은 비록 없어도
꾸밈새없는 소박한 말로
내 심장 울려준다면

고백은 해서 무엇하랴
맹세는 해서 무엇하랴
가슴에 꿰는 그대의 열정

바이트날에 불꽃으로 튕긴다면

탓하지 않으리
차림새는 수수해도
나무라지 않으리
화려한 레물은 없어도

꺼지지 않는 심장의 화불을 들고
걸어갈 인생의 먼길에
그 어느 한자옥도 부끄럼없는
영원한 동행자로 된다면

나는 알고있다네

김명길

봄이면 버들개지 곱게 피고
가을엔 단풍잎에 붉어져
지금도 귀기울이면
정들은 그 흐름소리 귀에 쟁쟁한
내 고향 산기슭을 내리는
자그마한 시내가

새 소꿉시절
고기잡이에 정신팔려
샘솟아흐르는 너를 막자고
돌이며 흙을 무저놓던 일
어제런듯 삼삼히 생각되는구나

그 몇번이더냐

막으면 터지고
또 막으면 넘쳐흘러
내 끝내는 기진하여
네 흐름 막자는것이
얼마나 우둔하고 어리석은것인가를
그 나이에 벌써 깨달았었지

아, 어릴적 그 추억은
이 마음 다잡아주고
당을 위해 바치는 나의 열정
끝없는 진정은 그 시내물 되어
때로 꿈속에도 어리더라
언제나 이 가슴에 흐르고 흘러

초 산 외 2 편

김영길

가도가도 풀덩쿨
길을 막아 발목을 감고
보고봐도 잠판목
무성히도 자라올라

그래서 그 옛날
풀 많고 나무 많아
살지 못할 두메라고
누군가 지은 그 이름 초산이라네

피나리보짐우에 쪽박을 얹어메고
울망줄망 아이들을 거느리고
살길 찾아 정처없이 흘러가던
류랑민 하나 둘...
세상을 등지고 숨어든 고장

발 한뼘기 있었던가
논 한뼘기 있었던가
키넘는 풀숲에 삶이 묻히고
무성한 덤불에 생이 얹히어
누구도 헤어못나더니...

산이 높아 처음 와닿는
그 해빛이 꽃피었나
나라의 지경으로 흐르는
장강의 흐름라고 실려왔나
밝은 얼굴, 삶의 행복...

험한 산 넘고넘어
세찬 강물 헤쳐헤쳐
이고장에 사랑의 자욱 새기신 수령님
풀과 나무로 새생활 가꾸라신
그 말씀 꽃피어
빛나는 산촌이라네

꿀엔 꿀마다 주렁진 머루다래
꿀물이런가 약주이런가
필필이 천감으로 산을 덮은 노박덩굴
산삼꽃 백봉령...
일만약초 푸르르고
풀숲엔 구름처럼 흐르는 양의 떼...

아, 가버린 세월에야
물이 많아 나무 많아 한이더니
오늘에사 그것없이 될말인가
보화가 묻히우고
행복이 엉키고 주렁저
천년을 만년을 살고싶은 산촌

그래서 초산이라네
풀과 나무 많아 잘산다고
새로와진 그 이름
어이 달리 부를손가
초산 초산
초산이라네

앙 토 나 루

압록강 물결을 거슬러
오신 길 백리런가 천리런가
언젠가는 수령님
험한 령 넘고넘어 오시더니
첫새벽에 의주 떠나
열어오신 저 배길

그적에는 뒤엀킨 풀송구리
기슭에는 발목치는 진흙감탕
어디엔가 새겨졌을 그 자욱 더듬노라니
밀려왔다 밀려가는 물결우에
어려오는 그날의 영상이여
한여름 장마로 강물은 범람하고
물동가에 덧쌓인 폐목도
물결높아 못내리던 날

일군들의 만류도 굳이 마다하시고
앞장서 나서신 수령님

오르고 오를수록
사품치며 높아가는 물결
더더욱 세차지는 비발속에
숫았다 잤았다
떠가는 발동선

배머리에 숙연히 서시여
스쳐가는 복변의 산발
수령님 이윽히 바라보시는데
우산을 펼쳐들고
간절히도 아뢰이던 수원들의 그 부탁
배길이 위험하니 되돌아가시자는...

아, 물결도 일어서며 옷짓을 잡는데
 산천에 뜨겁게 울리신 말씀
 인민을 위해 걷는 길에
 위험을 가려본적 없다시며
 배길 곧바로 이으셨나니

뜻밖의 영광 강변에 넘쳐
 돌을 돌고 나무메고
 마을사람들 서둘러 내닫는데
 환한 웃음 지으시고
 발목을 잠그시며 내리신 수령님

머나먼 심산두메
 산골사람들을 생각하시는
 은혜로운 사랑이 닳을 내리시여

그날부터 이고장에 새로 생겼어라
 앙토나루 앙토나루

아, 수령님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해빛밝은 락원의 거리
 꽃피는 공산주의리상촌
 이 땅의 외진 벽지 한끝까지
 이어져 솟았나니

앙토나루 영광의 나무여!
 너는 아버지수령님께서서
 공산주의 기슭으로 항로잡은
 큰 배를 여기에 대이시여
 사람도 산천도 다 불러 태워주시는
 은혜로운 사랑의 나무여라

산 촌 풍 경

내가에서 흰 빨리치는
 너인들의 물방치소리에 시샘하는가
 푸른 수면우에 은보라 일쿠며
 철썩덕 철썩-
 물고기들 뛰어오르는 소리

어허 장관이로다
 키높은 가름대를 날아넘는
 높이뛰기 선수면 저렇게 뛰랴
 그물을 넘으려는 꼬리를 덮쳐잡고
 첨버덩-
 물속에 덩구는 사나이들

종다리 손에 든 발가슴이 아이
 엎어질듯 강변을 내달리더
 야무진 소리 고래고래 울리고
 강건너엔 물마시던 사슴무리
 뿔머리 추켜들고 쳐다보네

해님도 구름숨을 헤쳐나와
 가던 길 멈추고 내려다보는
 한낮도 정오
 불별에 달아오른 가마에선
 뭉게지여 피어나는 흰김
 그속에 삶의 환희도 함께 피어오르는듯

종구나 부글부글 어죽을 끓여놓고
 향기로운 산삼주
 잔이 넘치도록 쪼으며
 꽃피는 삶

누리는 행복을 축원할
 이런 날 이런 때

아, 값높은 로동으로 안아온
 류다른 산촌의 휴식일
 제 아니 즐겨보고
 어이 그 멋을 다 알랴
 제 아니 와보고
 기슭에 넘치는 사랑의 사연
 어이 다 헤아리랴

락원의 절정을 이 산촌에 펼쳐주신
 은혜로운 수령님
 초산강가에 몸소 잡아주신
 사랑의 천렵터
 억만마리의 물고기들을 풀어놓아
 삶이 희열이 번쩍이는 기슭이여

나날이 노래이고
 나날이 기쁨인 세월에
 이런 멋도 없이야 그 무슨 삶이라
 로동은 흥겹고
 생활은 즐거워...

야 저 보아라
 칠썩칠썩 물장단 치며
 여기저기 뛰고뛰는 잉어 송어...
 번쩍이는 은비늘 금비늘...
 과시 장쾌한 산촌의 절정이로다
 우주만물 넋을 잃는 화폭이로다

옛지휘관이 찾아오다

윤기찬

헤어져 그립고
그리워 보고싶더니
지척인듯 달려왔구나
여기 간석지건설장으로
그리운 병사들을 찾아왔구나
우리의 옛지휘관

십년세월 정들었던
옛전우들이 보고싶었던가
련락병이 그리웠던가
서로 다른 병사들의 생각
건설장의 지휘관으로 왔는가

하냥 반겨주는 마음들에 싸여
말없이 제방뚝을 내리는 그
어느 해변가의 병실에 들어선듯
해초냄새 싱그러운
합숙창가에 걸음 멈추어라

진펄의 천막을 그려보았건만
그날의 병실과 다름없는곳
줄지어오른 숨이붙이며
두툼한 햇솜동복과 장화-
그 모든것을 끌어보며
하냥 들먹이는 마음이어

아, 병사들의 가슴을 흔드는

사랑의 메아리런가
심장마다에 안겨주는 수령님의 그 말씀
-옛지휘관이 나를 대신하여
제대병사들의 생활을 돌아보고
그대로 나에게 보고해주시오!

문득 가보고싶건만
불편이 있어도
생활의 불편만은 말하지 않는 성미들이기에
허물없는 옛지휘관이
병사들의 마음을 안고오라 하신
한없이 뜨거운 은정이어

작은 일도 큰일도 다 말하고
속마음까지 터놓는
병사들인줄 아시면서도
한점의 그늘이라도 남겨둘세라
그토록 마음 못놓으시며
베푸시는 하늘같은 그 사랑이어

아, 총을 땀던 병사들이여
이런 사랑이 이어지는속에
조국의 천리 만리별이 펼쳐지는구나
이런 뜨거운 태양의 빛발속에
우리 제대병사들이 살고
우리 인민이 살고있구나